모주석어록

★

전세계 로동자들은 단결하라!

모주석어록

★

외 국 문 출 판 사
베이징

중화인민공화국에서 인쇄

목 차

1. 공산당 ……………………………………(1)
2. 계급과 계급투쟁 ……………………(8)
3.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22)
4. 인민내부의 모순을
정확히 처리하자 ………………………(42)
5. 전쟁과 평화 …………………………(54)
6. 제국주의와 일체 반동
들은 모두 종이범이다 ………………(67)
7. 과감히 투쟁하며
과감히 승리하자 ………………………(76)
8. 인민전쟁 ……………………………(82)
9. 인민의 군대 …………………………(92)
10. 당위원회의 령도 ……………………(96)
11. 군중로선 ……………………………(109)
12. 정치사업 ……………………………(124)
13. 관병관계 ……………………………(136)

14。군민관계……………………………(140)
15。3대민주 ……………………………(143)
16。교육과 훈련 ………………………(149)
17。인민을 위하여 복무하자…………(153)
18。애국주의와 국제주의 ……………(158)
19。혁명적영웅주의……………………(164)
20。근검하게 나라를 건설하자………(168)
21。자력갱생, 간고분투………………(175)
22。사상방법과 사업방법 ……………(183)
23。조사연구……………………………(208)
24。그릇된 사상을 시정하자…………(215)
25。단결…………………………………(228)
26。규률…………………………………(231)
27。비판과 자기비판 …………………(234)
28。공산당원……………………………(243)
29。간부…………………………………(251)
30。청년…………………………………(262)
31。녀성…………………………………(267)
32。문화와 예술 ………………………(271)
33。학습…………………………………(276)

1. 공산당

우리의 위업을 령도하는 핵심적력량은 중국공산당이다.

우리의 사상을 지도하는 리론적기초는 맑스-레닌주의이다.

중화인민공화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기제1차회의개회사 (1954년 9월 15일)

혁명을 하기 위하여서는 혁명적당이 있어야 한다. 혁명적당이 없이는, 맑스-레닌주의의 혁명적리론과 혁명적풍격에 의하여 창건된 혁명적당이 없이는 로동계급과 광범한 인민대중을 령도하여 제국주의와 그 주구들을 타승할수 없다.

《전세계 혁명적력량은 단결하여 제국주의의 침략을 반대하자》 (1948년 11월)

중국공산당의 노력이 없이는, 또 중국공산당원들이 중국인민의 튼튼한 기둥으로 되지 않고서는 중국의 독립과 해방은 불가능하며 중국의 공업화와 농업근대화도 불가능하다.

《련합정부에 대하여》(1945년 4월 24일)

중국공산당은 전중국인민의 령도적핵심이다. 이러한 핵심이 없이는 사회주의위업은 승리할수 없다.

중국신민주주의청년단 제3차전국대표대회에 참가한 전체 대표들을 접견한 석상에서 한 연설 (1957년 5월 25일)

규률이 있고 맑스-레닌주의리론으로 무장하였고 자기비판의 방법을 사용하며 인민대중과 련계를 맺고있는 당. 이러한 당에 의하여 령도되는 군대. 이러한 당에 의하여 령도되는 혁명적계급들과 혁명적당파들의 통일전선. 이 세가지는 우리가 적을 타승하는

주요한 무기이다.

《인민민주주의독재에 대하여》(1949년 6월 30일)

우리는 대중을 믿어야 하며 당을 믿어야 한다. 이것은 두개의 근본적원리이다. 이 두개 원리를 의심한다면 아무 일도 해낼수 없다.

《농업협동화문제에 관하여》(1955년 7월 31일)

맑스-레닌주의의 리론과 사상으로 무장된 중국공산당은 중국인민속에 새로운 사업작풍을 수립하였다. 그것은 주로 리론과 실천을 결부하는 작풍, 인민대중과 긴밀히 련계하는 작풍 및 자기비판의 작풍이다.

《련합정부에 대하여》(1945년 4월 24일)

위대한 혁명운동을 지도하는 정당으로서 혁명리론이 없고 력사지식이 없고 실제운동에 대한 깊은 리해가 없다면 승리를 달성

하기는 불가능하다.

《민족전쟁에 있어서의 중국공산당의 지위》(1938년 10월)

우리가 이전에도 말하였지만 정풍운동은 《보편적인 맑스주의적교양운동》이다. 정풍이란 전당적으로 비판과 자기비판을 통하여 맑스주의를 학습하는것이다. 정풍을 통하여 우리는 반드시 맑스주의를 더 많이 소유하게 될것이다.

《중국공산당 전국선전사업회의에서 한 연설》(1957년 3월 12일)

수억만 중국사람들을 잘 살게 하며 경제문화적으로 락후한 우리 나라를 부유하고 강대하고 높은 문화를 가진 나라로 건설하는것은 매우 어려운 과업이다. 우리가 정풍을 해야 하며 지금 할뿐만아니라 앞으로도 해야 하며 우리 몸에 있는 그릇된것들을 부단히 없애버려야 하는것은 바로 우리가 이 과업을 더 잘 담당하며 개혁을 지향하는 당외의 모든 인인지사들과 함께 더 잘 사업하

기 위한것이다.

《중국공산당 전국선전사업회의에서 한 연설》(1957년 3월 12일)

정책은 혁명정당의 모든 실제행동의 출발점이며 또한 행동의 과정과 귀결에서 표현된다. 혁명정당의 모든 행동은 다 정책을 실시하는것이다. 옳바른 정책을 실시하는것이 아니면 그릇된 정책을 실시하는것이며 그 어떤 정책을 자각적이 아니면 맹목적으로 실시하는것이다. 이른바 경험이란 바로 정책실시의 과정이며 귀결이다. 정책은 오직 인민의 실천가운데서만, 다시말하면 경험가운데서만 그 옳고 그름을 실증할수 있으며 그의 옳은 정도 또는 그른 정도를 확정할수 있다. 그러나 사람들의 실천, 특히 혁명정당과 혁명적대중의 실천은 이런 또는 저런 정책과 련계되여있지 않는것이란 없다. 그러므로 매개 행동에 앞서 우리가 실정에 따라 규정한 정책을 당원과 대중들에게 똑똑히 해설해주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

면 당원과 대중들은 우리 정책의 지도로부터 리탈하여 맹목적으로 행동하며 그릇된 정책을 집행하게 될것이다.

《공상업정책에 관하여》(1948년 2월 27일)

우리 당은 중국혁명의 총로선과 총정책을 규정하였으며 또 일련의 구체적인 사업로선과 구체적인 정책을 규정하였다. 그러나 많은 동지들은 흔히 우리 당의 구체적인 개개의 사업로선과 정책은 기억하고있으나 우리 당의 총로선과 총정책은 망각하고있다. 만일 우리 당의 총로선과 총정책을 정말 망각한다면 우리는 맹목적이고 불완전하고 명석하지 못한 혁명자로 될것이며 구체적사업로선과 구체적정책집행에서 방향을 잃게 되며 좌우로 흔들리게 되며 우리의 사업을 그르치게 될것이다.

《산서-수원해방구간부회의에서 한 연설》(1948년 4월 1일)

정책과 전술은 당의 생명이다. 각급지

도일군들은 절대 이를 소홀히 하지 말고 충분한 주의를 돌려야 한다.

《정황에 관한 통보》(1948년 3월 20일)

2. 계급과 계급투쟁

계급들이 투쟁하여 일부의 계급들은 승리하고 일부의 계급들은 소멸된다. 이것이 곧 력사이며 수천년의 문명사이다. 이 관점에 립각하여 력사를 해석하는것은 력사적유물론이고 이 관점의 반면에 선것은 력사적관념론이다.

《환상을 버리고 투쟁을 준비하자》
(1949년 8월 14일)

계급사회에서는 누구나 다 일정한 계급적지위에서 생활하고있으며 그 어떤 사상이든지 모두다 계급적락인이 찍혀있다.

《실천론》(1937년 7월)

사회의 변화는 주로 사회에 내재하는 모순의 발전, 즉 생산력과 생산관계와의 모

순, 계급들간의 모순, 새것과 낡은것간의 모순에 의하여 일어나는바 이러한 모순의 발전에 의하여 사회의 전진이 추동되며 신구사회의 교체가 추동된다.

《모순론》(1937년 8월)

농민에 대한 지주계급의 가혹한 경제적착취와 정치적억압은 농민으로 하여금 지주계급의 통치에 반항하여 여러차례의 봉기를 일으키지 않을수 없게 하였다. ……중국봉건사회에서는 이러한 농민의 계급투쟁, 농민의 봉기, 농민의 전쟁만이 력사발전의 진정한 동력이였다.

《중국혁명과 중국공산당》(1939년
12월)

민족투쟁은 결국은 계급투쟁문제이다. 미국에서 흑인을 억압하는자는 다만 백인종중의 반동지배층들뿐이다. 이들은 결코 백인종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로동자, 농민, 혁명적지식인과 그밖의 개명인사들을 대표

할수 없다.

《미제국주의의 인종차별을 반대하는 미국흑인의 정의의 투쟁을 지지하는 성명》(1963년 8월 8일)

인민은 우리가 조직해야만 한다. 중국의 반동분자는 우리가 인민을 조직하여 타도해야만 한다. 일체 반동적인것은 치지 않으면 꺼꾸러지지 않는다. 이역시 청소하는것과 마찬가지이다. 비가 가지 않으면 먼지는 저절로 없어지지 않는 법이다.

《항일전쟁승리후의 시국과 우리의 방침》(1945년 8월 13일)

적은 저절로 소멸되지 않는다. 중국의 반동파나 중국에서의 미제의 침략세력이나를 막론하고 모두 력사무대에서 저절로 물러나지 않을것이다.

《혁명을 끝까지 진행하자》(1948년 12월 30일)

혁명은 손님대접도 아니며 글짓기도 아니며 그림그리기나 수놓이도 아니므로 그렇

게 우아하게, 그렇게 찬찬하고 점잖게, 그렇게 온화하고 겸손하게 될수는 없다. 혁명은 폭동이며 이 계급이 저 계급을 전복하는 폭력적행동이다.

《호남성농민운동시찰보고》(1927년 3월)

장개석은 인민들에게서 조그마한 권리라도 빼앗아내며 조그마한 리익이라도 앗아간다. 우리는 어떠한가? 우리의 방침은 날카롭게 대항하며 한치의 땅이라도 꼭 다투는것이다. 우리는 장개석의 방법대로 한다. 장개석은 언제나 인민에게 전쟁을 강요하려한다. 그는 왼손에도 칼을 들었고 오른손에도 칼을 들었다. 우리도 그의 방법대로 칼을 들어야 한다. ……지금 장개석이 칼을 갈고있으니 우리도 칼을 갈아야 한다.

《항일전쟁승리후의 시국과 우리의 방침》(1945년 8월 13일)

누가 우리의 적이며 누가 우리의 벗인가? 이 문제는 혁명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문제이다. 지난날 중국의 모든 혁명투쟁이 성과가 매우 적었던 그 기본원인은 진정한 벗을 단합하여 진짜적을 공격하지 못한데 있다. 혁명적당은 대중의 향도자이다. 혁명에 있어서 혁명적당이 길을 잘못 인도하였을 때 그 혁명이 실패하지 않은적은 없다. 우리의 혁명에 있어서 길을 잘못 인도하지 않고 반드시 성공할 자신을 가지기 위하여서는 우리의 진정한 벗을 단합하여 우리의 진짜적을 공격하는데 주의를 돌리지 않으면 안된다. 진짜적과 진정한 벗을 분별하자면 중국사회 각 계급의 경제적지위와 혁명에 대한 그들의 태도를 개략적으로나마 분석하지 않으면 안된다.

《중국사회 각 계급의 분석》(1926년 3월)

제국주의와 결탁한 일체 군벌, 관료, 매판계급, 대지주계급 및 그들에게 예속된 일부 반동적인 지식계층은 우리의 적이다. 공업프로레타리아트는 우리 혁명의 령도적 력량이다. 일체 반프로레타리아트와 소부르죠아지는 우리의 가장 가까운 벗이다. 동요하고있는 중부르죠아지는 그 우익은 우리의 적으로 될것이고 그 좌익은 우리의 벗으로 될것이다—그러나 그들이 우리의 진영을 교란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항상 경계하여야 한다.

《중국사회 각 계급의 분석》(1926년 3월)

혁명적인민의 편에 서있는 사람은 혁명파이고 제국주의, 봉건주의, 관료자본주의의 편에 서있는자는 반혁명파이다. 말로만 혁명적인민의 편에 서있고 행동을 달리하는 사람은 구두혁명파이고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상에서도 혁명적인민의 편에 서있는 사람은 완전한 혁명파이다.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 제1기 제2차회의에서 한 페회사 (1950년 6월 23일)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우리를 놓고 말하면 어떤 사람이나 어떤 정당이나 어떤 군

대나 또는 어떤 학교나 만일 적에게 반대를 받지 않는다면 그것은 좋지 못한 일이다. 그것은 틀림없이 적과 한물에 젖어있다는것을 의미하는것이다. 만일 적에게 반대를 받는다면 그것은 좋은 일이다. 그것은 우리가 적과 계선을 똑똑히 갈랐다는것을 실증하는것이다. 만일 적이 우리를 한사코 반대하면서 우리를 망태기라고 하며 옳은 점이라고는 하나도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더욱 좋은 일이다. 그것은 우리가 적과 계선을 똑똑히 갈랐다는것을 실증할뿐만아니라 우리의 사업이 큰 성과를 올렸다는것을 실증하는것이다.

《적에게 반대를 받는것은 나쁜 일이 아니라 좋은 일이다》(1939년 5월 26일)

적이 반대하는것이면 우리는 지지하여야 하고 적이 지지하는것이면 우리는 반대하여야 한다.

《중앙사, 소탕보, 신민보의 세 기자와의 담화》(1939년 9월 16일)

우리는 프로레타리아트와 인민대중의 립장에 서있다. 공산당원에 대하여 말한다면 이것은 당적립장에 서야 하며 당성 및 당정책의 립장에 서야 한다는것을 의미한다.

《연안문예좌담회에서 한 연설》(1942년 5월)

총을 든 적이 소멸된후에도 총을 들지 않은 적이 의연히 존재하며 그들은 필연적으로 우리와 결사적인 투쟁을 할것이다. 우리는 결코 이러한 적을 경시하여서는 안된다. 만일 지금 문제를 이렇게 제기하고 인식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매우 큰 오유를 범할것이다.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제7기제 2차전원회의에서 한 보고》(1949년 3월 5일)

제국주의자들과 국내반동들은 절대로 저들의 실패를 달가와하지 않는다. 그들은 최후발악을 할것이다. 전국이 평정된후에도

그들은 갖은 방식으로 파괴하고 교란하면서 매일 매시각마다 중국에서의 재생을 시도할것이다. 이것은 필연적인것이며 조금도 의심할바 없는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자기의 경각성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제1기전원
회의에서 한 개회사 (1949년 9월
21일)

우리 나라에 있어서 사회주의적개조는 소유제면에서 말하면 기본적으로 완성되였으며 혁명시기의 폭풍우와 같은 대규모적인 대중적계급투쟁은 기본적으로 끝났지만 전복당한 지주, 매판계급의 잔재가 아직 존재하며 부르죠아지가 아직 존재하며 소부르죠아지의 개조도 금방 시작되였을뿐이다. 계급투쟁은 끝나지 않았다. 프로레타리아트와 부르죠아지간의 계급투쟁, 각파 정치세력간의 계급투쟁, 이데올로기령역에서의 프로레타리아트와 부르죠아지간의 계급투쟁은 장

기적이고 굴곡적이며 때로는 지어 매우 치렬하다. 프로레타리아트는 자기의 세계관에 따라 세계를 개조하려 하며 부르죠아지도 자기의 세계관에 따라 세계를 개조하려 한다. 이 면에서 사회주의와 자본주의간의 《누가 누구를》 하는 문제는 아직 진정한 해결을 보지 못하고있다.

《인민내부의 모순을 정확히 처리
할 문제에 관하여》 (1957년 2월
27일)

우리 나라에 있어서 이데올로기령역에서의 사회주의와 자본주의간의 《누가 누구를》 하는 투쟁은 아직도 상당히 긴 시일이 걸려야 해결될수 있다. 이것은 부르죠아지와 낡은 사회출신의 지식인의 영향력이 우리 나라에 장기간 존재하며 계급적이데올로기로서 우리 나라에 장기간 존재할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세에 대하여 인식이 부족하거나 전혀 인식하지 못한다면 매우 큰 오유를 범하게 되며 필요한 사상투쟁을 홀

시하게 될것이다.

《인민내부의 모순을 정확히 처리할 문제에 관하여》(1957년 2월 27일)

우리 나라에 있어서 부르죠아 및 소부르죠아 사상, 반맑스주의적사상은 아직 장기간 존재할것이다. 사회주의제도는 우리 나라에서 이미 기본적으로 확립되였다. 우리는 생산수단소유제의 개조면에서는 기본적인 승리를 달성하였으나 정치, 사상 전선면에서는 아직 완전한 승리를 달성하지 못하였다. 이데올로기령역에서의 프로레타리아트와 부르죠아지간의 《누가 누구를》하는 문제는 아직 진정한 해결을 보지 못하고있다. 우리는 계속 부르죠아 및 소부르죠아 사상을 반대하여 장기간 투쟁을 전개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정을 모르고 사상투쟁을 포기한다면 그것은 잘못이다. 일체 그릇된 사상, 독초, 잡귀들에 대하여서는 절대 그것들이 제멋대로 범람하게 내버려둘것이 아니라 모조리 비판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은

조포하게, 관료주의적으로 또는 형이상학적으로, 교조주의적으로 할것이 아니라 충분히 사리를 밝히고 분석을 가하면서 설복력있게 하여야 한다.

《중국공산당 전국선전사업회의에서 한 연설》(1957년 3월 12일)

교조주의와 수정주의는 모두 맑스주의에 배치되는것이다. 맑스주의는 반드시 발전할것이며 실천의 발전에 따라 발전할것이다. 그것은 제자리에 머물러있을수 없다. 머물러있어 언제나 그 모양 그대로라면 그것은 생활력이 없어진다. 그러나 맑스주의의 기본원칙을 어기여서는 안되며 어기면 오유를 범하게 된다. 형이상학적관점으로 맑스주의를 고찰하며 그것을 경화된것으로 간주하는것은 교조주의이다. 맑스주의의 기본원칙을 부정하고 맑스주의의 보편적진리를 부정하는것은 수정주의이다. 수정주의는 일종의 부르죠아사상이다. 수정주의자는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차이, 프로레타리아독재

와 부르죠아독재의 차이를 말살한다. 그들이 주장하는것은 실제에 있어서 사회주의로선이 아니라 자본주의로선이다. 현조건하에서 수정주의는 교조주의보다 더 해독적인것이다. 사상전선에 있어서의 우리의 당면한 중요한 과업은 수정주의에 대한 비판을 전개하는것이다.

《중국공산당 전국선전사업회의에서 한 연설》(1957년 3월 12일)

수정주의 또는 우경기회주의는 일종의 부르죠아사조로서 교조주의보다 더 큰 위험성을 가지고있다. 수정주의자, 우경기회주의자도 입으로는 맑스주의를 외우며 역시 《교조주의》를 공격한다. 그러나 그들이 공격하는것은 바로 맑스주의의 가장 근본적인것이다. 그들은 유물론과 변증법을 반대하거나 외곡하며 인민민주주의독재와 공산당의 령도를 반대하거나 약화시키려 하며 사회주의적개조와 사회주의건설을 반대하거나 약화시키려 한다.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혁

명이 기본적으로 승리한뒤에도 사회에는 여전히 자본주의제도의 재생을 꿈꾸는 일부 사람들이 있는바 그들은 사상령역도 포함한 모든 령역에서 로동계급을 반대하여 투쟁을 진행할것이다. 그런데 이 투쟁에서 수정주의자들은 그들의 가장 좋은 조수로 된다.

《인민내부의 모순을 정확히 처리할 문제에 관하여》(1957년 2월 27일)

3.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공산주의는 프로레타리아트의 완전한 사상체계인 동시에 또 새로운 사회제도이다. 이러한 사상체계와 사회제도는 다른 어떠한 사상체계와 다른 어떠한 사회제도와도 구별되는것이며, 인류력사가 시작된이래 가장 완벽하고 가장 진보적이고 가장 혁명적이고 가장 합리적인것이다. 봉건주의의 사상체계와 사회제도는 이미 력사박물관에 들어간 물건이다. 자본주의의 사상체계와 사회제도도 그 일부분은 이미 박물관에 들어갔으며(쏘련에서) 그 나머지 부분도 이미 《서산에 지는 해처럼 숨져가고 인명이 위독하여 아침에 저녁일을 알바 없다.》는 격이여서 멀지 않아 박물관에 들어가게 될것이다. 오직 공산주의사상체계와 사회제도만은 하늘땅을 뒤엎을듯한 줄기찬 기세로 온 세상에 뻗치면서 그 아름다운 청춘을 자랑하고있다.

《신민주주의론》(1940년 1월)

사회주의제도는 결국 자본주의제도를 대체할것이다. 이것은 인간의 의사에 의하여 좌우되지 않는 객관적법칙이다. 반동들이 제 아무리 전진하는 력사의 수레바퀴를 가로막으려 한다 하더라도 혁명은 조만간에 일어날것이며 반드시 승리하고야 말것이다.

《위대한 사회주의10월혁명 40주년 기념 쏘련최고쏘베트경축회의에서 한 연설》(1957년 11월 6일)

우리 공산당원들은 언제나 자기의 정치적주장을 숨기지 않는다. 우리의 장래의 강령 또는 최고강령은 중국을 사회주의사회와 공산주의사회에로 추진시키는것인바 이것은 확정적인것이며 조금도 의심할바 없는것이다. 우리 당의 명칭과 우리의 맑스주의적세계관이 이 장래의 무한히 광명하고 무한히 아름다운 최고리상을 명백히 제시하고있다.

《련합정부에 대하여》(1945년 4월 24일)

중국공산당이 령도하는 중국혁명운동은 그 전체로 보아 민주주의혁명과 사회주의혁명의 두 단계를 포함한 혁명운동이다. 그것은 성격이 다른 두개의 혁명행정인바 오직 전자의 혁명행정을 완수하여야만 후자의 혁명행정을 완수할수 있다. 민주주의혁명은 사회주의혁명의 필요한 준비이며 사회주의혁명은 민주주의혁명의 필연적추세이다. 모든 공산주의자들의 최종목적은 전력을 다하여 사회주의사회와 공산주의사회를 종국적으로 실현하는데 있다.

《중국혁명과 중국공산당》(1939년 12월)

사회주의혁명의 목적은 생산력을 해방시키는데 있다. 농업과 수공업이 개인소유로부터 사회주의적집단소유로 넘어가고 개인공상업이 자본주의적소유로부터 사회주의적소유로 넘어가게 되면 필연적으로 생산력이 크게 해방될것이다. 이렇게 되면 공업 및 농업 생산의 급속한 발전을 위한 사회적조

건이 창조될것이다.

최고국무회의에서 한 연설(1956년 1월 25일)

현재 우리는 사회제도면에서 사적소유로부터 사회적소유로 이행하는 혁명을 수행하고있을뿐만아니라 기술적면에서도 수공업적생산으로부터 기계에 의한 대규모적인 현대적생산으로 이행하는 혁명을 수행하고있는데 이 두 혁명은 한데 결합되여있다. 농업분야에서 우리 나라의 조건하에서는(자본주의국가에서는 농업을 자본주의화한다.) 먼저 협동화가 된후에라야만 대형기계를 도입할수 있다. 그렇기때문에 우리는 공업과 농업, 사회주의적공업화와 농업에 대한 사회주의적개조의 이 두가지를 절대 떼여놓고 보거나 서로 고립시켜보아서는 안되며 또 절대 하나만 강조하고 다른 하나를 약화시켜서는 안된다.

《농업협동화문제에 관하여》(1955년 7월 31일)

새로운 사회제도는 방금 수립되였을뿐이며 아직 그것을 공고화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 새로운 제도가 일단 수립되면 그것으로 완전히 공고화되였다고 생각하여서는 안된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점차적으로 공고화하여야 한다. 그것을 종국적으로 공고화하기 위하여서는 나라의 사회주의적공업화를 실현하고 경제전선에서의 사회주의혁명을 견지하지 않으면 안되며 또한 정치, 사상 전선에서 일상적이고도 어려운 사회주의혁명투쟁과 사회주의교양사업을 전개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밖에도 거기에는 또한 여러가지 국제적조건들이 따르지 않으면 안된다.

《중국공산당 전국선전사업회의에서 한 연설》(1957년 3월 12일)

우리 나라에 있어서 사회주의제도를 공고화하기 위한 투쟁, 사회주의와 자본주의간의 《누가 누구를》 하는 투쟁은 아직도 오랜 력사적시기를 요한다. 그러나 우리는 이 새로운 사회주의제도가 반드시 공고화되리라는것을 알아야 한다. 우리는 현대적공업과 현대적농업과 현대적과학문화를 가진 사회주의국가를 반드시 건설할것이다.

《중국공산당 전국선전사업회의에서 한 연설》(1957년 3월 12일)

우리 나라에 대하여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있는 지식인들은 극소수이다. 이러한 자들은 우리의 이 프로레타리아독재의 국가를 싫어하며 구사회에 미련을 두고있다. 그들은 기회만 있으면 소동을 일으켜 공산당을 전복하고 구중국을 재생시키려 할것이다. 이것은 프로레타리아로선과 부르죠아로선중에서, 사회주의로선과 자본주의로선중에서 완고하게 후자의 로선을 걸으려고 하는자들이다. 이 후자의 로선은 사실상 실현될수 없는것이다. 그렇기때문에 그들은 사실상 제국주의와 봉건주의와 관료자본주의에 투항하려고 하는자들인것이다. 이러한자들은 정치계, 공상업계, 문화교육계,

과학기술계, 종교계 등 그 어디에나 다 있다. 그들은 극히 반동적인자들이다.

《중국공산당 전국선전사업회의에서 한 연설》(1957년 3월 12일)

중대한 문제는 농민을 교양하는것이다. 농민의 경제는 분산적이다. 쏘련의 경험에 의한다면 오랜 시일을 들이고 또 세심한 사업을 하여야만 농업의 사회화를 실현할수 있다. 농업의 사회화가 없이는 완전하고 공고한 사회주의가 있을수 없다.

《인민민주주의독재에 대하여》(1949년 6월 30일)

우리는 (1) 광범한 농민들이 당의 령도하에서 점차 사회주의길로 나아가려고 한다는것, (2) 당은 농민들을 사회주의길로 령도할수 있다는것을 확신하여야 한다. 이 두가지는 사물의 본질이며 주류이다.

《농업협동화문제에 관하여》(1955년 7월 31일)

합작사의 지도기관들은 현재의 빈농과 새로운 하중농의 지도기관에서의 우세를 확립하고 원래의 하중농과 새로운 상중농과 원래의 상중농들을 보조적력량으로 삼아야 한다. 그래야만 당의 정책대로 빈농과 중농의 단결을 실현하며 합작사를 공고화하며 생산을 발전시키며 전체 농촌의 사회주의적 개조를 옳게 완성할수 있다. 이 조건이 없이는 중농과 빈농이 단결될수 없으며 합작사가 공고화될수 없으며 생산이 발전될수 없으며 전체 농촌의 사회주의적개조가 실현될수 없다.

《장사현 고산향 무당농업생산합작사는 어떻게 중농의 우세로부터 빈농의 우세로 전환되였는가》에 대한 평어 (1955년)

중농과는 반드시 단결하여야 하며 중농과 단결하지 않는것은 잘못이다. 그런데 로동계급과 공산당은 농촌에서 누구에 의거하여 중농과 단결하며 전체 농촌에서의 사회주의적개조를 실현할것인가? 두말할것없이 오직 빈농에 의거하여야 한다. 지주와 투쟁

하며 토지개혁을 실시하던 지난 시기에도 그러했거니와 부농 및 기타 자본주의적요소와 투쟁하면서 농업에 대한 사회주의적개조를 실시하는 현시기에도 그러하다. 이 두 혁명시기에 중농은 첫단계에서는 동요한다. 그들은 대세를 보아 혁명이 승리하게 되였을 때에야 혁명측에 가담한다. 빈농은 중농에 대한 사업을 잘하여 중농을 자기측에로 단결함으로써 최후승리의 그날까지 혁명을 하루하루 확대하여야 한다.

《복안현에 〈중농합작사〉와 〈빈농합작사〉가 나타난 교훈》에 대한 평어 (1955년)

부유한 농민들에게는 자본주의적경향이 엄중하다. 협동화운동행정에서, 나아가서는 그후의 매우 오랜 기간에 있어서 우리가 농민에 대한 정치사업을 조금이라도 늦추기만 하면 자본주의적경향이 범람할것이다.

《자본주의적경향을 반대하여 결정적으로 투쟁하여야 한다》에 대한 평어 (1955년)

농업협동화운동은 그 시초부터 준엄한 사상적 및 정치적 투쟁으로 되고있다. 어느 합작사나 이러한 투쟁을 거치지 않고서는 조직될수 없다. 새로운 사회제도가 낡은 제도의 터전우에 세워지자면 이 터전을 깨끗이 정리하지 않으면 안된다. 낡은 제도를 반영하는 낡은 사상의 잔재는 사람들의 머리속에 오래 남아있으면서 좀처럼 물러가려하지 않는다. 합작사는 조직된후에도 많은 투쟁을 거쳐야 공고화될수 있다. 공고화된 후에도 손을 늦추면 또 무너질수 있다.

《엄중한 교훈》에 대한 평어 (1955년)

최근년간 농촌에서는 자본주의적자연발생적세력이 날로 자라나 새로운 부농이 도처에 나타나고있으며 많은 부유중농들이 부농으로 되려고 애쓰고있다. 한편 많은 빈농들은 생산수단의 부족으로 하여 여전히 가난한 처지에 있는바 어떤 사람들은 빚을 지고 어떤 사람들은 땅을 팔거나 땅을 임대

하고있다. 이러한 사태를 그대로 내버려둔다면 농촌에서 량극분화현상이 필연적으로 나날이 더 심화될것이다. 땅을 잃은 농민들과 여전히 가난한 처지에 있는 농민들은 자기들의 곤난을 해결하여주지 않고 죽든말든 내버려둔다고 우리를 원망하게 될것이다. 또 자본주의방향으로 발전하고있는 부유중농들도 우리에게 불만을 품을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본주의길로 나아가려 하지 않는이상 이런 농민들의 요구는 도저히 충족시켜줄수 없기때문이다. 이러한 형편에서 로동자와 농민의 동맹이 계속 공고화될수 있겠는가? 될수 없다는것은 명백하다. 이 문제는 새로운 기초우에서만 해결될수 있다. 그것은 즉 사회주의적공업화를 점차적으로 실현하며 수공업과 자본주의적공상업에 대한 사회주의적개조를 점차적으로 실현하는 동시에 농업전반에 걸쳐 사회주의적개조, 즉 협동화를 점차적으로 실현하여 농촌에서 부농경리제도와 개인경리제도를 폐절하고 전체 농촌인민을 다같이 부유하게

만드는것이다. 오직 이렇게 함으로써만 로동자와 농민의 동맹이 공고화될수 있다고 우리는 인정한다.

《농업협동화문제에 관하여》(1955년 7월 31일)

……통일적구상, 전반적고려란 6억 인구에 대하여 통일적으로 구상하고 전반적으로 고려한다는것을 가리킨다. 우리는 계획을 세우거나 일을 처리하거나 문제를 생각함에 있어서 항상 우리 나라에 6억 인구가 있다는 이 점으로부터 출발하여야 하며 절대 이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인민내부의 모순을 정확히 처리할 문제에 관하여》(1957년 2월 27일)

당의 령도를 제외하고는 6억 인구가 결정적인 요인이다. 사람이 많으면 의론이 많고 열의가 높고 기세가 드높다. 인민대중이 오늘처럼 정신이 분발되고 투지가 앙양되고

의기가 충천하여본적은 종래로 없었다.

《한 합작사를 소개한다》(1958년 4월 15일)

다른 특징을 제한외에 중국 6억 인구의 현저한 특징은 경제적으로 빈궁하고 문화적으로 백지와 같은것이다. 이것은 나쁜일 같이 보이나 실상은 좋은 일이다. 궁하면 변혁을 생각하게 되여 투쟁을 하려 하며 혁명을 하려 한다. 백지는 아무런 부담도 없어 가장 새롭고 가장 아름다운 글자를 쓸수있으며 가장 새롭고 가장 아름다운 그림을 그릴수 있다.

《한 합작사를 소개한다》(1958년 4월 15일)

중국혁명이 전국적으로 승리하고 또 토지문제를 해결한이후에도 중국에는 두가지 기본모순이 의연히 존재하게 된다. 첫째는 국내적모순, 즉 로동계급과 부르죠아지와의 모순이다. 둘째는 대외적모순, 즉 중국과 제국주의국가와의 모순이다. 그렇기때문에 인민민주주의혁명이 승리한이후에 있어서도

로동계급이 령도하는 인민공화국의 국가정권은 약화시켜서는 안되며 반드시 강화하여야 한다.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제7기제 2차전원회의에서 한 보고》(1949년 3월 5일)

《당신들은 국가권력을 소멸하려 하지 않는가?》 우리는 그렇게 하려 한다. 그러나 아직은 그렇게 하려 하지 않으며 또 그렇게 할수도 없다. 왜 그런가? 그것은 제국주의가 아직 존재하며 국내에 아직 반동들이 존재하며 계급이 존재하기때문이다. 우리의 당면한 과업은 인민의 국가기구—이것은 주로 인민의 군대, 인민의 경찰, 인민의 법정을 가리킨다—를 강화하여 국방력을 강화하고 인민의 리익을 수호하는것이다.

《인민민주주의독재에 대하여》(1949년 6월 30일)

우리의 국가는 로동계급이 령도하는, 로농동맹에 기초한 인민민주주의독재의 국가

이다. 이 독재는 무엇을 하는것인가? 독재의 첫째 기능은 국내의 반동계급과 반동들 그리고 사회주의혁명에 항거하는 착취자를 억압하는것이며 사회주의건설을 파괴하는자들을 억압하는것이다. 이것은 즉 국내의 적아간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것이다. 이를테면 일부의 반혁명분자들을 체포하고 그들을 형벌에 처하며 지주계급분자와 관료부르죠아분자에게 일정한 기간 선거권을 주지 않으며 그들에게 언론자유의 권리를 주지 않는것은 모두 독재의 범위에 속한다.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광범한 인민의 리익을 수호하기 위하여 절도범, 사기범, 살인방화범, 불량배들 그리고 사회질서를 엄중히 파괴하는 온갖 악질분자에 대하여서도 독재를 실시하여야 한다. 독재에는 또 둘째 기능이 있는데 그것은 국가외부로부터 오는 적들의 전복활동과 있을수 있는 침략을 방어하는것이다. 이런 사태가 나타났을 때 독재는 대외적으로 적아간의 모순을 해결할 임무를 담당하게 된다. 독재의 목적은 전체 인민의 평화적로동을 보장하며 우리 나라를 현대적공업, 현대적농업, 현대적과학문화를 가진 사회주의국가로 건설하는데 있다.

《인민내부의 모순을 정확히 처리할 문제에 관하여》(1957년 2월 27일)

인민민주주의독재는 로동계급의 령도를 필요로 한다. 그것은 오직 로동계급만이 가장 통찰력이 있고 공명정대하며 혁명의 철저성이 가장 풍부하기때문이다. 로동계급의 령도가 없으면 혁명이 실패하고 로동계급의 령도가 있으면 혁명이 승리한다는것은 혁명력사전반이 실증하고있다.

《인민민주주의독재에 대하여》(1949년 6월 30일)

인민민주주의독재의 기초는 로동계급과 농민계급 및 도시소부르죠아지의 동맹이며 주로는 로동자와 농민의 동맹이다. 그것은 이 두 계급이 중국인구의 80～90%를 차지하고있기때문이다. 제국주의와 국민당반동파를 타도한것은 주로 이 두 계급의 력량이

다. 신민주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 이르는데도 주로 이 두 계급의 동맹에 의거한다.

《인민민주주의독재에 대하여》
(1949년 6월 30일)

계급투쟁, 생산투쟁 및 과학실험은 강대한 사회주의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세가지 위대한 혁명운동이다. 그것은 공산주의자들로 하여금 관료주의를 퇴치하고 수정주의와 교조주의를 미연에 방지하며 언제나 불패의 지위에 서게 하는 튼튼한 담보이며 프로레타리아트로 하여금 광범한 근로대중과 단합하여 민주주의독재를 실시할수 있게 하는 믿음직한 담보이다. 만일 이러한 혁명운동이 없다면 지주분자, 부농분자, 반혁명분자, 악질분자 및 온갖 잡귀들이 다 기여나오게 될것이며 그래도 우리의 간부들은 이에 무관심하거나 지어는 많은 사람들이 적아를 가르지 않고 서로 결탁하며 적에게 부식침습당하고 분화와해되며 적들이 끌어내가고 뚫고 들어오게 될것이며 많은 로동자, 농민과 지식인들도 적에게 유인당하고

협박당하여 같은 식으로 될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얼마 가지 않아서, 짧으면 몇년 혹은 10여년후에, 길면 몇10년후에 불가피적으로 전국적범위에서 반혁명적재생이 출현될것이며 맑스-레닌주의당이 틀림없이 수정주의적당으로, 파쑈적당으로 변할것이며 온 중국이 변색하게 될것이다.

《흐루쑈브의 가짜공산주의와 그 세계사적교훈에 관하여》에서 (1964년 7월 14일)

인민민주주의독재에는 두가지 방법이 있다. 적에 대하여서는 독재의 방법을 쓴다. 즉 필요한 기간 그들을 정치활동에 참가시키지 않고 그들을 인민정부의 법률에 복종하도록 강박하며 로동에 종사하도록 강박하는 동시에 로동과정에서 새 인간으로 개조하는것이다. 인민에 대하여서는 이와 반대로 강제적인 방법을 쓰지 않고 민주주의적방법을 쓴다. 즉 그들을 정치활동에 참가시키며 그들을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강박하는것이 아니라 민주주의적방법

으로 교양하고 설복한다.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
제1기제2차회의에서 한 폐회사
(1950년 6월 23일)

중국의 사회주의위업을 더욱 튼튼한 기초우에서 급속히 발전시키기 위하여 중국인민은 공산당의 령도밑에 생기발랄한 정풍운동을 진행하고있다. 즉 도시와 농촌에서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두갈래 길, 국가의 근본제도와 중대한 정책, 당과 정부 일군들의 사업작풍, 인민의 생활복리 등 문제들에 대하여 사실을 들어 리치를 따지는 방법으로 전인민적인 대변론을 령도있게 자유로이 전개하여 인민내부에 실지로 존재하며 또한 지금 해결하여야 할 여러가지 모순들을 정확히 해결하고있다. 이것은 인민이 자기를 교양하고 자기를 개조하는 사회주의적운동이다.

《위대한 사회주의10월혁명 40주년
기념 쏘련최고쏘베트경축회의에
서 한 연설》(1957년 11월 6일)

위대한 건설사업은 우리앞에 아주 어렵고 복잡한 과업들을 내세우고있다. 우리에게는 1,000여만의 당원이 있지만 그것은 전국인구의 극소수를 차지할뿐이다. 우리의 국가기관들과 제반 사회사업에 있어서 많은 일들은 당외의 일군들에 의거하여야 한다. 만일 우리가 인민대중에 잘 의거하지 않고 당외의 일군들과 잘 협력하지 않는다면 사업을 잘할수 없다. 우리는 전당의 단결을 계속 강화하면서 또한 제 민족, 제 민주주의계급, 제 민주주의정당, 제 사회단체들과의 단결을 계속 강화하고 우리의 인민민주주의통일전선을 계속 강화확대하여야 하며 어떠한 사업고리에서나 당과 인민과의 단결을 방해하는 온갖 옳지 못한 현상들을 철저히 바로잡아야 한다.

《중국공산당 제8차전국대표대회에
서 한 개회사》(1956년 9월 15일)

4. 인민내부의 모순을 정확히 처리하자

우리앞에는 두가지 사회모순이 있는데 그것은 적아간의 모순과 인민내부의 모순이다. 이것은 질적으로 판이한 두가지 모순이다.

《인민내부의 모순을 정확히 처리할 문제에 관하여》(1957년 2월 27일)

적아간의 모순과 인민내부의 모순이란 이 두가지 각이한 모순을 옳게 인식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인민이란 무엇이며 적이란 무엇인가를 똑똑히 밝혀야 한다. ……현단계, 즉 사회주의건설시기에 있어서는 사회주의건설위업을 찬동지지하며 이에 참가하는 모든 계급, 계층과 사회집단은 모두 인민의 범위에 속하고 사회주의혁명에

항거하며 사회주의건설을 적대시하고 파괴하는 모든 사회세력과 사회집단은 모두 인민의 적이다.

《인민내부의 모순을 정확히 처리할 문제에 관하여》(1957년 2월 27일)

우리 나라의 현조건하에서 이른바 인민내부의 모순에는 로동계급내부의 모순, 농민계급내부의 모순, 지식인내부의 모순, 로동계급과 농민계급간의 모순, 로동자, 농민과 지식인간의 모순, 로동계급 및 기타 근로인민과 민족부르죠아지간의 모순, 민족부르죠아지내부의 모순 등등이 망라된다. 우리의 인민정부는 진정으로 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는 정부이며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정부이지만 인민정부와 인민대중간에도 일정한 모순이 있다. 이 모순에는 국가의 리익, 집단의 리익과 개인의 리익간의 모순; 민주주의와 중앙집권간의 모순, 령도와 피령도간의 모순, 국가기관내 일부 일군들의 관료주의적작풍과 대중간의 모순이 망라된

다. 이러한 모순도 역시 인민내부의 모순이다. 일반적으로 인민내부의 모순이란 인민의 리익이 근본적으로 일치된 기초우에서의 모순이다.

《인민내부의 모순을 정확히 처리할 문제에 관하여》(1957년 2월 27일)

적아간의 모순은 적대적모순이다. 인민내부의 모순은 근로인민간에 있어서는 비적대적이며 피착취계급과 착취계급간에 있어서는 적대적측면이 있는외에 비적대적측면도 있다.

《인민내부의 모순을 정확히 처리할 문제에 관하여》(1957년 2월 27일)

우리 나라 인민의 정치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언론과 행동의 옳고 그름을 어떻게 판단할것인가? 우리는 우리 나라 헌법의 원칙에 근거하여, 우리 나라 최대다수인민의 의사와 우리 나라 제 정당이 여러번 선포한 공통한 정치적주장에 근거하여 그 기준을

대체로 다음과 같이 규정할수 있다고 인정한다. (1) 전국의 각 민족인민을 분렬시키는것이 아니라 그들을 단결시키는데 유리한것, (2) 사회주의적개조와 사회주의건설에 불리한것이 아니라 사회주의적개조와 사회주의건설에 유리한것, (3) 인민민주주의독재를 파괴 또는 약화시키는것이 아니라 이 독재를 공고화하는데 유리한것, (4) 민주주의중앙집권제를 파괴 또는 약화시키는것이 아니라 이 제도를 공고화하는데 유리한것, (5) 공산당의 령도를 리탈 또는 약화시키는것이 아니라 이 령도를 공고화하는데 유리한것, (6) 사회주의의 국제적단결과 전세계평화애호인민의 국제적단결에 손실을 주는것이 아니라 이 단결에 유리한것이다. 이상의 여섯가지 기준가운데서 가장 중요한것은 사회주의길과 당의 령도에 관한 두가지 기준이다.

《인민내부의 모순을 정확히 처리할 문제에 관하여》(1957년 2월 27일)

반혁명분자숙청문제는 적아모순의 투쟁문제이다. 인민내부에서도 일부 사람들은 반혁명분자숙청문제에 대하여 다소 다른 견해를 가지고있다. 두 종류의 사람들의 의견이 우리의 의견과 다르다. 우경사상이 있는 사람들은 적아를 가르지 않고 적을 자기편으로 여긴다. 광범한 군중들이 적으로 보는 사람을 그들은 도리여 벗으로 여긴다. 《좌》경사상이 있는 사람들은 적아모순을 확대하여 일부 인민내부의 모순마저 적아모순으로 간주하면서 원래 반혁명이 아닌 일부 사람들까지도 반혁명으로 간주한다. 이 두 가지 견해는 모두 그릇된것으로서 이런 견해로서는 반혁명분자숙청문제를 정확히 처리할수도 없거니와 우리의 반혁명분자숙청사업을 옳게 평가할수도 없다.

《인민내부의 모순을 정확히 처리할 문제에 관하여》(1957년 2월 27일)

질적으로 다른 모순은 질적으로 다른 방법으로써만 해결할수 있다. 례컨대 프로

레타리아트와 부르죠아지와의 모순은 사회주의혁명의 방법으로 해결하며, 인민대중과 봉건제도와의 모순은 민주주의 혁명의 방법으로 해결하며, 식민지와 제국주의와의 모순은 민족혁명전쟁의 방법으로 해결하며, 사회주의사회에서의 로동계급과 농민계급과의 모순은 농업집단화와 농업기계화의 방법으로 해결하며, 공산당내부의 모순은 비판과 자기비판의 방법으로 해결하며, 사회와 자연과의 모순은 생산력을 발전시키는 방법으로 해결한다. ……서로 다른 모순은 서로 다른 방법으로 해결한다는 이것은 맑스-레닌주의자들이 엄격히 지켜야 할 원칙이다.

《모순론》(1937년 8월)

적아간의 모순과 인민내부의 모순은 성격이 같지 않으며 따라서 그 해결방법도 같지 않다. 간단히 말하면 전자는 적아를 똑똑히 가르는 문제이고 후자는 시비를 똑똑히 가르는 문제이다. 물론 적아문제도 일

종의 시비문제이다. 이를테면 제국주의, 봉건주의, 관료자본주의 등 이런 내외반동들과 우리사이에서 도대체 누가 옳고 누가 그른가 하는것도 시비문제이지만 이것은 인민내부의 문제와는 성격이 같지 않은 다른 종류의 시비문제이다.

《인민내부의 모순을 정확히 처리할 문제에 관하여》(1957년 2월 27일)

일체 사상적성격을 띤 문제들, 인민내부의 론쟁에 속하는 문제들은 오직 민주주의적인 방법으로, 오직 토론의 방법, 비판의 방법, 설복과 교양의 방법으로 해결할수 있을뿐 강제적, 강압적 방법으로써는 해결할수 없다.

《인민내부의 모순을 정확히 처리할 문제에 관하여》(1957년 2월 27일)

인민은 생산과 학습을 성과적으로 진행하며 생활을 질서있게 하기 위하여 자기의 정부, 생산부문의 지도일군, 문화교육기관

의 지도일군들에게 강제성을 띤 각종 적절한 행정명령을 내릴것을 요구한다. 이런 행정명령이 없이는 사회질서를 유지할수 없다는것은 사람들에게 상식적으로 알려지고 있는것이다. 이것과 설복, 교양의 방법으로 인민내부의 모순을 해결하는것은 서로 의존하고 서로 보충하고 서로 촉진하는 두 측면이다. 사회질서를 유지할 목적으로 내린 행정명령에도 설복과 교양이 따라가야 하며 단순히 행정명령에만 의거하여서는 많은 경우에 그 목적을 달성할수 없다.

《인민내부의 모순을 정확히 처리할 문제에 관하여》(1957년 2월 27일)

부르죠아지와 소부르죠아지는 반드시 자기들의 사상의식을 반영할것이며 정치적문제와 사상적문제에서 각종 방법으로 자기자신을 완강히 표현할것이다. 그들로 하여금 반영하지 못하게 하거나 표현하지 못하게 하기는 불가능한것이다. 우리는 강압적인 방법으로 그들을 표현하지 못하게 할것이

아니라 표현하게 하여야 하며 동시에 그들이 표현하였을 때에 그들과 변론하며 적절한 비판을 가하여야 한다. 조금도 의심할바 없이 우리는 각양각색의 그릇된 사상을 비판하여야 한다. 그릇된 사상이 도처에 범람하는것을 보기만 하고 비판하지 않으며 그것들이 지반을 확대하도록 내버려두어서는 물론 안된다. 오유가 있으면 비판하여야 하고 독초가 있으면 투쟁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은 교조주의적이여서는 안된다. 그것은 형이상학적방법을 사용할것이 아니라 극력 변증법적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과학적인 분석이 있어야 하며 충분한 설복력이 있어야 한다.

《인민내부의 모순을 정확히 처리할 문제에 관하여》(1957년 2월 27일)

인민의 결함에 대하여 비판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진정 인민의 립장에 서서 인민을 보호하며 인민을 교양하는 뜨거운 마음으로 말하지 않으면 안된다. 만일 동지를 원쑤로 대한다면 그것은 자기를 원쑤의 립장에 서게 하는것이다.

《연안문예좌담회에서 한 연설》(1942년 5월)

모순과 투쟁은 보편적이고 절대적이지만 모순을 해결하는 방법 즉 투쟁의 형태는 모순의 성격이 다름에 따라 다르다. 어떤 모순은 공개적인 적대적성격을 띠고있으며 어떤 모순은 그렇지 않다. 사물의 구체적발전에 의하여 어떤 모순은 본래 비적대적이던것이 적대적인것으로 발전하며 또 어떤 모순은 본래 적대적이던것이 비적대적인것으로 발전한다.

《모순론》(1937년 8월)

일반적정형하에서 인민내부의 모순은 적대적인것이 아니다. 그러나 만일 처리가 부당하거나 경각성을 잃고 소홀히 한다면 적대적인것으로 될수도 있다. 사회주의국가에 있어서는 이러한 일은 보통 국부적이며 일시적인 현상에 지나지 않는다. 이것은 사

회주의국가에서는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가 소멸되였고 인민의 리익이 근본적으로 일치하기때문이다.

《인민내부의 모순을 정확히 처리할 문제에 관하여》(1957년 2월 27일)

우리 나라에 있어서 로동계급과 민족부르죠아지간의 모순은 인민내부의 모순에 속한다. 로동계급과 민족부르죠아지간의 계급투쟁은 일반적으로 인민내부의 계급투쟁에 속한다. 이것은 우리 나라의 민족부르죠아지에게 량면성이 있기때문이다. 부르죠아민주주의혁명시기에는 그들에게 혁명적인 일면이 있은 한편 타협적인 일면도 있었다. 사회주의혁명시기에는 그들에게 로동계급을 착취하여 리윤을 얻는 일면이 있는 한편 헌법을 옹호하며 사회주의적개조를 접수하려는 일면도 있다. 민족부르죠아지는 제국주의, 지주계급, 관료부르죠아지와는 다르다. 로동계급과 민족부르죠아지간에는 착취와 피착취와의 모순이 존재하고있는데 이것은 원래 적대적모순이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구체적인 조건하에서 이 두 계급의 적대적모순은 적절하게 처리한다면 비적대적모순으로 전화될수 있으며 평화적방법으로 해결될수 있다. 만약 우리가 그것을 적절하게 처리하지 못하고 민족부르죠아지에 대하여 단결, 비판, 교양의 정책을 취하지 않거나 민족부르죠아지가 우리의 이 정책을 접수하지 않는다면 로동계급과 민족부르죠아지간의 모순은 적아간의 모순으로 전화될수 있다.

《인민내부의 모순을 정확히 처리할 문제에 관하여》(1957년 2월 27일)

사회주의국가내부의 반동들은 제국주의자들과 결탁하고 인민내부의 모순을 리용하여 리간을 붙이며 소동을 일으켜 자기들의 음모를 실현하려 시도하였던것이다. 웽그리아사변의 이러한 교훈에 대하여 우리는 주의를 돌려야 한다.

《인민내부의 모순을 정확히 처리할 문제에 관하여》(1957년 2월 27일)

5. 전쟁과 평화

전쟁—이것은 사유재산과 계급이 생기면서부터 시작된것이며 계급과 계급, 민족과 민족, 국가와 국가, 정치적집단과 정치적집단간의 일정한 발전단계에서의 모순을 해결하는 최고의 투쟁형태이다.

《중국혁명전쟁의 전략문제》(1936년 12월)

《전쟁은 정치의 연장이다.》 이 점에서 말할 때 전쟁은 곧 정치이며 전쟁 그 자체가 정치적성격을 띤 행동이다. 자고로 정치적성격을 띠지 않는 전쟁이란 없다. ……

그러나 전쟁은 그 자체의 특수성을 가지고있다. 이 점에서 말할 때 전쟁은 일반적정치와는 같지 않다. 《전쟁은 다른 수단에 의한 정치의 연장이다.》 정치가 일정한 단계에까지 발전하여 더는 종전대로 나아갈 수 없게 되면 정치의 길우에 가로놓인 장애물을 쓸어버리기 위하여 전쟁이 폭발된다. ……장애물이 제거되고 정치적목적이 달성되면 전쟁이 종결된다. 장애물이 깨끗이 제거되지 않는한 이 목적의 관철을 위하여 전쟁을 계속 진행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므로 정치는 비류혈적인 전쟁이며 전쟁은 류혈적인 정치라고 말할수 있다.

《지구전에 대하여》(1938년 5월)

력사상의 전쟁은 두 종류로 구분되는바 하나는 정의의 전쟁이고 하나는 부정의의 전쟁이다. 진보적인 모든 전쟁은 정의의 전쟁이고 진보를 저애하는 모든 전쟁은 부정의의 전쟁이다. 우리 공산주의자들은 진보를 저애하는 모든 부정의의 전쟁을 반대하나 진보적인 정의의 전쟁은 반대하지 않는다. 후자에 속하는 전쟁에 대하여 우리 공산주의자들은 그것을 반대하지 않을뿐만아니라 거기에 적극적으로 참가한다. 전자에 속하는 전쟁, 례를들면 제1차세계대전은 쌍방이

다 제국주의의 리익을 위하여 싸운것이기때문에 전세계의 공산주의자들은 그 전쟁을 단호히 반대하였던것이다. 반대하는 방법은 전쟁이 폭발하기전에는 전력을 다하여 그 폭발을 저지하며 폭발한후에는 가능성을 다하여 전쟁으로써 전쟁을 반대하며 정의의 전쟁으로써 부정의의 전쟁을 반대하는것이다.

《지구전에 대하여》(1938년 5월)

계급사회에서 혁명과 혁명전쟁은 불가피하며 그것 없이는 사회발전의 비약을 이룰수 없으며 반동적지배계급을 뒤엎고 인민이 정권을 획득하게 할수 없다.

《모순론》(1937년 8월)

혁명전쟁은 일종의 항독소로서 적의 독염을 배제할뿐만아니라 자기의 오물도 씻어낼것이다. 정의적이고 혁명적인 모든 전쟁은 그 힘이 매우 크다. 그것은 많은 사물을 개조하거나 또는 사물의 개조를 위한 길을 열어줄수 있다. 중일전쟁은 중일 두 나라를 개조할것이다. 중국이 항전을 견지하고 통일전선을 견지하기만 하면 기필코 낡은 일본을 새 일본으로 만들수 있고 낡은 중국을 새 중국으로 만들수 있으며 중일 두 나라의 사람과 사물은 이번 전쟁행정에서와 전쟁후에 모두 개조될것이다.

《지구전에 대하여》(1938년 5월)

매개 공산당원들은 《총에서 정권이 나온다》는 이 진리를 알아야 한다.

《전쟁과 전략문제》(1938년 11월 6일)

혁명의 중심과업과 그 최고형태는 무력으로 정권을 탈취하는것이며 전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것이다. 이 맑스-레닌주의적혁명원칙은 보편적으로 옳은것이며 중국에서나 외국에서나 다 옳은것이다.

《전쟁과 전략문제》(1938년 11월 6일)

중국에서 무장투쟁을 떠나서는 프로레타리아트의 지위가 있을수 없으며 인민의 지위가 있을수 없으며 공산당의 지위가 있을수 없

으며 혁명의 승리가 있을수 없다. 지난 18년동안 우리 당의 발전공고화 및 볼쉐위크화는 혁명전쟁행정에서 이루어진것으로서 무장투쟁이 없었다면 오늘과 같은 공산당이 있을수 없다. 피로써 바꾸어온 이 경험을 전체 당원동지들은 잊지 말아야 한다.

《〈공산당인〉발간사》(1939년 10월 4일)

국가에 관한 맑스주의학설의 견지에서 보면 군대는 국가정권의 주되는 구성요소이다. 국가정권을 탈취하고 또 그것을 유지하려면 강력한 군대가 있어야 한다. 어떤 사람은 우리를 《전쟁만능론자》라고 비웃고있다. 그렇다, 우리는 혁명전쟁만능론자이다. 이것은 나쁜것이 아니라 좋은것이며 맑스주의적인것이다. 로씨야공산당의 총은 사회주의를 만들어내였다. 우리는 민주주의공화국을 만들것이다. 제국주의시대의 계급투쟁의 경험은 로동계급과 근로대중은 오직 총의 힘으로써만 무장한 부르죠아지와 지주를 타승할수 있다는것을 말하여주고있다. 이 의

미에서 우리는 전세계도 총에 의하여서만 개조될수 있다고 말할수 있다.

《전쟁과 전략문제》(1938년 11월 6일)

우리는 전쟁소멸론자이다. 우리는 전쟁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전쟁은 전쟁으로써만 소멸할수 있으며 총을 필요로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총을 들어야 한다.

《전쟁과 전략문제》(1938년 11월 6일)

전쟁—인류가 서로 살륙하는 이 괴물을 인류사회의 발전은 결국 소멸하고야 말것이며 또한 멀지 않은 장래에 소멸하고야 말것이다. 그러나 전쟁을 소멸하는 방법은 오직 하나뿐이다. 그것은 전쟁으로써 전쟁을 반대하며 혁명전쟁으로써 반혁명전쟁을 반대하며 민족혁명전쟁으로써 민족반혁명전쟁을 반대하며 계급적혁명전쟁으로써 계급적반혁명전쟁을 반대하는것이다. ……인류사회가 진보하여 계급이 소멸되고 국가가

소멸되면 그때에 가서는 아무런 전쟁도 없을것이다. 반혁명전쟁도 없을것이고 혁명전쟁도 없을것이며 부정의의 전쟁도 없을것이고 정의의 전쟁도 없을것이다. 그때가 바로 인류의 항구한 평화의 시대이다. 혁명전쟁의 법칙을 연구함에 있어서 우리는 모든 전쟁을 소멸하려는 우리의 지향으로부터 출발하고있다. 이것은 우리 공산주의자와 모든 착취계급을 구별하는 분계선이다.

《중국혁명전쟁의 전략문제》(1936년 12월)

우리 나라와 모든 사회주의나라들은 평화를 요구하며 세계 모든 나라 인민들도 모두 평화를 요구한다. 전쟁을 열망하고 평화를 반대하는것은 오직 침략에 매여달려 돈벌이를 하는 소수 제국주의국가내 독점자본집단들뿐이다.

《중국공산당 제8차전국대표대회에서 한 개회사》(1956년 9월 15일)

항구한 세계평화를 위하여 우리는 사

회주의진영내의 모든 형제나라들과의 친선협조를 가일층 발전시켜야 하며 또한 모든 평화애호국가들과의 단결을 강화하여야 한다. 우리는 우리와 평화적으로 지낼 용의를 가지고있는 모든 나라들과 령토주권의 호상존중 및 평등호혜의 기초우에서 정상적인 외교관계를 설정하기에 힘써야 한다. 우리는 아세아, 아프리카와 라틴아메리카 제 국가의 민족독립해방운동 및 세계 모든 나라들의 평화운동과 정의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여야 한다.

《중국공산당 제8차전국대표대회에서 한 개회사》(1956년 9월 15일)

제국주의국가에 대하여 말하면 우리는 역시 그 나라 인민들과 단결하여야 하며 또 그 나라들과의 평화적공존을 쟁취하며 장사를 하며 일어날수 있는 전쟁을 제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들에 대하여 결코 비현실적인 생각을 가져서는 안된다.

《인민내부의 모순을 정확히 처리할 문제에 관하여》(1957년 2월 27일)

우리는 평화를 희망한다. 그러나 만일 제국주의자들이 기어이 싸우려 한다면 우리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싸운 다음에 건설하는수밖에 없다. 매일 전쟁을 두려워한들 전쟁이 일어나면 무슨 수가 있는가? 우에서 나는 동풍이 서풍을 압도하고있으니 전쟁이 일어날수 없다고 말하였는데 이제 또 전쟁이 일어날 경우에 대하여 이렇게 보충설명을 가한다. 이러면 두가지 가능성이 다 고려된 것으로 된다.

각국 공산당 및 로동당 대표들의 모스크바회의에서 한 연설(1957년 11월 18일)

지금 세계각국의 사람들은 제3차세계대전이 일어나겠는가 일어나지 않겠는가 하는 문제를 론의하고있다. 이 문제에 대하여도 우리는 정신적준비가 있어야 하며 분석이 있어야 한다. 우리는 평화를 견지하고 전쟁을 반대한다. 그러나 제국주의가 기어코 전쟁을 도발한다 하여도 우리는 두려워할 것 없다. 이 문제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일체 《소동》을 대하는 태도와 마찬가지로 첫째로는 반대하며 둘째로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다. 제1차세계대전후에 2억 인구를 가진 쏘련이 나타났으며 제2차세계대전후에는 9억 인구를 가진 사회주의진영이 나타났다. 만약 제국주의자들이 기어코 제3차세계대전을 일으킨다면 그 결과는 필연적으로 또 수억 인구가 사회주의편으로 넘어오게 되고 제국주의의 지반은 얼마 남지 않게 될 것이며 지어 제국주의제도전체가 몽땅 붕괴될 가능성도 있다고 단언할수 있다.

《인민내부의 모순을 정확히 처리할 문제에 관하여》(1957년 2월 27일)

교란, 실패, 또 교란, 또 실패, 결국에는 멸망—이것이 곧 인민의 위업에 대항하는 제국주의와 세계 모든 반동들의 론리이다. 그들은 결코 이 론리를 위반하지 않을것이다. 이것은 맑스주의의 하나의 철칙이다. 우리가 《제국주의는 아주 흉악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의 본성이 개변될수 없다는것,

제국주의자는 그들이 멸망할 때까지 결코 백정의 칼을 놓으려 하지 않을것이고 결코 부처로 될수도 없다는것을 말하는것이다.

투쟁, 실패, 또 투쟁, 또 실패, 또 투쟁, 결국에는 승리—이것이 곧 인민의 론리이다. 인민들은 결코 이 론리를 위반하지 않을것이다. 이것은 맑스주의의 또하나의 철칙이다. 로씨야인민의 혁명은 이 철칙에 의거하였으며 중국인민의 혁명도 이 철칙에 의거하고있다.

《환상을 버리고 투쟁을 준비하자》
(1949년 8월 14일)

우리는 승리하였다고 하여 제국주의자들과 그 주구들의 발광적인 보복책동에 대하여 경각성을 늦추어서는 절대 안된다. 누가 만일 이 경각성을 늦춘다면 그는 정치적으로 무장을 해제당하여 피동적지위에 처하게 될것이다.

《신정치협상회의준비회에서 한 연설》(1949년 6월 15일)

제국주의자들과 그 주구인 중국반동파는 중국이라는 이 땅덩어리에서 자기들이 당한 실패를 달가와하지 않는다. 그들은 계속 서로 결탁하여 온갖 가능한 방법을 다하여 중국인민을 반대할것이다. 례컨대 자기들의 주구를 중국내부에 잠입시켜 분렬활동과 교란활동을 감행할것이다. 이것은 필연적인것이다. 그들은 절대 이 일을 잊지 않을것이다. 또 례컨대 중국의 반동파를 사촉하거나 지어는 그들자신의 력량까지 합쳐서 중국의 해항을 봉쇄할것이다. 아직 그럴 가능성만 있으면 그들은 그렇게 할것이다. 그리고 또 가령 그들이 모험을 하려고 한다면 일부분의 병력을 파견하여 중국의 국경을 침범하고 교란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 모든것에 대하여 우리는 충분히 예견하지 않으면 안된다.

《신정치협상회의준비회에서 한 연설》(1949년 6월 15일)

세계는 진보하고있으며 전도는 광명하다. 력사의 이 총적추세는 그 누구도 개변

시키지 못한다. 우리는 세계의 진보하는 정형과 광명한 전도를 항상 인민들에게 선전함으로써 그들이 승리의 신념을 가지도록 하여야 한다.

《중경담판에 관하여》(1945년 10월 17일)

인민해방군의 전체 지휘원과 전투원들은 자기의 전투의지를 조금이라도 해이해서는 절대 안된다. 전투의지를 해이하는 사상이나 적을 경시하는 사상은 모두 그릇된것이다.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제7기제2차전원회의에서 한 보고》(1949년 3월 5일)

6. 제국주의와 일체 반동들은 모두 종이범이다

일체 반동들은 모두 종이범이다. 반동들은 보기에는 무서운것 같지만 실상은 그리 대단한 힘이 없다. 전망적인 견지에서 문제를 본다면 진정으로 강대한 힘은 반동들에게 있는것이 아니라 인민에게 있다.

《미국기자 안나 루이스 스트롱과의 담화》(1946년 8월)

세상의 일체 사물이 모두다 이중성을 띠고있는것(즉 대립면의 통일의 법칙)과 마찬가지로 제국주의와 일체 반동들도 이중성을 띠고있다. 그것들은 진짜범이기도 하고 또 종이범이기도 하다. 력사적으로 보면 노예주계급, 봉건지주계급 및 부르죠아지는 통치권을 잡기전과 통치권을 잡은후의 한

시기에 있어서는 생기발랄하였으며 혁명자였으며 선구자였으며 진짜범이였다. 그후의 한 시기에 있어서는 그들의 대립면인 노예계급, 농민계급 및 프로레타리아트가 점차 장성하고 강대해졌으며 그들을 반대하여 갈수록 더 치렬하게 투쟁하였기때문에 그들은 점차 반면에로 전화되여 반동으로, 락후한 인간들로, 종이범으로 되였으며 결국 인민에게 전복되고 말았거나 전복되고 말것이다. 반동적이고 락후하고 부패한 계급들은 인민의 결사적인 투쟁에 직면하였을 때에도 의연히 이러한 이중성을 띠고있었다. 한편으로 그들은 진짜범으로서 사람을 잡아먹었으며 수백만, 수천만씩 잡아먹었다. 인민의 투쟁위업은 고난의 시대에 처하게 되였으며 굴곡이 많은 길들이 나타나게 되였다. 중국인민은 중국에서의 제국주의, 봉건주의 및 관료자본주의의 통치를 소멸하기 위하여 100여년의 시일을 들이고 무려 수천만명의 희생을 내고서야 1949년의 승리를 달성하였다. 보라, 그들이 산 범, 무쇠범, 진짜범이 아니였는가?

그러나 그들은 결국 종이범, 죽은 범, 두부범으로 전화되고 말았다. 이것은 력사적사실이다. 그래 이러한 사실을 본적이 없고 들은적이 없단 말인가? 그것은 수천수만에, 실로 수천수만에 달한다! 그러므로 본질적으로 보아, 장기적견지에서 보아, 전략적으로 보아 반드시 사실 그대로 제국주의와 일체 반동들을 죄다 종이범으로 간주하여야 한다. 이 점으로부터 우리의 전략사상이 수립된다. 다른 한편으로 그것들은 또 산 범, 무쇠범, 진짜범으로서 사람을 잡아먹는다. 이 점으로부터 우리의 전술사상이 수립된다.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무창회의에서 한 연설 (1958년 12월 1일)

소위 강대하다고 하는 일체 반동들은 죄다 종이범에 지나지 않는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것은 그들이 인민들로부터 리탈되여있기때문이다. 보라, 히틀러가 종이범이 아니였는가? 히틀러가 타도되지 않았는가?

나는 짜리도 종이범이며 중국의 황제도 종이범이며 일본제국주의도 종이범이라고 하였는데 보다싶이 모두 타도되고 말았다. 미제국주의는 꺼꾸러지지 않고있으며 원자탄을 가지고있지만 내가 보기에는 마찬가지로 꺼꾸러질것이며 역시 종이범이다.

각국 공산당 및 로동당 대표들의 모스크바회의에서 한 연설 (1957년 11월 18일)

《돌을 들어 제 발등을 깐다.》는 말은 중국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의 행동을 형용하는데 쓰는 속담이다. 모든 나라의 반동들도 바로 이러한 어리석은자들이다. 혁명적인민에 대한 이자들의 갖은 박해는 결국 인민들의 더욱 광범하고 더욱 치렬한 혁명을 촉진시킬따름이다. 그래 혁명적인민에 대한 짜리와 장개석의 갖은 박해가 위대한 로씨야혁명과 위대한 중국혁명에 대하여 그러한 촉진적역할을 놀지 않았단 말인가?

《위대한 사회주의10월혁명 40주년 기념 쏘련최고쏘베트경축회의에서 한 연설》(1957년 11월 6일)

미제국주의는 9년동안이나 우리 나라 령토 대만을 강점하고있으며 얼마전에는 또 무장부대를 파견하여 레바논을 강점하였다. 미국은 전세계의 수많은 나라들에 수백개의 군사기지를 세웠다. 중국의 령토 대만과 그리고 레바논 및 외국에 있는 미국의 모든 군사기지들은 모두 미제국주의의 목에 걸어놓은 올가미이다. 이러한 올가미는 다름아닌 미국사람자신이 만들었으며 또한 그것을 제 목에 걸고 그 줄을 중국인민과 아랍 제국가인민 그리고 평화를 사랑하고 침략을 반대하는 전세계 모든 인민들에게 쥐여준것이다. 미국침략자들이 이런 지역들에 오래 머물러있으면 있을수록 그들의 목에 걸린 올가미는 더욱더 죄여들것이다.

최고국무회의에서 한 연설 (1958년 9월 8일)

제국주의자들의 수명은 그리 길지 않을것이다. 그것은 그들이 전문적으로 각국의 반인민적반동들을 부식하며 수많은 식민지,

반식민지 및 군사기지들을 강점하며 원자전쟁으로써 평화를 위협하는 등 갖은 나쁜짓을 다하고있기때문이다. 그들이 이렇게 함에 따라 전세계 90%이상의 사람들은 그들을 반격하기위하여 궐기하고있으며 또는 궐기할것이다. 그러나 제국주의자들은 지금 여전히 목숨이 붙어있으며 의연히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에서 갖은 만행을 다하고있다. 그들은 서방세계에서도 여전히 자국의 인민대중을 억압하고있다. 이러한 사태는 반드시 개변되여야 한다. 제국주의, 주로는 미제국주의의 침략과 억압을 종식시키는것은 전세계 인민들의 임무이다.

신화통신사 기자와의 담화 (1958년 9월 29일)

미제국주의는 도처에서 갖은 만행을 다함으로써 자기자신을 전세계 인민들의 원쑤의 처지에 처하게 하고있으며 더욱더 고립시키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의 수중에 있는 원자탄이나 수소탄은 노예살이를 원치 않는 모든 사람들을 놀래울수 없다. 미국침략자들을 반대하여 싸우는 전세계 인민들의 노도는 막을수 없다. 미제국주의와 그 주구들을 반대하는 전세계 인민들의 투쟁은 반드시 더욱 위대한 승리를 달성할것이다.

《빠나마인민의 정의의 반미애국투쟁을 지지하여 발표한 담화》 (1964년 1월 12일)

미국독점자본집단은 만일 자기의 침략정책과 전쟁정책을 계속 실시한다면 반드시 전세계 인민들에 의하여 교수대에 오르고야 말 날이 있을것이다. 그밖의 미국의 공범자들도 역시 그렇게 될것이다.

최고국무회의에서 한 연설 (1958년 9월 8일)

원쑤들과 싸우기 위하여 우리는 장기간에 걸쳐 하나의 개념을 형성하였다. 그것은 즉 전략상에서는 모든 적을 멸시하여야 하며 전술상에서는 모든 적을 중시하여야 한다는것이다. 다시말하면 전체에 있어서는 반드시 적을 멸시하여야 하며 개개의 구체적 문제에서는 반드시 그것들을 중시하여야 한

다는것이다. 만약 전체에 있어서 적을 멸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기회주의적오유를 범하게 될것이다. 맑스와 엥겔스는 단 둘이였지만 당시에 벌써 전세계에서 자본주의가 전복될것이라고 단언하였다. 그러나 구체적인 문제, 개개의 적들을 대하는 문제에서는 그것들을 중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모험주의적오유를 범하게 될것이다. 싸움은 한차례 한차례씩 진행하여야만 하고 적은 한부분 한부분씩 소멸하여야만 한다. 공장은 하나하나씩 세워야만 하고 밭은 한뙈기 한뙈기씩 갈아야만 한다. 밥을 먹는것도 역시 그러하다. 우리는 전략상에 있어서는 이 밥을 다 먹을수 있다고 멸시한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먹을 때에는 한술 한술씩 먹어야 하지 한상의 음식을 한입에 들이삼킬수는 없는것이다. 이것을 각개해결이라고 하는데 군사서적에서는 각개격파라고 한다.

각국 공산당 및 로동당 대표들의 모스크바회의에서 한 연설 (1957년 11월 18일)

나는 국제정세가 지금 새로운 전환점에 이르렀다고 인정한다. 세계에는 지금 동풍과 서풍의 두줄기 바람이 있다. 중국에는 《동풍이 서풍을 압도하지 않으면 서풍이 동풍을 압도한다.》는 성구가 있다. 현정세는 동풍이 서풍을 압도하고있는것, 다시말하면 사회주의력량이 제국주의세력에 대하여 압도적우세를 차지하고있는것으로 특징지어지고있다고 나는 인정한다.

각국 공산당 및 로동당 대표들의 모스크바회의에서 한 연설 (1957년 11월 18일)

7. 과감히 투쟁하며 과감히 승리하자

전세계 인민들은 단결하여 미국침략자들과 그의 모든 주구들을 타승하자! 전세계 인민들은 용감성을 발휘하여 과감하게 투쟁하여야 하며 난관을 두려워하지 말고 뒤에 뒤를 이어 계속 전진하여야 한다. 그렇게 할 때 전세계는 반드시 인민의것으로 될것이며 온갖 마귀들은 모조리 소멸될것이다.

《미국의 침략을 반대하는 콩고(레)인민을 지지하는 성명》(1964년 11월 28일)

중국공산당은 맑스-레닌주의과학에 립각하여 국제국내의 정세를 명석하게 판단함으로써 일체 국내외반동들의 진공을 격파하여야 할뿐만아니라 능히 격파할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였다. 하늘에 검은 구름이 드

리웠을 때 우리는 이것은 일시적현상에 불과하며 암흑은 곧 사라지고 이제 곧 서광이 비칠것이라고 지적하였다.

《현정세와 우리의 과업》(1947년 12월 25일)

인류력사에서 멸망하는 반동세력은 언제나 혁명력량에 대하여 단말마적발악을 하는것이다. 그런데 일부 혁명적인 사람들도 흔히 겉은 강해보이나 속이 텅 비여있는 이러한 현상들에 한동안 미혹되여 적이 멀지 않아 소멸되고 자기가 멀지 않아 승리하게 될 그 본질을 보아내지 못한다.

《제2차세계대전의 전환점》(1942년 10월 12일)

만약 그들이 싸우려든다면 그들을 철저히 소멸할것이다. 사정은 바로 이러하다. 즉 그들이 진공해오는것을 우리가 소멸해버리면 그들은 시원해한다. 좀 소멸하면 좀 시원해하고 많이 소멸하면 많이 시원해하

고 철저히 소멸하면 철저히 시원해할것이다. 중국의 문제는 복잡한만큼 우리의 머리도 좀 복잡해져야 한다. 그들이 쳐들어오면 우리는 싸울것이며 싸우는것은 평화를 쟁취하기 위한것이다.

《중경담판에 관하여》(1945년 10월 17일)

쳐들어오는자가 있을 때에는 그것이 치기 좋기만 하면 우리 당은 반드시 자위적인 립장에 서서 그를 견결히, 철저히, 깨끗이, 모조리 소멸할것이다. (경솔히 싸우지 말아야 하며 싸우면 꼭 승리하여야 한다.) 절대로 반동들의 사나운 기세에 겁을 먹지 말아야 한다.

《국민당과의 평화담판에 관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의 통지》(1945년 8월 26일)

우리자신의 념원으로 말하면 우리는 단 하루도 싸우고싶지 않다. 그러나 정세가 우리로 하여금 싸우지 않을수 없게 한다면 우리는 끝까지 싸워나갈것이다.

《미국기자 안나 루이스 스트롱과의 담화》(1946년 8월)

우리는 평화를 요구한다. 그러나 미제가 그의 흉악무도한 요구와 침략을 확대하려는 책동을 버리지 않는한 중국인민은 조선인민과 함께 끝까지 싸울 결심을 내릴밖에 없다. 이것은 우리가 호전적이기때문이 아니다. 우리는 남은 문제는 장차 해결하고 즉시 정전할 용의를 가지고있다. 그러나 미제는 이렇게 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면 좋다, 어디 싸워보자, 몇해이건 미제가 계속 싸우려 한다면 우리도 미제가 손을 떼려고 할 때까지, 중조인민이 완전히 승리할 그날까지 그와 싸워나갈 용의가 있다.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 제1기제4차회의에서 한 연설 (1953년 2월 7일)

우리는 자기 내부에서 연약무능한 모든 사상을 일소하여야 한다. 적의 력량을 과대

평가하고 인민의 력량을 과소평가하는 관점은 모두다 그릇된것이다.

《현정세와 우리의 과업》(1947년 12월 25일)

피압박인민과 피압박민족은 제국주의와 그 주구들의《현명성》에 의탁하여 자신의 해방을 얻으려 하여서는 절대 안된다. 오직 단결을 강화하고 투쟁을 견지하여야만 승리를 달성할수 있다.

《남부웰남인민들에 대한 미국-느고 딘 디엠도당의 침략 및 학살을 반대하는 성명》(1963년 8월 29일)

전국적인 내전이 언제 폭발되든지간에 우리는 항상 준비되여있어야 한다. 좀 일러서 래일 아침에 곧 싸운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준비되여있다. 이것이 첫째이다. 현국제국내정세는 내전을 잠시 국부적인 범위에 국한시킬 가능성이 있으며 내전은 잠시 약간의 지방적인 전쟁으로 될것이다.

이것이 둘째이다. 첫째것에 대하여 말하면 우리는 준비되여있으며, 둘째것에 대하여 말하면 그것은 벌써 그렇게 되여있다. 총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준비가 되여있어야 한다. 준비가 되여있으면 각종 복잡한 사태에 적절하게 대처할수 있다.

《항일전쟁승리후의 시국과 우리의 방침》(1945년 8월 13일)

8. 인민전쟁

혁명전쟁은 대중의 전쟁으로서 오직 대중을 동원함으로써만 전쟁을 진행할수 있고 오직 대중에 의거함으로써만 전쟁을 진행할수 있다.

《대중의 생활에 관심을 돌리며 사업방법에 주의를 돌리자》(1934년 1월 27일)

진짜 금성철벽은 무엇인가? 그것은 대중이며 성심성의로 혁명을 지지하는 천백만 대중이다. 이것은 어떠한 힘으로도 격파할수 없는, 절대로 격파할수 없는 진짜 금성철벽이다. 반혁명은 우리를 격파할수 없으나 우리는 반혁명을 격파할것이다. 혁명정부의 주위에 천백만 대중을 결속시켜 우리의 혁명전쟁을 발전시킨다면 우리는 일체 반혁명을 소멸할수 있으며 전중국을 탈취할

수 있다.

《대중의 생활에 관심을 돌리며 사업방법에 주의를 돌리자》(1934년 1월 27일)

전쟁위력의 가장 깊은 근원은 민중속에 있다. 일본이 우리를 감히 업신여기게 되는 그 주되는 원인은 중국민중의 무조직상태에 있다. 우리가 이 결함을 극복한다면 일본침략자들은 일떠선 우리의 수억만 인민앞에서 마치 불바다에 뛰여든 들소처럼 우리가 소리만 한번 질러도 깜짝 놀라게 될것이며 불속에서 타죽고 말것이다.

《지구전에 대하여》(1938년 5월)

제국주의자들이 이처럼 우리를 업신여기고있으니 이에 단단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강대한 정규군을 가지고있어야 할뿐만아니라 민병사단도 대대적으로 조직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면 제국주의가 우리 나라를 침략할 때에 그들을 촌보도 움직이지 못하게

할수 있다.

신화통신사 기자와의 담화 (1958년 9월 29일)

전반 혁명전쟁의 견지에서 본다면 인민의 유격전쟁과 주력홍군은 두팔과 같은 관계를 이루고있다. 주력홍군만 있고 인민의 유격전쟁이 없다면 그것은 외팔장군과 마찬가지로 된다. 근거지의 인민이란 이 조건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특히 작전에 대하여 말하면 그것은 무장한 인민인것이다. 적이 근거지로 들어오기 무서워하는것도 주로 이때문이다.

《중국혁명전쟁의 전략문제》(1936년 12월)

전쟁의 승부가 주로 작전쌍방의 군사, 정치, 경제, 자연 등 제 조건에 의하여 결정된다는것은 더 말할것도 없다. 그러나 그뿐만이 아니라 또한 작전쌍방의 주관적지도능력에 의하여서도 결정된다. 군사가는 물질적조건이 허락하는 범위를 벗어나서 전쟁의 승리를 시도할수는 없으나 물질적조건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는 전쟁의 승리를 쟁취할수 있으며 또한 쟁취하여야 한다. 군사가의 활동무대는 객관적인 물질적조건우에 설치되여있지만 군사가는 이 무대우에서 다채롭고도 웅장한 수많은 극을 연출할수 있다.

《중국혁명전쟁의 전략문제》(1936년 12월)

전쟁의 목적은 다른것이 아니라 《자기를 보존하고 적을 소멸하는것》이다.(적을 소멸한다는것은 적의 육체를 완전히 소멸하는것이 아니라 그의 무장을 해제시키는것, 즉 소위 《적의 저항력을 박탈하는것》을 말한다.) 고대의 전쟁에서는 창과 방패를 썼다. 창은 진공하는것으로서 적을 소멸하기 위하여 사용되였으며 방패는 방어하는것으로서 자기를 보존하기 위하여 사용되였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무기는 여전히 이 량자의 연장이다. 폭격기, 기관총, 장거리포, 독가스 등은 창의 발전이며 방공엄폐부, 철갑모, 콩크리트방어시설, 방독면 등은 방패

의 발전이다. 땅크는 창과 방패를 하나로 결합시킨 신식무기이다. 진공은 적을 소멸하는 주요수단이다. 그러나 방어도 없어서는 안된다. 진공은 직접적으로 적을 소멸하기 위한것이며 동시에 자기를 보존하기 위한것이기도 하다. 왜냐 하면 적을 소멸하지 않는다면 자기가 소멸당할것이기때문이다. 방어는 직접적으로 자기를 보존하기 위한것이지만 또 진공을 보조하거나 진공에로 넘어갈 준비를 하는 수단이기도 하다. 퇴각은 방어류에 속하는것으로서 방어의 연장이고 추격은 진공의 연장이다. 여기에서 지적하여야 할것은 전쟁의 목적에 있어서 적을 소멸하는것이 주요한것이고 자기를 보존하는것은 2차적이라는것이다. 왜냐 하면 적을 대량적으로 소멸하여야만 자기를 효과적으로 보존할수 있기때문이다. 그러므로 적을 소멸하는 주요한 수단인 진공이 주요한것이고 적을 소멸하는 보조적수단이고 자기를 보존하는 한가지 수단인 방어는 2차적인것이다. 전쟁실제에 있어서는 비록 많은 시간은 방

어를 위주로 하고 그외의 시간에 진공을 위주로 하나 전쟁전반을 통하여본다면 어디까지나 진공이 주요한것이다.

《지구전에 대하여》(1938년 5월)

모든 군사행동의 지도적원칙은 될수 있는대로 자기의 력량을 보존하고 적의 력량을 소멸한다는 이 기본적원칙에 근거한다. …… 전쟁에서 용감한 희생을 제창하는것을 어떻게 해석할것인가? 어느 전쟁이나 다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게 되며 때로는 극히 큰 대가를 지불하게 된다. 그렇다면 이것은 《자기를 보존한다》는것과 모순되지 않는가? 사실은 조금도 모순되지 않는다. 좀더 정확히 말한다면 그것은 대립되는 동시에 통일되는것이다. 왜냐 하면 이러한 희생은 적을 소멸하기 위하여 필요할뿐만아니라 자기를 보존하기 위하여서도 필요하기때문이다—부분적으로, 일시적으로 《보존하지 않는것》(희생 또는 지불하는것)은 전체적으로, 영구적으로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것이다.

이 기본적인 원칙에서 전반적군사행동을 지도하는 일련의 원칙들이 생기게 되는바 사격원칙(몸을 은폐하는것, 화력을 발휘하는것—전자는 자기를 보존하기 위한것이고 후자는 적을 소멸하기 위한것이다.)으로부터 전략적원칙에 이르기까지 모두 이 기본원칙의 정신으로 관통되여있다. 모든 기술적, 전술적, 전역적, 전략적 원칙들은 모두 이 기본적원칙을 집행하는 때의 조건이다. 자기를 보존하고 적을 소멸하는 원칙은 모든 군사원칙의 근거이다.

《항일유격전쟁의 전략문제》(1938년 5월)

우리의 군사원칙은 다음과 같다. (1) 분산되고 고립된 적을 먼저 치고 집중되고 강대한 적을 후에 친다. (2) 소도시, 중도시 및 광활한 농촌을 먼저 탈취하고 대도시를 후에 탈취한다. (3) 적의 유생력량을 섬멸하는것을 주요목표로 하고 도시와 지방을 고수하거나 탈취하는것을 주요목표로 하지

않는다. 도시와 지방을 고수하거나 탈취하는것은 적의 유생력량을 섬멸한 결과로 달성되는것이며 흔히 여러차례 반복하여야만 이를 종국적으로 고수하거나 탈취할수 있다. (4) 매번 싸움에서 절대적으로 우세한 병력(적보다 2배, 3배, 4배 때로는 심지어 5배 혹은 6배나 되는 병력)을 집중하여 적을 사면포위함으로써 극력 전멸을 기하며 하나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한다. 특수한 정황하에서는 적에게 섬멸적타격을 주는 방법을 취하여, 즉 전력을 집중하여 적의 정면 및 그 일익 혹은 량익을 쳐서 그 일부를 섬멸하고 그 다른 일부를 격파하는 목적을 달성함으로써 아군이 병력을 신속히 이동시켜 적군의 다른 부대를 섬멸할수 있도록 한다. 얻는것이 잃는것보다 적거나 또는 얻는것과 잃는것이 상등한 소모전은 극력 피한다. 이렇게 하면 전체에 있어서는 우리가 렬세(수적으로)이지만 매개의 국부, 매개의 구체전역에 있어서는 우리가 절대적우세로 되여 전역의 승리가 보장된다. 시간의 흐름에 따

라 우리는 전체에 있어서도 우세로 전변되며 나중에는 모든 적을 섬멸하게 될것이다. (5) 준비없는 싸움은 하지 않고 자신없는 싸움은 하지 않는다. 싸움마다 극력 준비가 있도록 하며 적아조건의 대비하에서 승리할 자신이 있도록 하여야 한다. (6) 용감하게 싸우며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피로를 겁내지 않으며 련속작전을 하는(즉 단기간내에 쉬지 않고 연거퍼 몇차례 싸움을 하는) 작풍을 발양한다. (7) 극력 운동중에서 적을 섬멸하도록 한다. 동시에 진지공격전술을 중요시하여 적의 거점과 도시를 탈취한다. (8) 도시를 공략하는 문제에 있어서 적의 수비가 약한 모든 거점과 도시는 견결히 탈취한다. 적이 중등정도의 수비를 하고있고 또 환경이 탈취할것을 허락하는 모든 거점과 도시는 기회를 보아서 탈취한다. 적의 수비가 튼튼한 모든 거점과 도시는 조건이 성숙되는 때를 기다려 탈취한다. (9) 적에게서 로획한 전부의 무기와 포로한 대부분의 인원으로 자기를 보충한다. 아군의 인력과 물력의 원천은 주로 전선에 있다. (10) 두 전역사이의 틈을 잘 리용하여 부대를 휴식시키며 정비훈련한다. 휴식정비기간은 일반적으로 너무 길지 말아야 하며 될수 있는대로 적에게 숨돌릴 시간을 주지 말아야 한다. 상술한것들이 곧 인민해방군이 장개석을 격멸하는 주요한 방법이다. 이러한 방법들은 인민해방군이 국내외 적들과의 장기간에 걸친 전투의 시련속에서 얻어낸것으로서 우리의 지금의 정형에도 완전히 적합한것이다. ……우리의 전략전술은 인민전쟁이란 이 기초우에 수립되여있다. 그러므로 그 어떤 반인민적군대도 우리의 전략전술을 리용할수 없다.

《현정세와 우리의 과업》(1947년 12월 25일)

우세라 하여도 준비가 없다면 그것은 진정한 우세가 아니며 또 주동성도 없다. 이것을 안다면 렬세라 하여도 준비가 있는 군대는 흔히 적에게 불의의 공격을 가하여 우세한자를 패배시킬수 있다.

《지구전에 대하여》(1938년 5월)

9. 인민의 군대

인민의 군대가 없이는 인민에게 아무것도 있을수 없다.

《련합정부에 대하여》(1945년 4월 24일)

이 군대가 강력한 까닭은 이 군대에 참가한 모든 사람들이 자각적규률을 가지고 있으며 소수의 사람들이나 협애한 집단의 사리를 위하여서가 아니라 광범한 인민대중의 리익을 위하여, 전민족의 리익을 위하여 결합되였으며 싸우고있기때문이다. 중국인민과 한길에 튼튼히 서서 성심성의로 중국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것, 이것이 바로 이 군대의 유일한 목적이다.

《련합정부에 대하여》(1945년 4월 24일)

중국의 홍군은 혁명의 정치적과업을 수행하는 무력집단이다. 특히 지금에 있어서 홍군은 결코 단순히 싸우기만 하는 군대가 아니다. 홍군은 적의 군사력을 소멸하기 위한 전투를 하는외에 또 대중에게 선전하며 대중을 조직하며 대중을 무장시키며 대중을 도와 혁명정권을 수립하며 나아가서는 공산당의 조직을 건립하는 등 중대한 과업도 지니고있다. 홍군이 싸우는것은 단순히 싸우기 위하여 싸우는것이 아니라 대중에게 선전하며 대중을 조직하며 대중을 무장시키며 또 대중을 도와 혁명정권을 수립하기 위하여 싸우는것이다. 대중에 대한 선전, 조직, 무장 및 혁명정권수립 등의 목표를 떠나면 싸움이 무의미하게 되며 홍군의 존재자체도 무의미하게 된다.

《당내의 그릇된 사상을 시정할데 관하여》(1929년 12월)

인민해방군은 영원히 전투대이다. 전국적으로 승리한후이라 하더라도 국내에서 계

급이 소멸되지 않았고 세상에 제국주의제도가 존재하고있는 력사적시기내에 있어서 우리의 군대는 여전히 전투대이다. 이 점에 대하여서는 어떠한 오해나 동요도 있어서는 안된다.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제7기제 2차전원회의에서 한 보고》(1949년 3월 5일)

우리에게는 전쟁하는 군대가 있으며 또 로동하는 군대가 있다. 전쟁하는 군대로서 우리에게는 팔로군과 신사군이 있는데 이 군대는 또한 두가지로 사용되여 전투도 하고 생산도 한다. 우리에게 이 두 군대가 있고 또 우리의 군대가 이러한 두가지 기능을 가지고있는데다가 군중공작을 하는 기능까지 더 갖추게 된다면 우리는 곤난을 극복하고 일본제국주의를 타도할수 있다.

《조직하라》(1943년 11월 29일)

우리의 국방력은 강화되여 우리의 국토에 대한 그 어떤 제국주의자들의 재침도 허

용하지 않을것이다. 시련을 겪은 영웅적인민해방군을 토대로 하여 우리의 인민무장력은 반드시 보존되고 발전되여야 한다. 우리는 강대한 륙군뿐만아니라 강대한 공군과 강대한 해군도 가지게 될것이다.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제1기전원회의에서 한 개회사(1949년 9월 21일)

우리의 원칙은 당이 총을 지휘하는것이며 총이 당을 지휘하는것은 절대 용허하지 않는다.

《전쟁과 전략문제》(1938년 11월 6일)

우리 군대의 전체 장병들은 우리가 위대한 인민해방군이며 위대한 중국공산당에 의하여 지도되는 군대라는것을 항상 명심하여야 한다. 우리가 항상 당의 지시를 준수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것이다.

《중국인민해방군선언》(1947년 10월)

10. 당위원회의 령도

당위원회제도는 집체적령도를 보장하며 개인독단을 방지하는 당의 중요한 제도이다. 최근에 료해한바에 의하면 일부(물론 전부는 아니다.) 지도기관들에서는 개인이 독단하며 개인이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는 기풍이 아주 농후하다. 중요한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당위원회회의에서 결정을 짓는것이 아니라 개인이 결정을 짓고있어 당위원회 위원은 있으나마나 하다. 위원들간의 의견상이도 해결할 길이 없으며 또한 이러한 의견상이들을 장기간 해결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두고있다. 당위원회 위원들간에 유지되고있는것은 본질적인 일치가 아니라 형식적인 일치에 불과하다. 이러한 상태는 반드시 개변되여야 한다. 앞으로는 중앙국으로부터 지방위원회에 이르기까지, 전선위원회로부터 려단위원회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또 군구(군사위원회분회 혹은 령도소조), 정부의 당조, 민중단체의 당조, 통신사 및 신문사의 당조들에서는 반드시 건전한 당위원회회의제도를 확립하여야 하며 모든 중요한 문제(물론 그리 중요하지 않은 작은 문제거나 이미 회의에서 토의해결되여 집행하기만 하면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모두 위원회의 토의에 회부함으로써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이 의견을 충분히 발표하여 명확한 결정을 짓도록 하여야 하며 그런후에 각기 집행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또 상무위원회와 전원회의로 나누어야 하며 량자를 혼동하여서는 안된다. 이밖에 또 주의하여야 할것은 집체적령도와 개인책임제는 어느 하나도 홀시하여서는 안된다는것이다. 군대에서는 작전할 때와 정황에 따라 필요할 때에는 지휘원이 림기응변의 조치를 취할 권한을 가진다.

《당위원회제도를 건전히 할데 관하여》(1948년 9월 20일)

당위원회 서기는 《분대장》역할을 잘 담당해야 한다. 당위원회는 10～20명으로 구성되여 군대의 한개 분대와 흡사하며 서기는 《분대장》과 같다. 이 분대를 잘 거느린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다. 지금 각 중앙국과 분국은 모두가 다 매우 큰 지역을 령도하고있으며 대단히 무거운 과업을 지니고있다. 령도사업은 방침과 정책을 결정하여야 할뿐만아니라 옳바른 사업방법도 정하여야 한다. 옳은 방침과 정책이 있다 하더라도 사업방법에 소홀하다면 역시 문제가 생기게 된다. 당위원회가 자기의 령도적임무를 완수하려면 반드시 당위원회란 이《분대》에 의거하고 그들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시켜야 한다. 서기가 《분대장》역할을 잘하려면 잘 학습하며 잘 연구하여야 한다. 서기, 부서기가 만일 자기의《분대》에 대한 선전사업과 조직사업에 주의를 돌리지 않고 자기와 위원들사이의 관계를 잘 처리하지 않고 어떻게 회의를 잘 열것인가를 연구하지 않는다면 이 《분대》를 잘 지휘하기 어렵

다. 만일 이《분대》의 동작이 일치하지 못하다면 수천만 사람들을 전쟁과 건설에로 인도하려고는 생각도 말아야 한다. 물론 서기와 위원들사이의 관계는 소수가 다수에 복종하는 관계로서 이 점은 분대장과 전사간의 관계와는 다르다. 이것은 비유에 불과하다.

《당위원회의 사업방법》(1949년 3월 13일)

문제를 책상우에 내놓아야 한다. 《분대장》만 이렇게 할것이 아니라 위원들도 이렇게 하여야 한다. 배후에서 의론하지 말아야 한다. 문제가 있으면 회의를 열고 그것을 책상우에 내놓고 토의하여 몇 조목을 규정하면 문제가 해결된다. 문제가 있는데도 책상우에 내놓지 않는다면 장기간 해결을 얻지 못하며 심지어 몇해씩 끌게 된다. 《분대장》과 위원은 또 서로 량해할줄 알아야 한다. 서기와 위원, 중앙과 각 중앙국, 각 중앙국과 구당위원회간의 량해, 지원 및

우의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당위원회의 사업방법》(1949년 3월 13일)

《정보를 서로 알려야 한다》. 다시말하면 당위원회 각 위원들사이에 피차 알고있는 정형을 서로 알려주며 서로 교환하여야 한다. 이것은 공통한 언어를 가지는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것이 아니라 로자가 말한것처럼 《닭우는 소리, 개짖는 소리 서로 들리건만 늙어죽도록 서로 래왕이 없다》. 그 결과 피차간에 공통한 언어가 없다.

《당위원회의 사업방법》(1949년 3월 13일)

모르는것과 리해하지 못하는것은 경솔히 찬성하거나 반대하지 말고 하급에 물어보아야 한다. ……우리는 모르면서 아는체하여서는 절대 안되며 《아래사람에게 묻기를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하고 하급간부들의 의견을 귀담아들을줄 알아야 한다. 먼저

학생이 되고 그다음에 선생이 되여야 하며 먼저 하급간부들에게서 배우고 그다음에 명령을 내려야 한다. ……하급간부들의 말은 옳은것도 있고 옳지 않은것도 있으니 들은후에 분석해보아야 한다. 옳은 의견은 반드시 들어야 하며 또 그대로 하여야 한다. ……하급에서 오는 그릇된 의견도 들어보아야 하며 전혀 듣지도 않는것은 옳지 않다. 그러나 듣고나서 그대로 하지는 말아야 하며 비판해주어야 한다.

《당위원회의 사업방법》(1949년 3월 13일)

《피아노치기》를 배워야 한다. 피아노를 치는데는 열손가락을 다 움직여야 하지 더러 움직이고 더러 움직이지 않아서는 안된다. 그러나 또 열손가락을 동시에 내리쳐도 곡조를 이루지 못한다. 좋은 음악이 흘러나오게 하려면 열손가락의 동작이 률동적이여야 하며 협조적이여야 한다. 당위원회는 중심사업을 단단히 틀어쥐여야 하며 또 중심사업을 에워싸고 기타 방면의 사업

도 동시에 전개하여야 한다. 지금 우리가 관할하고있는 방면은 아주 많다. 각지, 각 군, 각 부문의 사업을 다 돌보아야 하며 일부분의 문제에만 주의를 돌리고 다른것을 내버려두어서는 안된다. 어디나 문제가 있는 곳에는 다 손가락이 가야 한다. 이 방법을 우리는 꼭 배워야 한다. 피아노를 잘 치는 사람도 있고 잘 치지 못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들이 치는데서 울려나오는 음률은 차이가 크다. 당위원회의 동지들은 반드시 《피아노치기》를 잘 배워야 한다.

《당위원회의 사업방법》(1949년 3월 13일)

《틀어쥐여야》 한다. 다시말하면 당위원회는 주요한 사업을 반드시 《쥐여야》 할뿐만아니라 《틀어쥐여야》 한다. 무슨 물건이나 단단히 틀어쥐고 조금도 늦추지 말아야만 그것을 쥘수 있다. 쥐여도 틀어쥐지 않으면 쥐지 않은것과 같다. 손을 펴고서는 물론 아무것도 쥘수 없다. 손을 오그려도 꽉 쥐지 않으면 보기에는 쥔것 같지만 역시 쥐지 못한다. 우리의 일부 동지들은 주요한 사업을 쥐기는 하지만 틀어쥐지 않기때문에 역시 사업을 잘하지 못한다. 쥐지 않아도 안되지만 틀어쥐지 않아도 안된다.

《당위원회의 사업방법》(1949년 3월 13일)

마음속에 《수자》가 있어야 한다. 이것은 정형과 문제에 대하여 그것들의 량적측면에 주의를 돌려야 하며 기본적량에 대한 분석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어떠한 질이든지 다 일정한 량으로 표현되며 량이 없으면 질도 없다. 우리의 많은 동지들은 지금도 사물의 량적측면에 주의를 돌릴줄 모르며 기본적인 통계와 주요한 백분률에 주의를 돌릴줄 모르며 사물의 질을 결정하는 량적한계에 주의를 돌릴줄 모르며 무엇에 대하여서나 다 마음속에 《수자》가 없다. 그 결과 오유를 범하지 않을수 없게 된다.

《당위원회의 사업방법》(1949년 3월 13일)

《안민고시》. 회의를 여는데는 안민고시를 내듯이 사전에 통지하여 무슨 문제를 토의하고 무슨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가를 알려주어야 하며 또 미리 준비하게 하여야 한다. 어떤 곳에서는 간부회를 여는데 보고문과 결정서초안을 사전에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회의할 사람들이 모여온후에야 대강 만드는데 이것은 마치 《병마는 이미 당았건만 량초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는 격으로서 좋지 못한것이다. 준비가 없으면 회의를 급급히 소집하지 말아야 한다.

《당위원회의 사업방법》(1949년 3월 13일)

《정병간정》. 강화를 하거나 연설을 하거나 글을 쓰거나 결의안을 작성하거나 모두다 간단명료하게 하여야 한다. 회의도 너무 길게 하지 말아야 한다.

《당위원회의 사업방법》(1949년 3월 13일)

자기와 의견이 같지 않은 동지들과 잘 단결하여 함께 사업하기에 주의를 돌려야 한다. 지방에서나 부대에서나 할것없이 다 이 점에 주의를 돌려야 한다. 당외인사에 대하여서도 마찬가지이다. 우리는 모두 방방곡곡으로부터 모여온 사람들인만큼 자기와 의견이 같은 동지와 잘 단결할뿐만아니라 또한 자기와 의견이 같지 않은 동지와도 잘 단결하여 함께 사업하여야 한다.

《당위원회의 사업방법》(1949년 3월 13일)

교오자만을 극력 삼가야 한다. 이것은 지도일군들에게 있어서 하나의 원칙적문제이며 또한 단결을 확보하는 중요한 조건이다. 큰 과오를 범한적이 없고 또 사업에 커다란 성과가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역시 교오자만하지 말아야 한다.

《당위원회의 사업방법》(1949년 3월 13일)

두가지 계선을 똑똑히 갈라야 한다. 첫째로는 혁명이냐 반혁명이냐, 연안이냐 서안이냐 하는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이 계선을 똑똑히 갈라야 한다는것을 모른다. 례컨

대 그들은 관료주의를 반대한다 하면 연안의 관료주의를 서안의 관료주의와 비교해보거나 구분하지도 않고 연안을 마치도 《옳은 점이라곤 전혀 없는》듯이 말한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잘못이다. 그다음으로는 혁명대렬내에서 옳은것과 그른것, 성과와 결함의 계선을 똑똑히 갈라야 하며 또 그중 어느것이 주요하고 어느것이 차요한가를 밝혀야 한다. 례컨대 성과가 도대체 30%인가, 70%인가 하는것이다. 줄여도 안되고 보태도 안된다. 한사람의 사업에 있어서 도대체 성과가 30%이고 과오가 70%인가, 그렇지 않으면 성과가 70%이고 과오가 30%인가에 대하여 반드시 근본적인 평가가 있어야 한다. 만일 성과가 70%라면 그의 사업을 기본적으로 긍정하여야 한다. 성과가 주되는것인데 과오가 주되는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잘못이다. 우리는 문제를 볼 때 꼭 이 두가지 계선, 즉 혁명과 반혁명과의 계선, 성과와 결함과의 계선을 똑똑히 가를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 두가지 계선을 념두에 두면 일

이 잘되고 그렇지 않으면 문제의 성질을 혼동하게 된다. 물론 계선을 잘 가르자면 세밀한 연구와 분석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 우리는 매개 사람, 매개 일에 대하여 분석하고 연구하는 태도를 취하여야 한다.

《당위원회의 사업방법》(1949년 3월 13일)

조직상에서 중앙집권의 지도하에서의 민주주의적생활을 엄격하게 실시하여야 한다. 그 로선은 다음과 같다.

1. 당의 지도기관은 옳은 지도로선을 가지며 문제에 봉착하였을 때 옳은 해결책을 강구함으로써 지도적중추를 확립하여야 한다.

2. 상급기관은 하급기관의 실정과 대중의 생활형편을 잘 알고 이것을 정확한 지도를 위한 객관적기초로 삼아야 한다.

3. 당의 각급기관은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제마음대로 하여서는 안된다. 일단 결정이 채택되면 그것을 견결히 집행하여야 한다.

4. 상급기관의 결정으로서 조금이라도

중요한것은 급속히 하급기관 및 당원대중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

5. 당의 하급기관과 당원대중은 상급기관의 지시를 상세히 토의하여 그 지시의 의의를 철저히 리해하고 그 집행방법을 결정하여야 한다.

《당내의 그릇된 사상을 시정할데 관하여》(1929년 12월)

11. 군중로선

인민, 오직 인민만이 세계의 력사를 창조하는 동력이다.

《련합정부에 대하여》(1945년 4월 24일)

대중은 진정한 영웅이며 우리자신은 흔히 유치하기 짝이 없다. 이 점을 모른다면 최저한도의 지식조차 얻을수 없다.

《〈농촌조사〉의 서언과 발문》(1941년 3월, 4월)

인민대중에게는 무궁무진한 창조력이 있다. 그들은 조직되여 자기의 힘을 발휘할수 있는 모든 지방과 부문에로 진군하며 생산에로 깊이있게, 폭넓게 진군하면서 자신을 위해 날로 더 많은 복리사업을 창조할수 있다.

《남아도는 로력이 출로를 찾았다》에 대한 평어 (1955년)

현시기 농민운동의 앙양은 극히 중대한 문제이다. 아주 짧은 시일내에 수억만 농민들이 중국의 중부와 남부와 북부의 각 성에서 일어날것인바 그 기세는 폭풍우와도 같이 급격하고 맹렬하여 어떠한 힘으로도 억누르지 못할것이다. 그들은 자기들을 얽매여놓은 모든 쇠사슬을 끊어버리고 해방의 길로 줄달음칠것이다. 일체 제국주의, 군벌, 탐관오리, 토호렬신들은 그들에 의하여 모조리 매장되고 말것이다. 일체 혁명적당파와 혁명적동지들은 그들앞에서 그들의 검열을 받고 취사여부가 결정될것이다. 그들의 앞에 서서 그들을 이끌고나가겠는가? 그렇지 않으면 그들의 뒤에 서서 이러쿵저러쿵 시비하겠는가? 또 그렇지 않으면 그들의 대립면에 서서 그들을 반대하겠는가? 이 세가지 길에 대하여 중국사람은 누구나 다 선택의 자유를 가지고있다. 그러나 시국은 조속히 선택할것을 강요할것이다.

《호남성농민운동시찰보고》(1927년 3월)

오늘 농촌에서 협동화의 사회개혁의 고조가 일부 지방들에는 이미 닥쳐왔으며 또 전국적으로도 멀지 않아 닥쳐올것이다. 이것은 5억이상 농촌인구의 대규모적인 사회주의적혁명운동으로서 매우 위대한 세계적의의를 가지고있다. 우리는 이 운동을 갖은 방법으로 뒤로 잡아당길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열성적으로, 계획적으로 지도하여야 한다. 운동과정에 약간의 편향이 생기는 것은 피면할수 없는 일이다. 이것은 리해할수 있는 일이며 또 시정하기도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간부와 농민들가운데 존재하는 결함이나 오유는 그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주기만 하면 극복 또는 시정할수 있는것이다.

《농업협동화문제에 관하여》(1955년 7월 31일)

대중속에는 거대한 사회주의적적극성이 잠재하고있다. 혁명시기에도 여느때처럼밖에 걸을줄 모르는 사람들은 이러한 적극성을 전혀 보지 못한다. 그들은 소경이여서

그들에게는 암흑밖에 보이지 않는다. 그들은 때로는 시비를 전도하며 흑백을 혼동하는데까지 이른다. 그래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적게 봤단 말인가? 여느때처럼밖에 걸을줄 모르는 이러한 사람들은 언제나 인민의 적극성을 과소평가한다. 어떤 새 사물이 나타나면 그들은 언제나 찬성하지 않고 우선 한바탕 반대한다. 그리고나서는 자기가 잘못되였다는것을 시인하고 자기비판도 좀 한다. 다음에 또 다른 새 사물이 나타나면 그들은 이 두가지 태도를 다시 되풀이한다. 이후에 여러가지 새 사물이 나타날적마다 그들은 언제나 이러한 식으로 대한다. 이러한 사람들은 항상 피동적이다. 긴요한 고비에 이르면 언제나 발걸음을 멈추고 서있다가 다른 사람이 등을 떠밀어야 겨우 한걸음 내디딘다.

《이 향에서는 2년내에 협동화를 실현하였다》에 대한 평어 (1955년)

우리 당은 20여년동안 매일과 같이 군중공작을 하여왔으며 최근 10여년동안 매일과 같이 군중로선에 대하여 말하여왔다. 우리는 언제나 혁명은 인민대중에 의거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동원될것을 주장하며 소수사람들의 명령이나 지시에만 의거하는것을 반대하여왔다. 그러나 일부 동지들은 자기의 사업에서 여전히 군중로선을 관철하지 못하고있다. 그들은 아직도 소수사람들에게 의거하여 활기없이 사업하고있다. 그 원인의 하나는 바로 그들이 어떤 일을 하든지간에 지도받는 사람에게 똑똑히 해설하여주기를 싫어하며 피지도자의 적극성과 창발성을 발휘시킬줄 모르는데 있다. 그들도 주관적으로는 모든 사람들을 일에 달라붙게 하려고 하지만 그 일이 어떤것이며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를 사람들에게 알려주지 않는다. 이래서야 어떻게 사람들이 동할수 있으며 어떻게 일이 잘될수 있겠는가? 이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근본적인것은 물론 사상적으로 군중로선에 관한 교양을 진행하는것이지만 이와 함께 동지들에게 많은 구체적방법도 가르쳐주어야 한다.

《진수일보 편집일군들과의 담화》
(1948년 4월 2일)

24년동안의 경험은 옳바른 임무, 정책 및 사업작풍은 모두가 그때 그곳의 대중의 요구에 맞고 대중과 련계되는것이며 그릇된 임무, 정책 및 사업작풍은 모두가 그때 그곳의 대중의 요구에 맞지 않으며 대중으로부터 리탈된것임을 말하여주고있다. 교조주의, 경험주의, 명령주의, 추미주의, 종파주의, 관료주의, 교오자만하는 사업태도 등 이러한 폐단이 결정적으로 나쁘고 반드시 버려야 하며 또 이런 폐단을 가지고있으면 꼭 시정하여야 하는 까닭은 바로 그러한것들이 대중으로부터 리탈된것이기때문이다.

《련합정부에 대하여》(1945년 4월 24일)

대중과 련계를 맺으려면 대중의 요구와 자원성에 의거하여야 한다. 대중을 위한 모든 사업은 어떤 선량한 개인적념원으로부터 출발할것이 아니라 대중의 요구로부터 출발하여야 한다. 많은 경우에 대중은 객관적으로는 그 어떤 개혁을 요구하고있지만 주관적으로는 그들에게 아직 그러한 자각이 없고 그러한 결심이 없으며 또 그들이 그러한 개혁을 원하지 않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우리는 참을성있게 기다려야 하며 우리의 사업을 통하여 대중의 다수가 자각하고 결심을 내리고 자원적으로 개혁하려 할 때에 가서 이러한 개혁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대중으로부터 리탈될것이다. 대중이 참가하여야 할 사업에 있어서 만일 대중의 자각성과 자원성이 없다면 한갖 형식에만 흘러 실패하고 말것이다. …… 여기에는 두가지 원칙이 있다. 그 하나는 우리의 머리속에서 환상하여낸 요구가 아니라 대중의 실제적인 요구이며 다른 하나는 대중의 자원성인바 즉 우리가 대중을 대신해서 결심을 내리는것이 아니라 대중자신이 결심을 내리는것이다.

《문화사업에 있어서의 통일전선》(1944년 10월 30일)

우리의 대표대회는 매개 사업분야에서 일하고있는 매개 동지들이 대중으로부터 리

탈되지 않도록 주의를 환기할것을 전당에 호소하여야 한다. 인민대중을 열렬히 사랑하고 대중의 목소리에 주의깊게 귀를 기울이며, 어느 곳에 가든지 그곳의 대중과 한덩어리가 되고 대중의 우에 올라설것이 아니라 대중속에 깊이 들어가며, 대중의 각성정도에 따라 그들의 각성을 계발제고하며 대중이 진심으로 자원하는 원칙하에서 대중으로 하여금 점차 조직되여 그때 그곳의 내외적환경이 허락하는 모든 필요한 투쟁을 점차 전개하게 하도록 매개 동지들을 교양하여야 한다.

《련합정부에 대하여》(1945년 4월 24일)

대중이 아직 각성하지 못한 때에 우리가 진공하려 한다면 그것은 모험주의이다. 대중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우리가 대중을 이끌고 억지로 한다면 그 결과는 필연적으로 실패하게 된다. 대중이 전진을 요구할 때에 우리가 전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

경기회주의이다.

《진수일보 편집일군들과의 담화》(1948년 4월 2일)

모든 사업에 있어서 명령주의는 그릇된것이다. 왜냐 하면 그것은 대중의 각성정도를 초월하여 대중의 자원성의 원칙을 위반한것이며 조급증에 걸린것이기때문이다. 우리 동지들은 자기가 알고있는것을 광범한 대중도 마찬가지로 알고있으리라고 생각하여서는 안된다. 대중이 이미 알고있는가, 또 행동에 옮기려 하는가 하는것은 대중속에 들어가 고찰하여보아야 알수 있다. 이렇게 한다면 명령주의를 피면할수 있다. 모든 사업에 있어서 추미주의도 역시 그릇된것이다. 왜냐 하면 그것은 대중의 각성정도에 뒤떨어져 대중을 전진하도록 인도하는 원칙을 위반한것이며 만성병에 걸린것이기때문이다. 우리 동지들은 자기가 모르고있는것은 대중도 다 모르리라고 생각하여서는 안된다. 많은 경우에 광범한 대중은 우리보

다 앞서나가 한걸음 더 전진할것을 절박히 요구하고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동지들은 광범한 대중의 지도자로 될 대신 일부 락후분자들의 의견을 반영하고있으며 또 이러한 락후분자들의 의견을 광범한 대중의 의견으로 잘못 인정하고 락후분자의 뒤꼬리를 따라가고있다.

《련합정부에 대하여》(1945년 4월 24일)

대중속에서 의견을 집결하고 다시 대중속에 들어가 견지함으로써 옳바른 령도적의견을 형성하는것, 이것이 기본적인 령도방법이다.

《령도방법에 관한 몇가지 문제》(1943년 6월 1일)

우리 당의 모든 실제사업에 있어서 옳바른 령도는 반드시 대중속으로부터 나와 다시 대중속으로 들어가는것이다. 다시말하면 대중의 의견(분산적이며 체계가 없는 의견)을 집결하고(연구를 거쳐 집중적이고 체

계적인 의견으로 만들어) 다시 대중속에 들어가 그것을 선전해설하여 대중의 의견으로 만듦으로써 대중으로 하여금 그것을 견지하고 행동에 옮기게 하며 또한 대중의 행동에서 이런 의견의 옳고 그름을 검증하는것이다. 그렇게 한 다음 다시 대중속에서 의견을 집결하고 또 대중속에 들어가 견지한다. 이렇게 무한히 순환하면 번마다 더 정확하여지고 더 생동하여지며 더 풍부하여지게 된다. 이것이 바로 맑스주의적인식론이다.

《령도방법에 관한 몇가지 문제》(1943년 6월 1일)

우리는 대중속에 들어가 대중에게서 배우며 그들의 경험을 종합하여 그것을 더욱 훌륭하고 체계적인 원칙과 방법으로 되게 한 후 다시 그것을 대중에게 알려주고(선전) 또 그것을 실천하도록 대중에게 호소하며 대중의 문제들을 해결하여줌으로써 대중으로 하여금 해방과 행복을 얻게 하여야 한다.

《조직하라》(1943년 11월 29일)

우리의 일부 지방의 지도기관에는 당의 정책은 지도일군들이나 알면 되고 대중에게는 알릴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것은 우리의 일부 사업이 잘되지 못하는 기본원인의 하나이다.

《진수일보 편집일군들과의 담화》
(1948년 4월 2일)

어떠한 군중운동에 있어서든지 대중가 운데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사람이 얼마이며 반대하는 사람이 얼마이며 중간상태에 있는 사람이 얼마인가 하는것들에 대하여 반드시 기본적인 조사와 기본적인 분석이 있어야 하며 근거없이 주관적으로 문제를 결정하여서는 안된다.

《당위원회의 사업방법》(1949년 3월 13일)

대중이 있는 곳에는 어디에나 대체로 세부분의 사람, 즉 비교적 열성적인 사람과 중간상태에 있는 사람과 비교적 락후한 사람이 있다. 그러므로 지도일군들은 소수의 열

성분자들을 단합하여 지도적핵심으로 삼고 이러한 핵심들에 의거하여 중간분자를 제고시키며 락후분자를 쟁취할줄 알아야 한다.

《령도방법에 관한 몇가지 문제》
(1943년 6월 1일)

당의 정책을 능숙하게 대중의 행동으로 되게 하며 우리의 매개 운동, 매개 투쟁을 지도일군들뿐만아니라 광범한 대중들도 다 알고 다 장악하게 하는것, 이것이 맑스-레닌주의적령도예술이다. 우리가 사업에서 과오를 범하느냐 범하지 않느냐 하는 분계선도 여기에 있다.

《진수일보 편집일군들과의 담화》
(1948년 4월 2일)

령도핵심의 적극성만 있고 광범한 대중의 적극성이 거기에 결합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소수사람의 부질없는 헛수고로 되고 말것이다. 그러나 광범한 대중의 적극성만 있고 대중의 적극성을 적절하게 조직하는 강력한 령도핵심이 없다면 대중의 적극성은

오래 지속될수도 없거니와 정확한 방향으로 나아갈수도 없고 높은 수준에 오를수도 없다.

《령도방법에 관한 몇가지 문제》(1943년 6월 1일)

대중의 생산, 대중의 리익, 대중의 경험, 대중의 기분, 이 모든것은 지도일군들이 항상 주의를 돌려야 할 점들이다.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직속기관과 군사위원회직속기관 생산전람회를 위하여 쓴 제사 (1943년 11월 24일)

우리는 토지문제, 로동문제로부터 땔나무, 쌀, 기름, 소금 등에 이르기까지 대중의 전반 생활문제에 깊은 주의를 돌려야 한다. ……대중의 생활에 제기되는 이 모든 문제들을 죄다 자기의 의사일정에 올려놓아야 한다. 그것을 토의하고 결정하고 실행하고 검열하여야 한다. 광범한 대중으로 하여금 우리가 그들의 리익을 대표하고있으며 그들과 호흡을 같이하고있다는것을 알게 하여야 한다. 그들로 하여금 이러한 일로부터 출발하여 우리가 제기하는 보다 높은 과업, 즉 혁명전쟁의 과업을 리해하고 혁명을 지지하며 혁명을 전국에로 추진시키며 우리의 정치적호소를 접수하고 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끝까지 투쟁하게 하여야 한다.

《대중의 생활에 관심을 돌리며 사업방법에 주의를 돌리자》(1934년 1월 27일)

12. 정치사업

당시(1924～1927년 제1차국내혁명전쟁시기를 가리킴—편집자) 군대에는 당대표와 정치부가 설치되여있였다. 이러한 제도는 중국력사에 없였던것이며 이러한 제도에 의하여 군대의 면모가 일신되였다. 1927년 이후의 홍군과 오늘의 팔로군은 이러한 제도를 계승하고 발전시킨것이다.

《영국기자 버트람과의 담화》(1937년 10월 25일)

인민전쟁을 기초로 하여, 군대와 인민의 일치단결, 지휘원과 전투원의 일치단결 그리고 적군와해 등 원칙을 기초로 하여 인민해방군은 자기의 강력한 혁명적정치사업을 확립하였다. 이것은 우리가 적을 타승할수

있는 중대한 요인이다.

《현정세와 우리의 과업》(1947년 12월 25일)

이 군대는 인민전쟁에 필요한 일련의 정치사업제도를 확립하였다. 그 임무는 아군을 단결시키며 우군과 단결하며 인민과 단결하며 적군을 와해시키며 전투의 승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투쟁하는것이다.

《련합정부에 대하여》(1945년 4월 24일)

정치사업은 모든 경제사업의 생명선이다. 사회경제제도의 근본적변혁기에는 더구나 그러하다.

《엄중한 교훈》에 대한 평어(1955년)

홍군이 아주 어렵게 싸우면서도 해체되지 않는 그 중요한 원인의 하나는 《지부를 중대에 둔것》이다.

《정강산투쟁》(1928년 11월 25일)

팔로군의 정치사업에는 세개의 기본원칙이 있다. 첫째는 관병일치의 원칙이다. 이것은 군대내에서 봉건주의를 숙청하며 때리고 욕하는 제도를 폐지하고 자각적규률을 세우며 생활에서 고락을 같이하는것이다. 이로 하여 전군은 일치단결되여있다. 둘째는 군민일치의 원칙이다. 이것은 인민의 리익을 털끝만큼도 해치지 않는 민중규률, 민중에게 선전하고 민중을 조직하고 민중을 무장하는것, 민중의 경제적부담을 덜어주는것, 군민에게 해독을 끼치는 민족반역자-매국역적에게 타격을 주는것 등이다. 이로 하여 군대는 인민과 일치단결되여있으며 도처에서 인민의 환영을 받고있다. 세째는 적군을 와해시키며 포로를 관대하게 취급하는 원칙이다. 우리의 승리는 아군의 작전에만 의존하는것이 아니라 적군의 와해에도 의존한다.

《영국기자 버트람과의 담화》(1937년 10월 25일)

우리의 군대는 군대와 인민의 관계, 군대와 정부의 관계, 군대와 당의 관계, 군관과 병사의 관계, 군사사업과 정치사업의 관계, 간부 호상간의 관계에 있어서 정확한 원칙을 지켜야 하며 결코 군벌주의적폐단이 있어서는 안된다. 군관은 병사를 사랑하여야 하며 무관심하거나 체형을 가하여서는 안된다. 군대는 인민을 애호하여야 하며 인민의 리익을 해쳐서는 안된다. 군대는 정부를 존중하고 당을 존중하여야 하며 독립성을 부려서는 안된다.

《조직하라》(1943년 11월 29일)

적군, 괴뢰군, 반공군의 포로에 대하여서는 그중 대중이 극도로 증오하며 죽이지 않으면 안될자로서 상급의 비준을 받은자를 제외하고는 일률적으로 석방하는 정책을 취하여야 한다. 포로들중 강제에 못이겨 참가한자로서 다소라도 혁명성이 있는자들은 대량적으로 쟁취하여 우리 군대에 복무하게 하고 그 나머지는 일률적으로 석방하여야 한다. 만일 그들이 다시 오면 재차 붙들어

서 또 석방하여야 한다. 모욕하거나 소지품을 빼앗거나 자수하도록 강요할것이 아니라 일률적으로 성근하고 친절한 태도로 대하여야 한다. 그들이 아무리 반동적이라 하더라도 모두 이러한 정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는것은 반동진영을 고립시키는데 있어서 아주 효과적이다.

《정책에 대하여》(1940년 12월 25일)

무기는 전쟁의 중요한 요인이기는 하나 결정적요인은 아니다. 결정적요인은 물건이 아니라 사람이다. 력량대비는 군사력 및 경제력의 대비일뿐만아니라 또한 인력 및 민심의 대비이다. 군사력이나 경제력은 사람에 의하여 장악되는것이다.

《지구전에 대하여》(1938년 5월)

원자탄은 미국반동파가 사람을 놀래우는데 쓰는 종이범이며 보기에는 무서운것 같으나 실제에 있어서는 무서운것이 아니다. 물론 원자탄은 대량적살륙무기이다. 그러나 전쟁의 승부를 결정하는것은 인민이지

한두가지 신형무기가 아니다.

《미국기자 안나 루이스 스트롱과의 담화》(1946년 8월)

군대의 기초는 병사이다. 진보적인 정치적정신이 군대내에 침투되여있지 않고서는, 진보적인 정치사업으로 이러한 정신을 침투시키지 않고서는 군관과 병사간의 진정한 일치가 이룩될수 없으며 장병들의 최대한의 항전열의를 불러일으킬수 없으며 모든 기술과 전술은 그 효력을 제대로 발휘할 가장 좋은 기초를 가지지 못하게 된다.

《지구전에 대하여》(1938년 5월)

단순한 군사관점이 홍군내의 일부 동지들가운데서 엄중히 자라나고있다. 그 표현은 다음과 같다.

(1) 군사와 정치를 대립되는것으로 보면서 군사는 정치적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는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심지어 《군사가 잘되면 정치는 자연히 잘되고 군사가 잘되지 않으면 정치

도 잘될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은 한걸음 더 나아가 군사가 정치를 령도한다고 여기는것이다.

…………

《당내의 그릇된 사상을 시정할데 관하여》(1929년 12월)

사상교양을 틀어쥐는것은 전당을 위대한 정치투쟁에로 결속시키는 중심고리이다. 이 과업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당의 어떤 정치적과업도 완수할수 없다.

《련합정부에 대하여》(1945년 4월 24일)

지식인과 청년학생들속에서 최근 한 시기 사상정치사업이 약화되여 일부 편향들이 나타났다. 일부 사람들은 정치이니 조국의 미래이니 인류의 리상이니 하는것에는 관심할 필요가 없는듯이 생각하고있으며 맑스주의는 한때 류행되였으나 지금은 그다지 류행되지 않는듯이 보고있다. 이런 정형에 비추어 지금 사상정치사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지식인이나 청년학생이나 모두 학습에 노력하여야 한다. 전공을 하는외에 사상적으로나 정치적으로도 진보하여야 한다. 이것을 위해서는 맑스주의를 학습하여야 하며 시사와 정치를 학습하여야 한다. 정확한 정치적견해가 없는것은 령혼이 없는것과 같다. ……사상정치사업은 각 부문에서 모두 책임져야 한다. 공산당이 책임져야 하며 청년단이 책임져야 하며 정부의 해당부문에서 책임져야 하며 학교의 교장, 교원들은 더욱 책임져야 한다.

《인민내부의 모순을 정확히 처리할 문제에 관하여》(1957년 2월 27일)

정치교양을 통하여 홍군병사들은 모두가 계급적으로 각성되였으며 토지분여, 정권수립 및 로농무장화 등에 관한 상식을 가지게 되였으며 모두다 자기자신과 로농계급을 위하여 싸운다는것을 알게 되였다. 그렇기때문에 그들은 어려운 투쟁속에서도 불평을 부리지 않는다. 중대, 대대, 련대에는

병사위원회가 있어서 병사들의 리익을 대표하고있으며 또 정치사업과 민중사업을 하고있다.

《정강산투쟁》(1928년 11월 25일)

지난날의 고통을 설토(구사회와 반동들이 근로인민에게 들씌운 고통을 설토하는 것)하고 세가지를 검사(계급성분, 사업 및 투지의 검사)하는 운동을 옳게 진행한 결과 착취당하는 근로대중의 해방을 위하여, 전국의 토지개혁을 위하여, 인민의 공동의 원쑤 장개석도당을 소멸하기 위하여 싸우려는 전체 지휘원과 전투원들의 자각성이 크게 제고되였으며 그와 함께 공산당의 령도하에서의 전체 지휘원과 전투원들의 튼튼한 단결도 결정적으로 강화되였다. 이에 기초하여 부대의 순결성이 제고되였고 규률이 강화되였고 대중적군사훈련운동이 전개되였으며 부대내에서 완전히 지도가 있고 질서가 있는 정치, 경제, 군사 등 세개 면의 민주주의가 발양되였다. 이리하여 부대는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되여 다같이 방법을 강구하며 다같이 힘을 내며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어려운 물질적조건을 극복해가면서 집단적영웅주의로 적을 용감하게 무찌르게 되였다. 이러한 군대는 천하무적으로 될것이다.

《서북의 대승리에 대하여서와 해방군의 새로운 형태의 정비운동에 대하여》(1948년 3월 7일)

거의 모든 인민해방군 부대들이 최근 수개월내에 전쟁의 여가를 타서 대규모의 정비훈련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정비훈련은 완전히 지도가 있고 질서가 있게 민주주의적방법으로 진행되였다. 이로써 광범한 지휘원과 전투원대중의 혁명적열의를 불러일으켰으며 전쟁의 목적을 명확히 인식시켰으며 부대에 존재하는 일부 옳지 못한 사상적경향과 그릇된 현상들을 제거하였으며 간부와 전사들을 교양하였으며 전투력을 현저히 제고하였다. 민주주의적이고 대중적인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군대정비운동은 금후에도 계속 진

행하여야 한다.

《산서-수원해방구간부회의에서 한 연설》(1948년 4월 1일)

항일군정대학의 교육방침은 확고하고 정확한 정치방향, 간고하고 소박한 사업작풍, 령활하고 기동적인 전략전술이다. 이 세가지는 항일혁명군인을 양성함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된다. 항일군정대학의 직원과 교원과 학생들은 모두 이 세가지에 근거하여 교육을 진행하며 학습을 하고있다.

《적에게 반대를 받는것은 나쁜 일이 아니라 좋은 일이다》(1939년 5월 26일)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간고분투하는 작풍을 가지고있다. 우리는 이것을 발양하여야 한다. ……공산당은 언제나 확고하고 정확한 정치방향을 더욱 제창한다. ……확고하고 정확한 정치방향은 간고분투하는 사업작풍과 떼여놓을수 없다. 확고하고 정확한 정치방향이 없이는 간고분투하는 사업작풍을 발양할수 없고 간고분투하는 사업작풍이

없이는 확고하고 정확한 정치방향을 견지할수 없다.

《5.1국제로동절 연안경축대회에서 한 연설》(1939년 5월 1일)

단결, 긴장, 엄숙, 활발.

항일군정대학을 위하여 제정한 구호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것은 《성실성》인데 누구보다도 《성실성》을 중히 여기는것은 바로 공산당이다.

모스크바에서 우리 나라 류학생과 실습생들을 만났을 때 한 담화 (1957년 11월 17일)

13. 관병관계

우리 군대에는 종래로 두가지 방침이 있다. 첫째는, 원쑤에 대하여서는 무자비하며 그들을 압도하고 그들을 소멸하는것이다. 둘째는, 자기편 사람에 대하여, 인민에 대하여, 동지에 대하여, 상관에 대하여, 부하에 대하여서는 친절하며 단결하는것이다.

중앙에서 류수병단학습대표를 초대하였을 때 한 연설(1944년 9월 18일)

우리는 하나의 공통한 혁명목표를 위하여 방방곡곡으로부터 모여왔다. ……우리의 간부들은 매개 전사들을 돌보아야 하며 혁명대렬내의 모든 사람들은 서로 돌보고 서로 아끼며 서로 도와야 한다.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자》(1944년 9월 8일)

매개 부대에서 간부를 지지하고 병사를 사랑하는 운동을 전개하여 간부들에게는 병사를 사랑할것을 호소하고 병사들에게는 간부를 지지할것을 호소함으로써 서로의 결함과 과오를 털어놓고 시급히 시정하게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면 내부의 튼튼한 단결을 가져올수 있다.

《1945년도의 과업》(1944년 12월 15일)

많은 사람들이 관병관계, 군민관계가 잘되지 않는것은 그 방법이 옳지 않기때문이라고 여기고있는데 나는 언제나 그들에게 이것은 근본적태도(또는 근본적취지)문제라고 말한다. 근본적태도는 병사를 존중하며 인민을 존중하는것이다. 이러한 태도로부터 출발하면 그에 따르는 각종 정책, 방법, 방식이 나오게 된다. 이러한 태도를 떠난다면 정책, 방법, 방식도 반드시 그릇되게 되며 관병간, 군민간의 관계도 도저히 잘될수 없게 된다. 군대의 정치사업의 3대원칙은 첫

째로, 관병일치이며 둘째로, 군민일치이며 세째로, 적군와해이다. 이러한 원칙을 효과적으로 실행하려면 병사를 존중하고 인민을 존중하며 이미 무기를 놓은 적군포로의 인격을 존중하는 이러한 근본적태도로부터 출발하여야 한다. 이것을 근본적태도문제가 아니라 기술적문제라고 생각하고있는 사람은 매우 잘못 생각하고있는것이므로 응당 시정하여야 한다.

《지구전에 대하여》(1938년 5월)

공산당원은 근로인민속에서 사업할 때 민주주의적인 설복과 교양의 방법을 써야 하지 결코 명령주의적태도나 강압적수단을 써서는 안된다. 중국공산당은 맑스-레닌주의의 이 원칙을 충실히 준수하고있다.

《인민내부의 모순을 정확히 처리할 문제에 관하여》(1957년 2월 27일)

사상개조사업은 장기적이고 인내성을 요하는 세밀한 사업으로서 수십년동안의 생활

과정에서 형성된 사람들의 사상의식을 몇차례의 강의나 회의로써 개변시키려고 하여서는 안된다는것을 우리 동지들은 반드시 알아야 한다. 남을 심복시키려면 설복하여야 하지 억압하여서는 안된다. 억압하여서는 아무리해도 심복시킬수 없다. 힘으로 사람을 복종시켜서는 안된다. 적에 대하여서는 이렇게 할수 있지만 동지나 벗에 대하여서는 절대 이런 방법을 써서는 안된다.

《중국공산당 전국선전사업회의에서 한 연설》(1957년 3월 12일)

적아를 똑똑히 갈라야 한다. 적대적인 립장에 서서 적을 대하는 태도로 동지를 대하여서는 안된다. 어디까지나 인민의 위엽을 수호하며 인민의 각성을 높이려는 태도로 열정적으로 말하여야 하지 조소하거나 공격하는 태도로 말하여서는 안된다.

《중국공산당 전국선전사업회의에서 한 연설》(1957년 3월 12일)

14. 군민관계

군대는 민중과 한덩어리로 됨으로써 민중이 군대를 자기의 군대로 보게 되여야 한다. 이러한 군대는 천하무적이다. ……

《지구전에 대하여》(1938년 5월)

우리가 인민에 의거하고 인민대중의 창조적힘이 무궁무진하다는것을 굳게 믿으며 따라서 인민을 신뢰하고 인민과 한덩어리로 되기만 한다면 어떠한 곤난이나 다 극복할수 있으며 어떠한 적도 우리에게 압도당할뿐 우리를 압도할수 없다는것을 매개 동지들에게 인식시켜야 한다.

《련합정부에 대하여》(1945년 4월 24일)

우리 동지들은 어디로 가든지 대중과의 관계를 잘 맺어야 하며 대중에게 관심을 돌리며 대중의 곤난을 해결해주어야 한다. 광범한 인민과 단결하여야 하며 많이 단결할수록 좋다.

《중경담판에 관하여》(1945년 10월 17일)

해방구에 있어서 한편으로 군대는 정부를 지지하고 인민을 사랑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다른 한편으로 민주정부는 인민들을 령도하여 군대를 지지하고 항일군인가족을 우대하는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군민관계를 가일층 개선하여야 한다.

《련합정부에 대하여》(1945년 4월 24일)

군대내에서는 매개 지휘원과 전투원의 사상으로부터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정부를 지지하고 인민을 사랑하는 사업의 중요성을 철저히 인식시켜야 한다. 오직 군대측에서 잘하기만 하면 그에 따라서 지방측도 자기들과 군대와의 관계를 개선하게 될것이다.

《1946년도의 해방구사업방침》(1945년 12월 15일)

정부를 지지하고 인민을 사랑하는 운동과 군대를 지지하고 항일군인가족을 우대하는 운동가운데서 군대측과 당 및 정부기관측은 1943년에 범한 각자의 결함과 오유를 철저히 검사하고 1944년에는 그것을 견결히 시정하여야 한다. 앞으로는 매년 정월마다 한번씩 이 운동을 보편적으로 전개하여 정부를 지지하고 인민을 사랑할데 대한 공약과 군대를 지지하고 항일군인가족을 우대할데 대한 공약을 거듭 해설하며 군대가 당 및 정부기관과 인민들을 억누르며 당 및 정부기관과 인민이 군대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등 근거지들에서 발생한 결함과 오유에 대하여 공개적이고 대중적인 자기비판을 거듭 진행하여(각기 자기측만 비판하고 상대측은 비판하지 말것) 그것을 철저히 시정하여야 한다.

《근거지에서의 소작료인하운동, 생산운동 및 정부를 지지하고 인민을 사랑하는 운동을 전개하자》(1943년 10월 1일)

15. 3대민주

군대는 일정한 한도의 민주화를 실시하여야 하는바 그것은 주로 때리고 욕하는 봉건주의적제도를 폐지하며 장병들이 생활에서 고락을 같이하는것이다. 이렇게 하면 관병일치의 목적이 달성되고 군대의 전투력이 크게 증강될것이며 장기간의 가혹한 전쟁을 견지하지 못할 념려가 없게 될것이다.

《지구전에 대하여》(1938년 5월)

홍군이 물질적생활이 이와 같이 어렵고 전투가 이와 같이 빈번한데도 의연히 해체되지 않고 유지될수 있는것은 당의 역할외에 군대내의 민주주의를 실시하고있기때문이다. 상관이 병사를 때리지 않으며 장병의 대우가 평등하며 병사들이 회의를 하고 말을 할 자유를 가지며 번잡한 례절이 폐지

되여있으며 경제생활이 공개되여있다. ……중국에서 민주주의는 인민들에게만 필요한것이 아니라 군대에도 필요하다. 군대내의 민주주의제도는 봉건적인 고용군대를 파괴하는 중요한 무기로 될것이다.

《정강산투쟁》(1928년 11월 25일)

부대내부의 정치사업방침은 병사대중, 지휘원 및 모든 일군들을 대담하게 발동시키고 중앙집권적지도하에서의 민주주의운동을 통하여 정치면에서의 고도의 단결, 생활면에서의 개선, 군사면에서의 기술과 전술제고의 3대목적을 달성하는것이다. 지금 우리 부대들에서 열렬히 진행되고있는 《세가지 검사》, 《세가지 정돈》은 바로 정치민주주의 및 경제민주주의의 방법으로 이상의 두가지 목적을 달성하는것이다.

경제민주주의에 있어서는 병사들이 선거한 대표로 하여금 중대의 지휘원을 협조하여(초월하는것이 아니라) 중대의 급양과 취사를 관리할 권한을 가지게 하여야 한다.

군사민주주의에 있어서는 군사훈련을 할 때 군관과 병사가 서로 가르치고 병사와 병사가 서로 가르치도록 하여야 하며 싸움을 할 때 화선에서 중대가 크고 작은 여러가지 회의를 열도록 하여야 한다. 중대 지휘원의 지도하에서 병사대중을 발동시켜 적진을 어떻게 공략하며 전투임무를 어떻게 완수할것인가를 토의하여야 한다. 며칠동안 련속되는 전투에서는 이런 회의를 몇번 열어야 한다. 이런 군사민주주의는 섬서성북부의 반룡전역과 산서-차하르-하북변구의 석가장전역에서 실시되였는데 매우 큰 효과를 보았다. 이것은 좋은 점이 있을뿐 해로운 점은 조금도 없다는것이 실증되였다.

《군대내부의 민주주의운동》(1948년 1월 30일)

위대한 투쟁에 직면하고있는 중국공산당은 승리를 달성하기 위하여 당의 모든 지도기관, 전체 당원 및 간부들에게 적극성을 고도로 발휘할것을 요구한다. 적극성을 발휘한다는것은 지도기관과 간부 및 당원들

의 창발성, 책임성, 사업에서의 전개력에서, 문제를 제기하며 의견을 발표하며 결함을 비판하는데 있어서의 대담성과 능숙성에서 그리고 또 지도기관과 지도간부들에 대한 애호의 견지로부터 출발한 감독적역할에서 구체적으로 표현되여야 한다. 이러한것이 없다면 적극성이라는것은 빈말이다. 그리고 이러한 적극성이 발휘되는가 못되는가 하는것은 당내생활의 민주화에 달려있다. 당내에 민주주의적생활이 결여하면 적극성을 발휘시킬수 없다. 많은 유능한 인재의 양성도 민주주의적생활속에서만 가능하다.

《민족전쟁에 있어서의 중국공산당의 지위》(1938년 10월)

적대분자나 악의적으로 공격하는 사람이 아니기만 하면 누구나 다 말을 하게 하여야 한다. 말을 잘못하였다 해도 별문제인것이다. 각급지도일군들은 남의 말을 귀담아들을 책임이 있다. 두가지 원칙이 실시되여야 한다. 그것은 즉 (1) 아는것은 다 말하고 말은 끝까지 한다. (2) 말한 사람은 죄가 없고 듣는 사람이 참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말한 사람은 죄가 없다.》는 원칙을 실시하지 않고서는, 또한 이를 거짓으로가 아니라 진정으로 실시하지 않고서는 《아는것은 다 말하고 말은 끝까지 하는》 효과를 거둘수 없다.

《1945년도의 과업》(1944년 12월 15일)

당내에서 민주주의적생활과 관련한 교양을 진행함으로써 당원들로 하여금 민주주의적생활이란 무엇이며 민주주의제도와 중앙집권제와의 관계는 어떠하며 민주주의중앙집권제를 어떻게 실시할것인가를 알게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여야만 일방으로 당내의 민주주의적생활을 확실히 확대할수 있으며 타방으로 극단적민주화에로, 규률을 파괴하는 자유방종주의에로 나아가지 않도록 할수 있다.

《민족전쟁에 있어서의 중국공산당의 지위》(1938년 10월)

군대내에서나 지방에서나 당내의 민주

주의는 규률과 전투력을 약화시키기 위한것이 아니라 규률을 공고화하며 전투력을 강화하기 위한것이여야 한다.

《민족전쟁에 있어서의 중국공산당의 지위》(1938년 10월)

리론상으로부터 극단적민주화의 뿌리를 뽑아버려야 한다. 무엇보다도 먼저 극단적민주화의 위험성은 당의 조직을 훼손시키거나 나아가서는 완전히 파괴하며 당의 전투력을 약화시키거나 나아가서는 완전히 없애버림으로써 당으로 하여금 투쟁과업을 걸머질수 없게 하며 따라서 혁명의 실패를 초래하는데 있다는것을 지적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극단적민주화의 근원은 소부르죠아적자유산만성에 있다는것을 지적하여야 한다. 이러한 자유산만성이 당내에 들어와 정치, 조직상의 극단적민주화의 사상으로 된다. 이러한 사상은 프로레타리아트의 투쟁과업에 전혀 용납되지 않는것이다.

《당내의 그릇된 사상을 시정할데 관하여》(1929년 12월)

16. 교육과 훈련

우리의 교육방침은 교육받는자들을 덕육, 지육, 체육 면에서 전면적으로 발전시켜 사회주의적의식과 문화지식을 소유한 근로자로 되게 하여야 한다.

《인민내부의 모순을 정확히 처리할 문제에 관하여》(1957년 2월 27일)

재직간부의 교육과 간부학교에서의 교육에 있어서는 중국혁명의 실제적문제의 연구를 중심으로 하고 맑스-레닌주의의 기본원칙을 지침으로 하는 방침을 확립하여야 하며 맑스-레닌주의를 정지적으로, 고립적으로 연구하는 방법을 폐지하여야 한다.

《우리의 학습을 개조하자》(1941년 5월)

군사학교에서는 교장과 교원을 선발하

며 교육방침을 규정하는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로 된다.

《중국혁명전쟁의 전략문제》(1936년 12월)

100명가량되는 학교에 교원, 직원및 학생들속에서 실정에 따라 형성된(억지로 묶어세운것이 아니라) 가장 적극적이고 가장 정직하고 가장 기민한 수명 내지 10여명의 령도핵심이 없다면 이 학교는 반드시 잘 운영되지 못할것이다.

《령도방법에 관한 몇가지 문제》(1943년 6월 1일)

우리 군대의 전체 장병들은 군사예술을 높이며 필승의 전쟁에서 용맹하게 전진하여 모든 적들을 견결히, 철저히, 깨끗이, 모조리 섬멸하여야 한다.

《중국인민해방군선언》(1947년 10월)

지금 착수한 1년간의 정비훈련계획은 군사정비훈련과 정치정비훈련에 다같이 중시하며 량자를 서로 결부시켜야 한다. 정비훈련초기에는 정치적면에 중점을 두어야 하며 관병관계를 개선하며 내부단결을 강화하며 간부와 전사대중의 고도의 적극성을 동원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그래야만 군사정비훈련이 잘 진행될수 있고 보다 큰 효과를 거둘수 있다.

《1945년도의 과업》(1944년 12월 15일)

군사훈련의 방법에 있어서는 군관이 병사를 가르치며 병사가 군관을 가르치며 병사가 병사를 가르치는 대중적군사훈련운동을 전개하여야 한다.

《1946년도의 해방구사업방침》(1945년 12월 15일)

군사훈련에 있어서 우리의 구호는《군관이 병사를 가르치며 병사가 군관을 가르치며 병사가 병사를 가르친다.》는것이다. 전사들은 많은 실제적전투경험을 가지고있다. 군관이 전사들에게서 배우고 다른 사람의

경험을 자기것으로 만들면 그의 능력은 커진다.

《진수일보 편집일군들과의 담화》
(1948년 4월 2일)

군사훈련과목은 여전히 사격, 총창술, 투탄 등 기술수준의 제고를 주로 하고 전술수준의 제고를 보조로 하여야 하며 특히 야간전투의 연습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1946년도의 해방구사업방침》
(1945년 12월 15일)

17.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자

우리는 겸손하고 신중하며 교만과 조급성을 삼가하고 성심성의로 중국인민을 위하여 복무하여야 한다.……

《중국의 두 운명》(1945년 4월 23일)

성심성의로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며 한시도 대중으로부터 리탈하지 않는것, 일체는 개인이나 소집단의 리익으로부터 출발하는것이 아니라 인민의 리익으로부터 출발하는것, 인민앞에 책임지는것과 당지도기관앞에 책임지는것이 일치한것—이것이 바로 우리의 출발점이다.

《련합정부에 대하여》(1945년 4월 24일)

국가기관은 민주주의중앙집권제를 실시하는바 국가기관은 반드시 인민대중에 의거하여야 하며 국가기관일군은 반드시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여야 한다.

《인민내부의 모순을 정확히 처리할 문제에 관하여》(1957년 2월 27일)

조금도 리기적이 아니고 오로지 남을 위하는 베쮼동지의 정신은 사업에 대한 그의 무한한 책임감에서, 동지와 인민에 대한 그의 무한한 사랑에서 표현되였다. 매개 공산당원들은 모두 그를 따라배워야 한다.

....

우리들은 조금도 사리사욕을 모르는 그의 정신을 따라배워야 한다. 이 정신에서 출발한다면 인민에게 아주 리로운 사람으로 될수 있다. 사람의 능력에는 크고 작은 구별이 있지만 오직 이러한 정신만 가진다면 그는 고상한 사람이며 순수한 사람이며 도덕적인 사람이며 저급한 취미에서 벗어난 사람이며 인민에게 유익한 사람이다.

《베쮼을 기념하여》(1939년 12월 21일)

우리 공산당과 공산당이 령도하는 팔로군, 신사군은 혁명대오이다. 우리의 이 대오는 전적으로 인민의 해방을 위하여 싸우며 철저히 인민의 리익을 위하여 사업하는 것이다.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자》(1944년 9월 8일)

우리의 모든 간부들은 그의 직위가 높든낮든간에 모두 인민의 근무원이며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다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어찌 좋지 못한것을 버리기 아까와하겠는가?

《1945년도의 과업》(1944년 12월 15일)

우리의 책임은 인민에 대하여 책임지는 것이다. 모든 언사, 모든 행동, 모든 정책은 반드시 인민의 리익에 부합되여야 하며

만일 과오가 있다면 반드시 시정하여야 한다. 이것이 바로 인민에 대하여 책임지는 것이다.

《항일전쟁승리후의 시국과 우리의 방침》(1945년 8월 13일)

분투하자면 희생이 있게 되며 사람이 죽는 일이 늘 생기게 된다. 그러나 인민의 리익을 생각하고 대다수인민의 고통을 생각할 때 우리가 인민을 위하여 죽는것은 값있는 죽음이다. 그러나 우리는 될수 있는한 불필요한 희생을 적게 내야 한다.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자》(1944년 9월 8일)

사람은 누구나 다 한번 죽는 법이지만 죽음의 의의는 같지 않다. 옛적에 중국의 문학가 사마천은《사람은 결국 한번 죽지만 죽음에는 태산보다 무거운 죽음도 있고 홍모보다 가벼운 죽음도 있다.》고 하였다. 인민의 리익을 위하여 죽는다면 그것은 태산보다 더 무거운 죽음이고 파쑈를 위하다가 죽거나 인민을 착취하고 억압하는자를 위하여 죽는다면 그것은 홍모보다 더 가벼운 죽음이다.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자》(1944년 9월 8일)

18. 애국주의와 국제주의

국제주의자인 공산당원이 동시에 또 애국주의자일수 있는가? 그럴수 있으며 응당 또 그래야 한다고 우리는 인정한다. 애국주의의 구체적내용은 력사적조건에 의하여 결정된다. 일본침략자와 히틀러의 《애국주의》가 있고 우리의 애국주의가 있다. 일본침략자와 히틀러의 소위 《애국주의》에 대하여 공산당원들은 견결히 반대하지 않으면 안된다. 일본공산주의자들과 독일공산주의자들은 자국전쟁에서의 패배주의자이다. 온갖 방법을 다하여 일본침략자와 히틀러의 전쟁을 패배로 끝나게 하는것은 일본인민과 독일인민의 리익이며 이러한 패배는 철저할수록 더욱 좋다. ……왜냐 하면 일본침략자와 히틀러의 전쟁은 세계인민을 해칠뿐만아니라 자국인민도 해치기때문이다. 중국의 정형은 이와 다르다. 중국은 피침략국이다. 그렇기때문에 중국의 공산주의자들은 애국주의와 국제주의를 결합시켜야 한다. 우리는 국제주의자인 동시에 또한 애국주의자이며 우리의 구호는 조국을 보위하고 침략자를 반대하여 싸우자는것이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패배주의는 죄악이며 항일의 승리를 쟁취하는것은 남에게 미룰수 없는 책임이다. 조국을 보위하기 위하여 싸워야만 침략자를 패배시키고 민족을 해방시킬수 있다. 민족이 해방을 얻어야만 프로레타리아트와 근로인민이 해방을 얻을수 있다. 중국이 승리하고 중국을 침략하는 제국주의자가 타도되면 이것은 동시에 외국인민들에 대한 원조로 된다. 그러므로 애국주의란 민족해방전쟁에서의 국제주의의 실시이다.

《민족전쟁에 있어서의 중국공산당의 지위》(1938년 10월)

한 외국사람으로서 추호도 리기적인 동기가 없이 중국인민의 해방사업을 자신의 사업처럼 하여왔으니 과연 이것은 어떠한

정신인가? 이것은 국제주의정신이며 공산주의정신이다. 중국공산당원들은 누구나 다 이러한 정신을 따라배워야 한다. ……우리는 모든 자본주의국가의 프로레타리아트와 단결하여야 하며 일본, 영국, 미국, 독일, 이딸리아 및 다른 모든 자본주의국가들의 프로레타리아트와 단결하여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만 제국주의를 타도하고 우리 민족과 인민을 해방하며 세계의 민족들과 인민들을 해방할수 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국제주의이다. 이것이 바로 협애한 민족주의와 협애한 애국주의를 반대하는 우리의 국제주의이다.

《베쮼을 기념하여》(1939년 12월 21일)

피압박인민들은 철저한 해방을 쟁취함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먼저 자신의 투쟁에 의거하며 그다음에야 국제적원조에 의거한다. 혁명의 승리를 달성한 인민들은 해방을 쟁취하고있는 인민들의 투쟁을 원조하여야 한다. 이것은 우리의 국제주의적의무이다.

아프리카의 벗들을 접견하였을 때 한 담화 (1963년 8월 8일)

사회주의국가는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국가이며 착취계급을 타도하고 근로인민이 권력을 장악한 국가이다. 이 국가들간의 호상관계에서는 국제주의와 애국주의를 통일시키는 원칙이 실현되고있다. 공동의 리익과 공동의 리상이 우리를 하나로 튼튼히 련결시키고있다.

《위대한 사회주의10월혁명 40주년 기념 쏘련최고쏘베트경축회의에서 한 연설》(1957년 11월 6일)

사회주의진영 제 국가인민들은 단결하여야 하며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제 국가인민들은 단결하여야 하며 세계 각 대륙 인민들은 단결하여야 하며 모든 평화애호국가들은 단결하여야 하며 미국의 침략과 통제와 간섭과 모욕을 당하고있는 모든 나라들은 단결하여야 한다. 단결하여 가장 광범

한 통일전선을 결성함으로써 미제의 침략과 전쟁정책을 반대하며 세계평화를 수호하여야 한다.

《빠나마인민의 정의의 반미애국 투쟁을 지지하여 발표한 담화》 (1964년 1월 12일)

사물은 항상 발전한다. 1911년의 혁명, 즉 신해혁명은 금년에 이르기까지 45년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중국의 면모는 완전히 달라졌다. 이제 45년이 더 지나 2001년, 즉 21세기에 들어서는 때이면 중국의 면모는 더욱 달라질것이다. 중국은 강대한 사회주의 공업국으로 될것이다. 중국은 마땅히 그렇게 되여야 한다. 중국은 960만평방키로의 땅과 6억 인구를 가진 나라인만큼 인류에 대하여 보다 크게 기여하여야 하는것이다. 그런데 이런 기여는 지난 오랜 시기에 걸쳐 너무나 적었다. 이에 대하여 우리는 부끄러움을 느낀다.

그러나 겸손하여야 한다. 지금 이러해야 할뿐만아니라 45년이후에도 이러해야 하며 영원히 이러해야 한다. 국제관계에 있어서 중국사람은 대국주의를 견결히, 철저히, 깨끗이, 모조리 청산하여야 한다.

《손중산선생을 기념하여》(1956년 11월)

우리는 거만한 대국주의적태도를 취하여서는 절대 안되며 혁명이 승리하였다 하여, 건설에서 약간의 성과를 달성하였다 하여 자고자대하여서는 절대 안된다. 큰 나라나 작은 나라나 모두 자기의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있다.

《중국공산당 제8차전국대표대회에서 한 개회사》(1956년 9월 15일)

19. 혁명적영웅주의

이 군대는 용감히 전진하는 정신을 가지고있으며 일체 적에게 절대 굴복하지 않고 적들을 압도할것이다. 그 어떤 간난신고속에서나 단 한사람이라도 남아있기만 하면 그 사람은 전투를 계속할것이다.

《련합정부에 대하여》(1945년 4월 24일)

용감하게 싸우며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피로를 겁내지 않으며 련속작전을 하는(즉 단기간내에 쉬지 않고 연거퍼 몇차례 싸움을 하는) 작풍을 발양하여야 한다.

《현정세와 우리의 과업》(1947년 12월 25일)

수천수만의 선렬들이 인민의 리익을 위하여 우리의 선두에서 영용하게 희생되였다. 우리는 그들의 기발을 높이 추켜들고 그

들의 피어린 발자국을 밟으며 전진하자!

《련합정부에 대하여》(1945년 4월 24일)

결의를 굳게 다지고 희생을 무릅쓰며 만난을 물리치고 승리를 전취하자.

《우공이 산을 옮겼다》(1945년 6월 11일)

……북벌전쟁이 바야흐로 발전하고있는 긴요한 시각에 중국인민의 해방위업을 대표하는 이 국공량당과 각계층인민의 민족통일전선 및 그의 모든 혁명적정책은 국민당당국의 반역적이며 반인민적인 《청당》정책과 학살정책에 의하여 파탄되고 말았다.…… 이때로부터 내전이 단결을 대체하였고 독재가 민주주의를 대체하였으며 암담한 중국이 광명한 중국을 대체하였다. 그러나 중국공산당과 중국인민은 결코 이에 질겁하지 않았고 정복당하지 않았으며 절멸당하지 않았다. 그들은 땅에서 다시 일어나 몸에 묻은 피를 씻어버리고 전우들의 시체를 묻은후 또다시 전투를 계속하였다. 그들은 혁명의

큰 기치를 높이 들고 무력적저항을 단행하였으며 중국의 광활한 지역에서 인민의 정부를 조직하였으며 토지제도의 개혁을 실시하였으며 인민의 군대—중국홍군을 창건하였으며 중국인민의 혁명력량을 보전하고 발전시켰다.

《련합정부에 대하여》(1945년 4월 24일)

동무들은 장점이 많고 공로도 크지만 교오자만해서는 안된다는것을 절대 명심하여야 한다. 동무들이 사람들에게서 존경을 받는것은 마땅한 일이지만 또한 이로 하여 교오자만하기 쉽다. 만일 동무들이 교오자만하여 허심하지 못하고 계속 노력하지 않으며 남을 존중하지 않고 간부를 존중하지 않고 대중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동무들은 영웅으로 될수 없으며 모범으로 될수 없다. 과거에 이러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동무들은 그러한 사람들을 본받지 말기를 바란다.

《경제사업을 배워야 한다》(1945년 1월 10일)

동무들은 적을 소멸하는 투쟁에서, 공농업생산을 복구발전시키는 투쟁에서 수많은 애로와 난관들을 극복하였으며 무비의 용감성과 지혜와 적극성을 발휘하였다. 동무들은 전체 중화민족의 모범들이며 모든 분야에서 인민위업의 승리적전진을 추동하는 핵심이며 인민정부의 믿음직한 기둥이며 인민정부와 광범한 대중을 련결시키는 교량이다.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를 대표하여 전국전투영웅과 로동모범 대표대회에서 한 축사(1950년 9월 25일)

우리 중화민족은 자기의 원쑤들과 끝까지 혈전할 기개를 가지고있으며 자력갱생의 기초우에서 빼앗겼던 모든것을 도로 찾을 결심을 가지고있으며 세계 제 민족의 대렬속에서 자립할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있다.

《일본제국주의를 반대하는 전술에 대하여》(1935년 12월 27일)

20. 근검하게 나라를 건설하자

우리 나라는 사회주의대국이지만 또한 경제적으로 락후한 빈궁한 나라인바 이것은 매우 큰 모순이라는것을 전체 간부와 전체 인민들이 항상 념두에 두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 나라를 부강하게 하려면 수십년동안 간고분투하여야 하는데 그중에는 절약을 엄격히 실시하며 랑비를 반대하는, 즉 근검하게 나라를 건설하는 방침을 실시하는것도 포괄되여있다.

《인민내부의 모순을 정확히 처리할 문제에 관하여》(1957년 2월 27일)

근검하게 공장을 운영하며 근검하게 상점을 운영하며 근검하게 모든 국영경리와 협동경리를 운영하며 근검하게 모든 기타 사업

들을 운영하며 무슨 일에서나 모두 근검하게 하는 원칙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것이 바로 절약의 원칙이다. 절약은 사회주의경제의 기본원칙의 하나이다. 중국은 큰 나라이지만 아직은 매우 가난한만큼 중국을 부강하게 하자면 수십년의 시일이 걸려야 한다. 수십년이후에도 근검하게 하는 원칙을 실시하여야 하지만 그러나 근검할것을 특히 장려하고 절약에 특히 주의를 돌려야 할 시기는 지금의 이 수십년동안이며 지금의 이 몇차의 5개년계획기간이다.

《근검하게 합작사를 운영하였다》에 대한 평어 (1955년)

어떠한 지방에서나 인력과 물력을 극력 아껴야 하며 결코 눈앞의 일만 생각하고 람용하며 랑비하여서는 안된다. 어떠한 지방에서나 사업을 시작하는 첫해부터 장래의 여러해동안에 할 일을 타산하여야 하며 장기간 전쟁을 계속할것을 타산하여야 하며 반공격을 타산하여야 하며 적을 몰아낸후에 진행할 건설을 타산하여야 한다. 절대 람용

하거나 랑비하지 말아야 하는 한편 생산을 힘써 발전시켜야 한다. 지난날 일부 지방들에서는 장기타산이 부족하여 인력과 물력의 절약에도 주의를 돌리지 않았고 생산의 발전에도 주의를 돌리지 않아 큰 손실을 보았다. 이러한 교훈을 살려 이제부터 반드시 주의를 돌려야 한다.

《경제사업을 배워야 한다》(1945년 1월 10일)

농업생산과 소도시의 공업생산을 급속히 복구발전시키기 위하여서는 봉건제도를 소멸하는 투쟁에서 사용할수 있는 모든 생산수단과 생활자료를 최대한으로 보존하기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대책을 강구하여 생산수단과 생활자료에 대한 그 어떤 사람의 파괴와 랑비든지 단호히 반대하며 맹탕 먹고 마시는것을 반대하며 절약에 주의를 돌려야 한다.

《산서-수원해방구간부회의에서 한 연설》(1948년 4월 1일)

재정지출에 있어서는 절약의 방침을 관철하여야 한다. 모든 정부일군들에게 탐오와 랑비는 매우 큰 범죄라는것을 인식시켜야 한다. 탐오와 랑비를 반대하는 투쟁에서 지금까지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으나 앞으로 계속 노력하지 않으면 안된다. 전쟁과 혁명위업을 위하여, 우리의 경제건설을 위하여 동전 한잎이라도 더 절약하는것이 우리의 회계제도의 원칙이다.

《우리의 경제정책》(1934년 1월 23일)

지금 우리의 많은 일군들가운데서 대중과 고락을 같이하려 하지 않고 개인의 명예와 리득을 잘 따지는 위험한 경향이 자라나고있는데 이것은 매우 좋지 못하다. 우리가 증산절약운동에서 기구를 간소화하고 간부를 아래로 내려보냄으로써 상당히 많은 간부들을 생산분야에로 돌릴것을 요구하는 것은 이런 위험한 경향을 극복하는 방법의 하나이다.

《인민내부의 모순을 정확히 처리할 문제에 관하여》(1957년 2월 27일)

군대의 생산자급은 생활을 개선하였고 인민들의 부담을 덜었으며 이때문에 군대를 확대할수 있게 하였을뿐만아니라 또 즉시로 많은 부산물들을 가져왔다. 그 부산물이란 다음과 같은것들이다. (1) 관병관계가 개선되였다. 장병들은 생산로동을 같이하면서 형제와 같이 친근하여졌다. (2) 로동관념이 강화되였다. ……생산자급을 하게 된이래 로동관념이 강화되였으며 건달군습성이 고쳐졌다. (3) 규률성이 강화되였다. 생산과정에서 로동규률을 집행하는것은 전투규률 및 군인의 생활규률을 약화시키지 않을뿐만아니라 반대로 그것을 강화하게 된다. (4) 군민관계가 개선되였다. 부대가 제 살림을 가지게 되자 인민들의 재물을 침해하는 일이 적어졌거나 전혀 없어졌다. 생산과정에서 군대와 인민이 로력을 교환하여 호상협조하는데서 그들간의 친선관계가 일층 강화되였다. (5) 군대가 정부를 원망하는 일이 적어졌으며 군대와 정부간의 관계도 좋아졌다. (6) 인민들의 대생산운동이

촉진되였다. 군대가 생산에 종사함에 따라 기관에서 생산에 종사할 필요성이 더욱 뚜렷하여지고 열의가 더욱 높아졌으며 전체 인민의 보편적인 증산운동도 자연히 그 필요성이 더욱 뚜렷하여지고 열의가 더욱 높아졌다.

《군대에서의 생산자급에 대하여서와 정풍 및 생산 2대운동의 중요성에 대하여》(1945년 4월 27일)

어떤 사람들은 부대가 생산에 종사하면 전투와 훈련을 할수 없으며 기관이 생산에 종사하면 사업을 할수 없다고 말한다. 이렇게 말하는것은 옳지 못하다. 최근년간 우리 변구의 부대들은 대량적인 생산에 종사하여 먹고 입을것을 풍족하게 한 동시에 군사훈련도 하고 정치문화학습도 하였는데 이전보다 더 큰 성과를 거두었으며 군대내부의 단결, 군대와 인민간의 단결도 이전보다 더 좋아졌다. 전방에서는 작년 한해동안에 대규모적생산운동을 진행하였으나 전투에서도 매우 큰 성과를 거두었으며 군사훈련운

동도 보편적으로 시작하였다. 기관들에서 생산에 종사하였기때문에 기관일군들은 생활이 개선되였고 사업에 더욱 안착하게 되였으며 사업능률이 더욱 올라갔다. 변구에서나 전방에서나 모두 이러하다.

《경제사업을 배워야 한다》(1945년 1월 10일)

21. 자력갱생, 간고분투

우리의 방침은 무엇에 기초하여야 하는가? 자체의 력량에 기초하여야 한다. 이것을 자력갱생이라고 한다. 우리는 결코 고립되여있지 않다.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전세계의 모든 나라와 인민은 모두 우리의 벗이다. 그러나 우리는 자력갱생을 강조한다. 우리는 자기가 조직한 력량에 의거하여 국내외의 일체 반동들을 타승할수 있다.

《항일전쟁승리후의 시국과 우리의 방침》(1945년 8월 13일)

우리는 자력갱생을 주장한다. 우리는 외국의 원조를 요하기는 하지만 그것에 의존하여서는 안된다. 우리는 자체의 노력에 의거하며 전체 군대와 인민들의 창조적힘에 의거한다.

《경제사업을 배워야 한다》(1945년 1월 10일)

전국적승리의 전취, 이것은 만리장정에 첫걸음을 내디딘데 불과하다. ……중국의 혁명은 위대하다. 그러나 혁명이후의 로정이 더욱 길며 그 사업이 더욱 위대하고 더욱 간고하다. 이 점을 지금 당내에 명백히 말해주어야 하며 동지들로 하여금 모름지기 겸손하고 신중하고 교만하지 않고 조급해하지 않는 작풍을 계속 확보하게 하며 간고분투하는 작풍을 계속 확보하게 하여야 한다.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제7기제 2차전원회의에서 한 보고》(1949년 3월 5일)

간부들가운데는 자기가 간고분투하지 않고, 피와 땀을 흘리지 않고 의외의 편리나 요행에 의하여 승리를 얻우려는 심리가 있는데 이러한것은 깨끗이 숙청하여야 한다.

《튼튼한 동북근거지를 창설하자》(1945년 12월 28일)

우리는 세계의 진보하는 정형과 광명한 전도를 항상 인민들에게 선전함으로써 그들

이 승리의 신념을 가지도록 하여야 한다. 동시에 전진도상에는 굴곡이 있다는것도 인민들에게 알려주며 동지들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혁명의 길에는 아직 많은 장애물이 있고 많은 곤난이 있다. 우리 당 7차대표대회에서는 많은 곤난들을 예상하였다. 우리는 곤난을 적게 예상하기보다는 차라리 많이 예상하는 편이 나은것이다. 어떤 동지들은 곤난에 대해 많이 생각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나 곤난이 있는것은 사실인만큼 있으면 있는대로 승인하여야 하지 《불승인주의》를 취하여서는 안된다. 우리는 곤난을 승인하며 곤난을 분석하며 곤난과 싸워야 한다. 세상에는 곧은 길이 없는만큼 편의만 탐하지 말고 굽은 길을 걸을 준비를 하여야 한다. 그 어느날 아침에 모든 반동들이 죄다 저절로 땅에 무릎을 꿇리라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요컨대 전도는 광명하나 전진도상에는 굴곡이 있다. 우리앞에는 곤난이 아직 많으므로 홀시하여서는 안된다. 우리가 전체 인민과 단결하여 다같이 노력한다면 반드시 만난을

물리치고 승리를 달성할수 있을것이다.

《중경담판에 관하여》(1945년 10월 17일)

광명한 면만 보고 곤난한 면을 보지 않는 사람은 당적과업의 실현을 위하여 성과적으로 투쟁할수 없다.

《련합정부에 대하여》(1945년 4월 24일)

사회적부는 로동자, 농민 및 근로지식인들에 의하여 창조되는것이다. 오직 이들이 자기의 운명을 지배하고 또 맑스-레닌주의적로선을 걸으며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적극적인 태도로 해결하기만 한다면 세상의 그 어떤 곤난이라도 해결할수 있을것이다.

《서기가 앞장서고 전당적으로 합작사를 꾸렸다》에 대한 평어 (1955년)

전체 당원동지들은 모든 곤난을 충분히 예견하여야 하며 또 백절불굴의 강의성으로써 계획적으로 모든 곤난을 극복할 준비를 하여야 한다. 반동세력앞에나 우리앞에나

곤난은 다 있다. 그러나 반동세력의 곤난은 극복할수 없는것이다. 왜냐 하면 그들은 거의 죽어가는, 전도가 없는 세력이기때문이다. 우리의 곤난은 극복할수 있는것이다. 왜냐 하면 우리는 광명한 전도를 가진 신흥세력이기때문이다.

《중국혁명의 새 고조를 맞이하자》(1947년 2월 1일)

우리 동지들은 곤난한 시기이면 성과에 눈을 돌리고 광명을 내다보며 우리의 용기를 북돋우어야 한다.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자》(1944년 9월 8일)

어떠한 신생사물의 성장이나 다 간난곡절을 거치게 된다. 사회주의위업에서 간난곡절을 거치지 않고 또 큰 노력을 들이지 않고 언제나 순풍에 돛을 단듯이 손쉽게 성공할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러한 생각은 환상에 지나지 않는다.

《인민내부의 모순을 정확히 처리할 문제에 관하여》(1957년 2월 27일)

혁명투쟁의 어떤 시기에는 곤난한 조건이 순조로운 조건을 압도하는데 이런 때에는 곤난이 모순의 주요측면으로 되고 순조로운것이 부차적측면으로 된다. 그러나 혁명자들은 자기의 노력에 의하여 곤난을 점차로 극복하고 순조로운 새 국면을 열어놓음으로써 곤난한 국면이 순조로운 국면에 자리를 내주게 할수 있다.

《모순론》(1937년 8월)

사업이란 무엇인가? 사업이란 곧 투쟁이다. 그곳에 곤난이 있고 문제가 있으므로 우리가 가서 해결해야 한다. 우리는 곤난을 해결하기 위하여 사업하러 가며 투쟁하러 가는것이다. 곤난한 곳일수록 더 가려고 하는 사람이야말로 훌륭한 동지이다.

《중경담판에 관하여》(1945년 10월 17일)

옛날 중국에는 《우공이 산을 옮겼다》는 우화가 있었는데 그 이야기는 이러하다. 옛날 화북지방에 북산 우공이라고 하는 로인이 살고있었다. 그의 집남쪽에는 두개의 큰 산이 드나드는 길을 가로막고있었다. 그 하나는 태항산이라 하였고 또 하나는 왕옥산이라 하였다. 우공은 자기의 아들들을 데리고 이 두 큰 산을 괭이로 파없애려고 결심하였다. 그런데 지수라고 하는 령감이 이것을 보고 비웃으면서 당신들은 너무나 어리석은짓을 하오, 당신들 부자 몇이서 이렇게 큰 산 두개를 파없애려는것은 전혀 되지도 않을 일이요라고 말하였다. 이 말을 들은 우공은 내가 죽으면 아들이 있고 아들이 죽으면 또 손자가 있을것이니 자자손손은 끝이 없는것이요, 이 두 산이 높기는 하지만 이 이상 더 높아질리는 없는거요, 파내면 파낸것만큼 줄어질텐데 왜 파없애지 못한단 말이요 하고 대답하였다. 우공은 지수의 그릇된 생각을 반박하고 조금도 동요없이 매일 산을 팠다. 이 일은 하느님을 감동시키게 되여 하느님은 두 신선을 인간세상에 내려보내여 두 산을 다른데로 옮겨가게 하였다. 오늘날 역시 두개의 큰 산이 중국인민의 머리를 짓누르고

있는데 그 하나는 제국주의라는 산이고 또 하나는 봉건주의라는 산이다. 중국공산당은 이 두 산을 파없애려고 일찍 결심을 내렸다. 우리는 반드시 견지하여야 하며 계속 부단히 사업하여야 한다. 그러면 우리도 하느님을 감동시키게 될것이다. 이 하느님은 다름아닌 전중국의 인민대중이다. 전국의 인민대중이 한결같이 일떠나 우리와 함께 이 두 산을 파낸다면 파없애지 못할리가 있겠는가?

《우공이 산을 옮겼다》(1945년 6월 11일)

22. 사상방법과 사업방법

인류의 력사는 바로 필연의 왕국으로부터 자유의 왕국에로 부단히 발전하는 력사이다. 이 력사는 영원히 끝나지 않을것이다. 계급이 존재하는 사회에서는 계급투쟁이 종식되지 않는다. 계급이 존재하지 않는 사회에서도 새것과 낡은것, 옳은것과 그른것간의 투쟁은 영원히 종식되지 않을것이다. 생산투쟁과 과학실험의 분야에서 인류도, 자연계도 언제나 부단히 발전하며 영원히 한 수준에 머물러있지 않을것이다. 그러므로 인류는 부단히 경험을 총화하여 발견하며 발명하며 창조하며 전진해야 한다. 정지의 론점, 비관의 론점, 무위무능과 교오자만의 론점들은 모두 그릇된것이다. 그것이 그릇된 까닭은 이 론점들이 약 백만년이래의 인류사회발전의 력사적사실에 부합되지 않으

며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있는 자연계(례를 들면 천체사, 지구사, 생물사, 기타 여러 가지 자연과학사들에 의하여 반영된 자연계)의 력사적사실에도 부합되지 않기때문이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제3기제1차회의에서 한 주은래총리의 정부사업보고》에서 (1964년 12월 31일)

자연과학은 자유를 전취하기 위한 무기의 하나이다. 사회에서 자유를 얻으려면 사람들은 사회과학을 리용하여 사회를 료해하고 사회를 개조하고 사회혁명을 진행하여야 한다. 자연계에서 자유를 얻으려면 사람들은 자연과학을 리용하여 자연을 료해하고 자연을 정복하고 자연을 개조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야 자연으로부터 자유를 전취할수 있다.

변구자연과학연구회창립대회에서 한 연설 (1940년 2월 5일)

맑스주의철학인 변증법적유물론에는 두개의 가장 뚜렷한 특징이 있다. 하나는 그의 계급성으로서 변증법적유물론은 프로레

타리아트에 복무한다는것을 공공연하게 언명하는것이며 다른 하나는 그의 실천성으로서 실천에 대한 리론의 의존관계, 즉 리론의 기초는 실천인 동시에 리론은 다시 또 실천에 복무한다는것을 강조하는것이다.

《실천론》(1937년 7월)

맑스주의철학이 아주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문제는 객관적세계의 합법칙성을 알고 세계를 해석하는데 있는것이 아니라 객관적 합법칙성에 대한 그러한 인식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세계를 개조하는데 있다.

《실천론》(1937년 7월)

인간의 정확한 사상은 어디서 오는가? 하늘에서 떨어지는가? 아니다. 자기의 두뇌속에 고유한것인가? 아니다. 인간의 정확한 사상은 오직 사회적실천에서 오며 오직 사회적 생산투쟁과 계급투쟁과 과학실험의 이 세가지 실천에서 오는것이다.

《인간의 정확한 사상은 어디서 오는가?》(1963년 5월)

인간의 사회적존재가 인간의 사상을 결정한다. 선진적계급을 대표하는 정확한 사상은 일단 대중에게 파악되기만 하면 사회를 개조하고 세계를 개조하는 물질적력량으로 전화된다.

《인간의 정확한 사상은 어디서 오는가?》(1963년 5월)

인간은 사회적실천에서 여러가지 투쟁에 종사하여 풍부한 경험을 쌓게 되는데 그중에는 성공한 경험도 있고 실패한 경험도 있다. 무수한 객관적외계의 현상이 사람의 눈, 귀, 코, 혀, 피부의 오관을 통하여 두뇌에 반영되는데 그것이 시초에는 감성적인식을 이룬다. 이러한 감성적인식의 재료가 많이 축적되면 비약이 일어나 리성적인식으로 전화되는데 이것이 곧 사상이다. 이것은 하나의 인식과정이다. 이것은 인식과정전체의 제1단계, 즉 객관적물질로부터 주관적정신에 이르는 단계이며 존재로부터 사상에 이르는 단계이다. 이때에는 정신, 사상(리론, 정책, 계획, 방법을 포함)이 객관적외계의 법칙을 옳게 반영하였는가 어떤가가 아직 실증되지 않았고 그것이 정확한가 어떤가를 아직 확정할수 없다. 그다음에 또 인식과정의 제2단계, 즉 정신으로부터 물질에 이르는 단계, 사상으로부터 존재에 이르는 단계가 있게 되는데 여기서는 제1단계에서 얻은 인식을 사회적실천에 옮겨 그러한 리론, 정책, 계획, 방법 등등이 소기의 성공을 가져오는가 어떤가를 보게 된다. 일반적으로 말하여 성공하였다면 옳은것이고 실패하였다면 틀린것이다. 인류의 자연과의 투쟁에 있어서는 특히 그러하다. 사회적투쟁에 있어서 선진적계급을 대표하는 세력이 때로는 약간의 실패를 당하기도 하는데 그것은 사상이 그릇되였기때문이 아니라 투쟁력량대비에서 선진세력측이 당분간 반동세력측보다 약하기때문이다. 그러므로 일시적으로 실패를 당한것이다. 그러나 나중에는 꼭 성공하고야 마는것이다. 인간의 인식은 실천의 시련을 거쳐 또 한번 비약이 일어난다. 이번 비약은 전번 비약보다 의의

가 더 큰것이다. 왜냐 하면 오직 이번 비약만이 인식의 제1차비약, 즉 객관적외계의 반영과정에서 얻은 사상, 리론, 정책, 계획, 방법 등등이 도대체 옳은가 틀렸는가 하는것을 실증할수 있고 이밖에는 진리를 검증하는 다른 방법이 없기때문이다.

《인간의 정확한 사상은 어디서 오는가?》(1963년 5월)

정확한 인식은 흔히 물질로부터 정신에로, 정신으로부터 물질에로 즉 실천으로부터 인식에로, 인식으로부터 실천에로, 이렇게 여러번 반복하여서야 비로소 완성된다. 이것이 맑스주의의 인식론이며 변증법적유물론의 인식론이다.

《인간의 정확한 사상은 어디서 오는가?》(1963년 5월)

누구든지 어떤 사물을 인식하려면 그 사물과 접촉하지 않고는, 즉 그 사물의 환경속에서 생활(실천)하지 않고는 인식할 방법이 없다. ……지식을 얻으려면 현실을 변혁하는 실천에 참가하여야 한다. 배의 맛을 알려면 배를 변혁시켜야 한다. 즉 직접 먹어보아야 한다. ……혁명의 리론과 방법을 알려면 혁명에 참가하여야 한다. 모든 참된 지식은 직접적경험에서 나오는것이다.

《실천론》(1937년 7월)

인식은 실천으로부터 시작되며 실천을 통하여 리론적인식에 도달한 다음 다시 실천으로 돌아가야 한다. 인식의 능동적작용은 감성적인식으로부터 리성적인식에 이르는 능동적비약에서 나타날뿐만아니라 더욱 중요하게는 리성적인식으로부터 혁명적실천에 이르는 이 비약에서 나타나야 한다.

《실천론》(1937년 7월)

다 아는바와 같이 무슨 일을 하든지간에 그 일의 정형, 그 일의 성질, 그 일과 다른 일과의 련관성을 모른다면 그 일의 법칙을 알수 없고 어떻게 그 일을 할것인가를 알수 없으며 그 일을 잘할수 없다.

《중국혁명전쟁의 전략문제》(1936년 12월)

사람들이 사업의 승리를 얻으려면, 즉 예상하였던 결과를 얻으려면 반드시 자기의 사상을 객관적외계의 합법칙성에 부합되게 하여야 한다. 만일 부합되지 않으면 실천에서 실패하게 될것이다. 사람들은 실패한후에 그 실패에서 교훈을 얻어 자기의 사상을 시정하여 그것을 외계의 합법칙성에 부합되게 하면 실패를 승리로 전화시킬수 있다. 소위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실패를 당하면 지혜도 는다.》고 하는것은 바로 이런 리치를 말하는것이다.

《실천론》(1937년 7월)

우리는 맑스주의자로서 맑스주의는 우리에게 문제를 고찰함에 있어서 추상적인 정의로부터 출발할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사실로부터 출발하며 이러한 사실들을 분석하는가운데서 방침, 정책, 방법을 찾아낼것을 교시하고있다.

《연안문예좌담회에서 한 연설》
(1942년 5월)

실정에 따라 사업방침을 결정하는 이것은 모든 공산당원들이 명심하지 않으면 안될 가장 기본적인 사업방법이다. 우리가 범한 오유는 그 발생원인을 연구하여본다면 모두다 그때 그곳의 실정을 떠나 주관적으로 자기의 사업방침을 결정한데서 생긴것이다.

《산서-수원해방구간부회의에서 한 연설》(1948년 4월 1일)

세상에서 제일 공력이 들지 않는것은 관념론과 형이상학뿐이다. 왜냐 하면 그것은 사람들이 아무렇게나 헛소리를 쳐도 되며 객관적실제에 근거하지 않아도 되며 객관적실제의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기때문이다. 유물론과 변증법은 객관적실제에 근거하며 객관적실제의 검사를 받아야 하므로 공력을 들여야 한다. 공력을 들이지 않으면 관념론과 형이상학에 빠지게 된다.

《호풍반혁명집단에 관한 자료》에 대한 평어 (1955년 5월)

우리는 사물을 관찰함에 있어서 그 본질을 보아야 하며 그 현상은 입문의 길잡이로만 보고 문안에 들어서면 곧 그 본질을 파악하여야 한다. 이것만이 믿음직한 과학적분석방법이다.

《한점의 불꽃도 료원의 불길로 타오른다》(1930년 1월 5일)

사물발전의 근본원인은 사물의 외부에 있는것이 아니라 사물의 내부에 있으며 사물에 내재하는 모순성에 있다. 어떠한 사물에나 그 내부에는 모두 이런 모순성이 있는바 이때문에 사물은 운동하며 발전한다. 사물에 내재하는 이런 모순성이 사물발전의 근본원인이며 한 사물과 다른 사물과의 호상련관 및 호상영향은 사물발전의 2차적원인이다.

《모순론》(1937년 8월)

유물변증법은, 외적원인은 변화의 조건이고 내적원인은 변화의 근거이며 외적원인은 내적원인을 통하여 작용한다고 인정한다. 계란은 적당한 온도를 받으면 병아리로 변하지만 온도가 돌멩이를 병아리로 변하게 할수는 없다. 그것은 량자의 근거가 같지 않기때문이다.

《모순론》(1937년 8월)

맑스주의철학은 대립면의 통일의 법칙을 우주의 근본적법칙으로 인정한다. 이 법칙은 자연계에나 인류사회에나 사람들의 사상에나 다 보편적으로 존재한다. 모순되는 대립적측면은 통일되여있는 동시에 투쟁도 하는바 이로 하여 사물의 운동 및 변화가 추동된다. 모순은 보편적으로 존재하는것이지만 사물의 성질이 다름에 따라 모순의 성격도 달라진다. 매개의 구체적사물을 놓고 말할 때 대립면의 통일은 조건적이고 일시적이고 과도적이며 따라서 상대적인것이고 대립면의 투쟁은 절대적인것이다.

《인민내부의 모순을 정확히 처리할 문제에 관하여》(1957년 2월 27일)

분석의 방볍이란 변증볍적방볍이다. 분석이란 사물의 모순에 대한 분석을 말한다. 생활을 잘 모르고서는, 론의하고있는 모순을 진정으로 리해하지 못하고서는 알맞는 분석을 가할수 없다.

《중국공산당 전국선전사업회의에서 한 연설》(1957년 3월 12일)

레닌은 구체적정세에 대한 구체적분석은《맑스주의의 가장 본질적인것, 맑스주의의 산 정신》이라고 말하였다. 우리의 많은 동지들은 분석하는 정신이 부족한 탓으로 복잡한 사물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깊이 파고들어가 분석연구하려 하지 않고 절대적으로 긍정하거나 절대적으로 부정하는 간단한 결론을 내리기 좋아한다. ……앞으로는 이러한 상태를 개변하여야 한다.

《학습과 시국》(1944년 4월 12일)

이러한 동지들은 문제를 보는 방볍이 옳지 못하다. 그들은 문제의 본질면과 주류면을 보지 않고 비본질면과 비주류면을

강조한다. 비본질면, 비주류면의 문제도 홀시하여서는 안되며 반드시 하나하나 해결해나가야 하지만 그러나 이러한것들을 본질로, 주류로 보고 자기의 나아갈 방향을 잃어서는 안된다는것을 지적하여야 하겠다.

《농업협동화문제에 관하여》(1955년 7월 31일)

세상일은 복잡한것이며 여러 면의 요인에 의하여 결정되는것이다. 문제를 관찰하는데는 여러 면으로 관찰하여야 하지 한면으로만 관찰하여서는 안된다.

《중경담판에 관하여》(1945년 10월 17일)

다만 주관적으로, 일면적으로, 표면적으로 문제를 보는 사람만이 어느 곳에 가든지 환경여하를 불문하고 일의 전체(일의 력사 및 그 현재의 전반 형편)를 돌보지 않고 일의 본질(일의 성질 및 이 일과 다른 일과의 내부적련계)을 다쳐보지도 않고 스스로 옳다고 여기면서 호령하고 명령한다. 이

와 같은 사람은 실패하지 않는 일이 없다.

《실천론》(1937년 7월)

문제를 연구함에 있어서는 주관성, 일면성, 표면성을 피하여야 한다. 소위 주관성이란 객관적으로 문제를 볼줄 모르는, 즉 유물론적인 견지에서 문제를 볼줄 모르는것이다. 이 점에 대하여 나는《실천론》에서 이미 말하였다. 소위 일면성이란 전면적으로 문제를 볼줄 모르는것이다. ……혹은 부분만 보고 전체를 보지 못하며 나무만 보고 수풀을 보지 못하는것이라고도 한다. 이렇게 해서는 모순을 해결하는 방볍을 찾아낼수 없으며 혁명의 과업을 완수할수 없으며 맡은바 사업을 잘할수 없으며 당내의 사상투쟁을 옳게 전개할수 없다. 손자는 군사를 론하면서《상대편을 알고 자기를 알면 백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고 말하였는데 이것은 작전하는 쌍방을 말한것이다. 당조때의 사람 위징은《량쪽 말을 다 들으면 밝고 한쪽 말만 들으면 어둡다.》고 말하였는데 그도

역시 일면성이 옳지 않음을 알고있었다. 그런데 우리 동지들은 문제를 흔히 일면적으로 본다. 이러한 사람들은 흔히 실패한다. ……레닌은《대상을 참으로 알기 위해서는 그 모든 측면, 모든 련관 및 〈매개〉를 파악, 연구하지 않으면 안된다. 우리는 이러한 완전성에는 결코 도달하지 못할것이다. 그러나 전면성의 요구는 우리로 하여금 오유와 경화를 면케 할것이다.》라고 말하였다. 우리는 이 말을 명심하여야 한다. 표면성은 모순의 총체와 모순의 제 측면의 특성을 보지 않으며 사물속에 깊이 들어가 모순의 특성을 세밀하게 연구할 필요성을 부인하고 다만 멀직이 서서 바라보다가 모순의 형상을 대강 보고는 모순을 해결하려고(문제에 대답하며 분쟁을 해결하며 사업을 처리하며 전쟁을 지휘하려고) 시도하는것이다. 이렇게 하여서는 일을 망치지 않을수 없다. ……일면성, 표면성도 역시 주관성이다. 일체 객관적사물은 본래 서로 련관되여있고 내적볍칙을 가지고있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사람들은 이러한 정형을 여실히 반영하지 않고 그것을 단지 일면적으로 또는 표면적으로만 보며 사물의 호상련관을 인식하지 않으며 사물의 내적법칙을 인식하지 않는다. 그렇기때문에 이러한 방법은 주관주의적방법이다.

《모순론》(1937년 8월)

일면성이란 사상상에서 절대화하는것, 즉 형이상학적으로 문제를 보는것이다. 우리 사업에 대한 견해에 있어서 일체를 긍정하거나 일체를 부정하는것은 다 일면적인것이다. ……일체를 긍정한다는것은 좋은것만 보고 나쁜것을 보지 못하는것이며 찬양만 해야 하고 비판해서는 안된다는것이다. 마치 우리의 모든 사업이 다 잘되고있는듯이 말하는것은 사실에 부합되지 않는다. 모든것이 다 잘되고있는것이 아니라 결함과 오유도 있다. 그러나 모든것이 다 잘못되고있는것도 아니다. 그렇게 말하는것도 사실에 부합되지 않는다. 분석해보아야 한다. 일체를 부정한다는것은 아무런 분석도 없이 모든 일이 다 잘못되고있는듯이 여기며 사회주의건설이란 이 위대한 사업을, 수억 인민이 진행하고있는 이 위대한 투쟁을 잘된것이란 하나도 없는 란장판처럼 생각하는것이다. 이러한 견해를 가지고있는 많은 사람들은 비록 사회주의제도에 대하여 적의를 품고있는자들과는 다르지만 그러나 그러한 견해는 대단히 그릇된것이고 해로운것이다. 그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신심을 잃게 할뿐이다. 일체를 긍정하는 견해로나 또는 일체를 부정하는 견해로 우리의 사업을 대하는것은 모두다 잘못이다.

《중국공산당 전국선전사업회의에서 한 연설》(1957년 3월 12일)

맑스주의자는 문제를 관찰할 때에 부분만 볼것이 아니라 전체를 보아야 한다. 우물안의 개구리가 《하늘이 우물만하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옳지 않다. 왜냐하면 하늘은 우물에 비할바가 아니기때문이다. 만일 《하늘의 어느 한부분이 우물만하다.》고 말

한다면 그것은 옳다. 왜냐 하면 이것은 사실에 부합되기때문이다.

《일본제국주의를 반대하는 전술에 대하여》(1935년 12월 27일)

우리는 문제를 전면적으로 볼줄 알아야 한다. 사물의 긍정적인 면을 보아야 할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면도 보아야 한다. 일정한 조건하에서는 나쁜것이 좋은 결과를 가져올수도 있고 좋은것이 나쁜 결과를 가져올수도 있다.

《인민내부의 모순을 정확히 처리할 문제에 관하여》(1957년 2월 27일)

우리는 전체적인 력사발전에서는 물질적인것이 정신적인것을 결정하며 사회적존재가 사회적의식을 결정한다는것을 승인하지만 동시에 또 정신적인것의 반작용, 사회적존재에 대한 사회적의식의 반작용, 토대에 대한 상부구조의 반작용도 승인하며 또 반드시 승인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것은 유물론을 위반하는것이 아니라 바로 기계적유물론을 배격하고 변증법적유물론을 견지하는것이다.

《모순론》(1937년 8월)

전쟁을 지도하는 사람들이 객관적조건이 허락하는 한도를 벗어나서 전쟁의 승리를 기할수는 없으나 객관적조건의 한도내에서는 전쟁의 승리를 능동적으로 쟁취할수 있으며 또한 쟁취하여야 한다. 전쟁 지휘원들의 활동무대는 반드시 객관적조건이 허락하는 기초우에 설치되여야 하지만 그들은 이 무대우에서 다채롭고도 웅장한 수많은 극을 연출할수 있다.

《지구전에 대하여》(1938년 5월)

사람의 사상은 반드시 변화된 정세에 적응되여야 한다. 물론 근거없는 얼뜬 생각을 하거나 객관세계가 허락하는 조건을 초월하여 자기의 행동을 계획해서는 안되며 전혀 해낼 가망이 없는 일을 억지로 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오늘의 문제는 의연히 우경

보수사상이 여러 분야에서 해독을 끼쳐 여러 분야의 사업들을 객관정세의 발전에 적응될수 없게 하고있는 문제이다. 오늘의 문제는 노력만 하면 할수 있는 일도 많은 사람들이 할수 없다고 생각하고있는데 있다.

《중국농촌에서의 사회주의고조》
의 서언 (1955년 12월 27일)

무슨 일이나 머리를 써서 잘 생각하여야 한다. 속담에 《량미간을 좁히면 꾀가 생긴다.》는 말이 있다. 이것은 많이 생각하면 지혜가 생긴다는 말이다. 우리 당내에 있는 농후한 맹목성을 제거하기 위하여서는 사색할것을 창도하며 사물을 분석하는 방법을 배우며 분석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학습과 시국》 (1944년 4월 12일)

어떤 과정이든지 만일 거기에 많은 모순이 존재한다면 반드시 그중의 한 모순은 주도적이며 결정적인 역할을 노는 주요한 모순이고 기타의 모순은 부차적이며 종속적인 지위에 처하는것이다. 그렇기때문에 어떠한 과정을 연구하든지 그것이 만약 두가

지이상의 모순이 존재하는 복잡한 과정이라면 전력을 다하여 그 주요모순을 찾아내야 한다. 이 주요모순을 파악하면 일체 문제가 순순히 풀린다.

《모순론》 (1937년 8월)

모순되는 두 측면가운데서 반드시 한 측면은 주요한것이고 다른 측면은 부차적인것이다. 그 주요한 측면은 모순의 주도적역할을 노는 측면이다. 사물의 성질은 주로 지배적지위를 차지하고있는 모순의 주요한 측면에 의하여 규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정형은 고정적인것이 아니다. 모순의 주요측면과 주요하지 않은 측면은 서로 전화하며 사물의 성질도 이에 따라서 변화한다.

《모순론》 (1937년 8월)

우리는 임무를 제기할뿐만아니라 또 그것을 수행하기 위한 방법문제도 해결하여야 한다. 우리의 임무가 강을 건느는것이라고 할 때 다리가 없거나 배가 없이는 건늘수

없을것이다. 다리문제나 배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강을 건너간다는것은 빈말이다. 방법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임무라는것도 역시 헛소리에 지나지 않는다.

《대중의 생활에 관심을 돌리며 사업방법에 주의를 돌리자》(1934년 1월 27일)

어떠한 사업임무에 있어서나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호소가 없이는 광범한 대중을 그 수행에로 동원할수 없다. 그러나 만일 일반적인 호소에만 그치고 지도일군들이 자기가 호소한 사업을 약간의 조직들에서 구체적으로, 직접적으로 실속있게 실시하여 한 점을 돌파하고 경험을 얻은후 그 경험으로 다른 단위들을 지도하지 않는다면 자기가 제기한 일반적호소의 정확여부를 검증할수 없고 일반적호소의 내용을 충실히 할수도 없게 될것이며 따라서 일반적호소가 수포로 돌아갈 위험이 있게 될것이다.

《령도방법에 관한 몇가지 문제》(1943년 6월 1일)

어떠한 지도일군이든지 하급의 개별적 단위의 개별적일군, 개별적사건으로부터 구체적인 경험을 얻어내지 않는다면 도저히 모든 단위들에 대한 보편적인 지도를 할수 없다. 이 방법을 각급지도간부들이 다 배우도록 널리 창도하지 않으면 안된다.

《령도방법에 관한 몇가지 문제》(1943년 6월 1일)

어떠한 지구에 있어서나 여러가지 중심사업이 동시에 있을수 없다. 일정한 기간내에 있어서는 중심사업이 단 하나뿐이며 그외의것은 2차적, 3차적 사업으로서 그것을 보충한다. 그러므로 한 지구의 총책임자는 그 지구의 투쟁력사와 투쟁환경을 고려하여 여러가지 사업을 각기 적당한 자리에 놓아야 한다. 자기의 계획은 전연 없이 단지 상부에서 지시하는대로만 하면서 숱한 《중심사업》을 형성하거나 무질서한 혼란상태를 조성하여서는 안된다. 상급기관도 역시 경중과 선후를 가리지 않고 중심이 없이 하급기

관에 많은 사업을 동시에 지시함으로써 하급기관으로 하여금 사업절차상 혼란을 일으키게 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수 없게 하여서는 안된다. 지도일군들이 매개 구체적지구의 력사적조건 및 환경조건에 근거하여 전반에 대하여 통일적으로 구상하고 매개 시기에 있어서의 사업중점과 사업절차를 정확히 결정하는 동시에 이러한 결정을 철저히 관철하여 일정한 성과를 거두는 이것은 령도예술의 하나이다.

《령도방법에 관한 몇가지 문제》
(1943년 6월 1일)

수시로 사업진도를 장악하고 경험을 교환하고 오유를 시정하여야 하며 수개월, 반년 지어는 1년이 지난후에야 총화회의를 열고 총결산을 하며 단꺼번에 시정하려고 하여서는 안된다. 그렇게 하면 손실이 너무 크게 되고 수시로 시정하면 손실이 비교적 적게 된다.

《공상업정책에 관하여》(1948년 2월 27일)

문제가 쌓이고 쌓여 숱한 사단이 생긴 뒤에 해결하려고 하여서는 안된다. 지도자들은 운동에 뒤떨어지지 말고 반드시 앞서 나가야 한다.

《계절도급제》에 대한 평어(1955년)

우리에게 필요한것은 열정적이면서도 침착한 태도이며 긴장하면서도 질서있는 사업이다.

《중국혁명전쟁의 전략문제》(1936년 12월)

23. 조사연구

실제사업에 종사하는 모든 일군들은 반드시 하부실정을 조사하여야 한다. 리론만 알고 실정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조사사업이 더욱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리론과 실제를 결부시킬수 없다. 《조사가 없이는 발언권이 없다.》는 이 말은 《협애한 경험론》이라고 조소당한적이 있었으나 나는 지금도 이 말을 한것을 후회하지 않는다. 후회하지 않을뿐만아니라 나는 조사가 없이는 발언권이 있을수 없다는 것을 여전히 견지한다. 많은 사람들은 《도임하자마자》 떠들썩하게 론의하고 의견을 내놓으면서 이것도 비판하고 저것도 나무라는데 실상 이런 사람은 열이면 열이 다 실패하고 만다. 왜냐 하면 이러한 론의나 비판은 주밀한 조사를 거치지 않은 무지한 망설에 불과하기때문이다. 우리 당이 이런 소위 《어사》로 인하여 입은 손실은 이루다 헤아릴수 없다. 그런데 이런 《어사》는 많기도 하여 거의 어디나 다 있다. 쓰딸린이 《리론이 혁명적실천과 련결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내용없는것으로 될것이다.》라고 한것은 지당한 말이며 또 그가 《실천이 혁명적리론으로써 자기의 길을 밝히지 않는다면 그것은 맹목적인것으로 될것이다.》라고 한것도 물론 지당한 말이다. 맹목적이고 장래성이 없고 통찰력이 없는 실제가들에게밖에는 《협애한 경험론자》라는 딱지를 붙일수 없는것이다.

《〈농촌조사〉의 서언과 발문》(1941년 3월, 4월)

이러한 태도가 바로 실사구시의 태도이다. 《실사》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일체 사물이며 《시》란 객관적사물의 내재적련계, 즉 합법칙성이며 《구》란 연구한다는것이다. 우리는 국내외, 성내외, 현내외, 구내외의

실정으로부터 출발하여 그가운데서 억측이 아닌 그에 고유한 합법칙성, 즉 주위의 사변들간의 내재적련계를 찾아내여 그것을 우리 행동의 지침으로 삼아야 한다. 그런데 이렇게 하려면 주관적인 상상에 의존하거나 일시적인 열정에 의존하거나 죽은 서적에 의존할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사실에 의거하여 자료들을 상세히 소유하고 맑스-레닌주의의 일반적원리의 지도하에서 이러한 자료들로부터 정확한 결론을 얻어내여야 한다.

《우리의 학습을 개조하자》(1941년 5월)

《눈을 감고 참새잡듯》하며 《장님이 물고기잡듯》하며 되는대로 거칠게 하며 허풍만 치며 변변치 못한 피상적인 지식에 만족하는 등 이런 극히 나쁜 작풍들이, 맑스-레닌주의의 기본정신에 완전히 배치되는 이런 나쁜 작풍들이 아직도 우리 당의 많은 동지들에게 계속 존재하고있다. 맑스, 엥겔스,

레닌, 쓰딸린은 실정을 진지하게 연구하며 주관적인 념원으로부터 출발할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진실한 정형으로부터 출발하라고 우리에게 교시하였다. 그런데 우리의 많은 동지들은 이 진리를 직접 위반하고있다.

《우리의 학습을 개조하자》(1941년 5월)

어떤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있는가? 있다면 그 문제의 현상태와 그 력사를 조사하여 보라! 충분히 조사하여 똑똑히 알게 되면 그 문제의 해결책을 얻게 될것이다. 모든 결론은 실정을 조사하기전에 생기는것이 아니라 조사한끝에 생긴다. 오직 무모한 사람만이 조사는 하지 않고 자기 혼자서나 또는 몇몇사람이 모여서 머리를 싸매고 《대책을 강구하며》 《구상을 한다》. 이렇게 해서는 아무리해도 어떤 신통한 대책을 세울수 없으며 좋은 구상을 할수 없다는것을 알아야 할것이다.

《문헌지상주의를 반대하자》(1930년 5월)

조사는 《열달 잉태》요, 문제의 해결은 《하루아침 해산》이다. 조사는 곧 문제의 해결이다.

《문헌지상주의를 반대하자》(1930년 5월)

맑스-레닌주의의 리론과 방법을 적용하여 주위환경에 대한 계통적이고도 주밀한 조사와 연구를 해야 한다. 단순히 열정만으로 사업할것이 아니라 쓰딸린이 말한바와 같이 혁명적기개와 실제적정신을 결합시켜야 한다.

《우리의 학습을 개조하자》(1941년 5월)

정형을 료해하는 유일한 방법은 사회에 대하여 조사하며 사회 각 계급의 생동한 정형을 조사하는것이다. 지도일군들에게 있어서는 계획적으로 몇개의 도시, 몇개의 농촌을 선택하여 맑스주의의 기본적관점, 즉 계급적분석의 방법으로 세밀한 조사를 몇번 진행하는것이 정형을 료해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다.

《〈농촌조사〉의 서언과 발문》(1941년 3월, 4월)

조사회에는 사람을 많이 청할 필요가 없으며 매번 3～4명 내지 7～8명이면 된다. 그들에게 시간적여유를 주어야 하고 조사항목을 준비하여야 하며 또 직접 자기가 묻고 기록하는 동시에 회의참가자들과 토론을 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끓어넘치는 열정, 눈을 아래로 돌리려는 결심, 지식을 탐구하려는 갈망, 더러운 틀을 버리고 소학생이 되려는 정신이 없다면 결코 이 일을 할수 없으며 또 하더라도 잘할수 없는것이다.

《〈농촌조사〉의 서언과 발문》(1941년 3월, 4월)

지휘원의 정확한 군사배치는 정확한 결심으로부터 오며 정확한 결심은 정확한 판단으로부터 오며 정확한 판단은 주밀하고도 필요한 정찰 및 각종 정찰자료를 련관시켜 사색하는데로부터 온다. 지휘원은 가능하고

도 필요한 모든 정찰수단을 다 리용하며 정찰해온 적정에 관한 각종 자료에서 쓸데 없는것을 버리고 알맹이를 취하며 가짜를 버리고 진짜를 취하며 여기로부터 저기에로, 겉으로부터 속에로 이르는 사색을 거친 연후에 자기측의 정형을 가하여 쌍방의 대비와 호상관계를 연구하며 그것에 의하여 판단을 내리고 결심을 내리며 계획을 세운다—이것이 군사가가 매개의 전략, 전역 또는 전투계획을 세우기전에 거치는 정형인식의 전체 과정이다.

《중국혁명전쟁의 전략문제》(1936년 12월)

24. 그릇된 사상을 시정하자

우리가 사업에서 아주 위대한 성과를 거두었다 하더라도 교오자만할 아무런 리유도 없다. 허심하면 진보하고 교만하면 락후한다. 우리는 이 진리를 영원히 기억하여야 한다.

《중국공산당 제8차전국대표대회에서 한 개회사》(1956년 9월 15일)

승리로 하여 당내에 교오자만하는 경향, 공신으로 자처하는 경향, 정지하여 진보를 추구하지 않는 경향, 향락을 탐내면서 더는 간고한 생활을 하지 않으려는 경향들이 자라날수 있다. 승리로 하여 인민은 우리에게 감사를 드릴것이며 부르죠아지도 나서서 아첨할것이다. 적들의 무력이 우리를 정복할수 없다는것은 이미 증명된바이다. 그러나

부르죠아지의 아첨은 우리 대오에서 의지가 약한자들을 정복할수도 있을것이다. 총을 든 적들에게는 정복되지 않았고 이러한 적들앞에서는 영웅으로 불리기에 손색이 없었으나 사탕포탄의 공격에 배겨내지 못하고 사탕포탄앞에서 패전하는 그러한 공산당원들이 있을것이다. 우리는 반드시 이러한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지 않으면 안된다.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제7기제 2차전원회의에서 한 보고》(1949년 3월 5일)

많은것들은 우리가 그에 대하여 맹목적이 되거나 자각성이 부족하기만 하면 우리의 보따리로 될수 있으며 부담으로 될수 있다. 례컨대 과오를 범한 사람은 여하튼 자기는 과오를 범한 사람이라는 생각에서 위축당할수 있고 또 과오를 범하지 않은 사람은 자기는 과오를 범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하여 교만하여질수 있다. 사업에 성과가 없으면 비관실망할수 있고 사업에 성과가 있으면 우쭐할수 있다. 투쟁력사가 짧은 사람은 투쟁력사가 짧다 하여 무책임할수 있고 투쟁력사가 긴 사람은 투쟁력사가 길다 하여 자기만 옳다고 할수 있다. 로동자, 농민 출신은 자기의 영광스러운 출신으로 하여 지식인들을 멸시할수 있고 지식인은 또 그 어떤 지식을 가지고있다 하여 로동자, 농민 출신을 멸시할수 있다. 이러저러한 특수기능도 모두 자고자대하고 남을 경시하는 밑천으로 될수 있다. 지어는 년령까지도 교만의 밑천으로 될수 있다. 즉 젊은 사람은 총명하고 유능하다 하여 나이 많은 사람을 얕볼수 있고 나이 많은 사람은 경험이 많다 하여 젊은 사람을 얕볼수 있다. 이 모든것들에 대하여 자각성이 없으면 그것들은 부담으로 되며 보따리로 되는것이다.

《학습과 시국》(1944년 4월 12일)

군대에서 사업하고있는 일부 동지들은 교기가 자라나서 병사에 대하여, 인민에 대하여, 정부에 대하여, 당에 대하여 란폭하며 지방사업을 하고있는 동지들만 책망하

고 자기자신은 책망하지 않으며 성과만 보고 결함은 보지 않으며 칭찬만 듣기 좋아하고 비판을 듣기 싫어한다. ……군대는 이러한 페단을 극복하는데 주의를 돌리지 않으면 안된다.

《조직하라》(1943년 11월 29일)

어려운 사업은 짐과도 같이 우리앞에 놓여서 우리가 그것을 감히 짊어지려 하는가 어떤가를 보고있다. 짐에는 가벼운것도 있고 무거운것도 있다. 어떤 사람은 무거운것은 겁내고 가벼운것만 골라잡으며 무거운 짐은 남에게 밀어놓고 자기는 가벼운것만 골라진다. 이것은 좋은 태도가 아니다. 어떤 동지는 이와 달리 향수는 남에게 사양하고 짐은 무거운것을 골라지며 고생에는 남먼저 나서고 향수에는 남뒤에 물러선다. 이러한 동지야말로 훌륭한 동지이다. 이러한 공산주의자의 정신을 우리는 본받아야 한다.

《중경담판에 관하여》(1945년 10월 17일)

적지 않은 사람들은 사업에 무책임하며 쉬운 일을 택하고 어려운 일을 겁내며 무거운 짐은 남에게 밀어놓고 자기는 가벼운 짐만 골라진다. 어떤 일에서나 자기 타산부터 하고서야 남을 생각한다. 일을 조금 하고는 그것을 대단한것으로 생각하며 남이 몰라줄가봐 자랑하기를 좋아한다. 동지와 인민에 대해서는 열정적인것이 아니라 쌀쌀하고 무관심하며 무감각하다. 이러한 사람은 실상 공산당원이 아니며 적어도 순수한 공산당원이라고는 할수 없다.

《베쮼을 기념하여》(1939년 12월 21일)

이러한 독립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그들의 개인제일주의와 갈라놓을수 없다. 그들은 개인과 당과의 관계문제를 흔히 부당하게 대한다. 그들도 입으로는 당을 존중한다고 하지만 실지에 있어서는 개인을 제1위에 놓고 당을 제2위에 놓는다. 이러한 사람들은 무엇을 추구하는가? 명예를 추

구하고 지위를 추구하며 자기를 내세우려 한다. 그들이 어느 한부분의 사업을 맡아하게 될 때에는 곧 독립성을 주장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그들은 일부 사람들을 롱락하고 다른 일부 사람들을 배척하며 동지들가운데서 불어대고 치살리고 당기고 끄는 등 부르죠아당의 저속한 작풍을 공산당내에까지 끌어들인다. 이런 사람들이 랑패를 보는것은 성실하지 못하기때문이다. 우리는 성실하게 일하여야 할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세상에서 어떤 보람있는 일을 하려면 성실한 태도가 없이는 도저히 불가능한것이다.

《당의 작풍을 바로잡자》(1942년 2월 1일)

공산당원은 국부적수요를 전반적수요에 복종시켜야 한다는 이 리치를 알아야 한다. 만일 어떠한 의견이 국부적정형에서 볼 때에는 합당하나 전반적정형에서 볼 때에는 합당하지 못하다면 그 국부를 전반에 복종시켜야 한다. 이와 반대일 때도 마찬가지로서 국부적정형에서 볼 때에는 합당하지 못하나 전반적정형에서 볼 때에는 합당하다면 역시 그 국부를 전반에 복종시켜야 한다. 이것이 바로 전반을 돌보는 관점이다.

《민족전쟁에 있어서의 중국공산당의 지위》(1938년 10월)

향락주의. 개인주의를 향락면에서 표현하고있는 사람도 홍군내에 적지 않다. 그들은 부대가 대도시에 들어가기만 바라고있다. 그들은 사업을 위하여서가 아니라 향락을 위하여 대도시에 가려고 한다. 그들은 생활조건이 어려운 홍색지역에서 사업하는것을 제일 싫어한다.

《당내의 그릇된 사상을 시정할데 관하여》(1929년 12월)

자기만 돌보고 남을 돌보지 않는 본위주의적경향은 반대하지 않으면 안된다. 남의 곤난을 돌봐주지 않으며 남이 자기 관하의 간부를 요구하면 보내주지 않거나 못한

사람을 보내주며 《물곬을 이웃에 돌리듯》이 다른 부문, 다른 지방, 다른 사람의 생각은 전혀 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이러한 사람은 본위주의자이다. 이것은 공산주의정신이 전혀 없는것이다. 전반을 돌보지 않으며 다른 부문, 다른 지방, 다른 사람에 대하여 전혀 무관심한것이 이런 본위주의자의 특징이다. 이러한 사람에게는 교양을 강화하여 이것이 일종의 종파주의적경향이며 그대로 발전한다면 매우 위험하다는것을 인식시켜야 한다.

《당의 작풍을 바로잡자》(1942년 2월 1일)

자유주의에는 여러가지 표현이 있다.

잘 아는 사람, 고향사람, 동창생, 지기의 벗, 친애하는 사람, 오랜 동료, 오랜 부하라고 하여 옳지 못한것을 뻔히 보고서도 원칙적인 론쟁을 하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두면서 화목과 친밀만 유지하려 하거나 슬쩍 몇마디 하는데 그치고 철저히 해결하지 않으며 두루뭉실하게 지내려 한다. 그 결과는

단체에 해로우며 개인에게도 해롭다. 이것이 첫째 종류이다.

적극적으로 조직에 제의하는것이 아니라 무책임하게 배후에서 비판한다. 대면해서는 말하지 않고 배후에서 함부로 말하며 회의석상에서는 말하지 않고 회의후에 함부로 말한다. 마음속에 집단생활의 원칙은 없고 자유방종만 있다. 이것이 둘째 종류이다.

자기와 상관없는 일이라 하여 본체만체하며 옳지 못한것을 뻔히 보고서도 말을 적게 하는것을 상수로 여기며 명철보신하면서 제앞만 가린다. 이것이 세째 종류이다.

명령에는 복종하지 않고 개인의견만 내세운다. 조직에서 돌봐줄것만을 요구하고 조직의 규률은 싫어한다. 이것이 네째 종류이다.

단결을 위하여, 발전을 위하여, 일을 잘하기 위하여 옳지 못한 의견과 투쟁하고 론쟁하는것이 아니라 개인공격을 하며 감정에 흐르며 분풀이를 하며 보복을 하려 한다. 이것이 다섯째 종류이다.

옳지 못한 말을 듣고서도 그것을 론박하지 않으며 심지어는 반혁명분자의 말을 듣고서도 보고하지 않고 아무 일도 없는듯이 태연하다. 이것이 여섯째 종류이다.

군중과 상대하면서도 선전하지 않으며 선동하지 않으며 연설하지 않으며 조사하지 않으며 물어보지 않으며 군중의 고통에 관심하지 않고 모르는체하며 자기가 공산당원이라는것을 망각하고 공산당원을 일반사람들과 혼동하여버린다. 이것이 일곱째 종류이다.

대중의 리익에 손해를 주는 행위를 보고서도 분개하지 않으며 충고하지 않으며 제지하지 않으며 해설해주지 않고 그냥 내버려둔다. 이것이 여덟째 종류이다.

사업에 착실하지 못하며 일정한 계획이나 일정한 방향이 없이 어물어물해치우고 그럭저럭 지나며 종이나 치고 세월을 보내는 중처럼 하루하루를 허송한다. 이것이 아홉째 종류이다.

혁명에 공로가 있다고 자처하면서 경력이 길다는 자세만 부리며 큰일은 해내지 못하고 작은 일은 하려 하지 않으며 사업을 되는대로 하며 학습에 게으르다. 이것이 열째 종류이다.

자기가 잘못하고 또 그 잘못을 알면서도 고치려 하지 않고 자기자신에 대하여 자유주의를 취한다. 이것이 열한째 종류이다.

《자유주의를 반대하자》(1937년 9월 7일)

혁명적집단조직내에 있어서 자유주의는 매우 해로운것이다. 그것은 단결을 와해시키며 호상관계를 벌어지게 하며 사업에 소극적이 되게 하며 의견상이를 일으키는 일종의 부식제이다. 그것은 혁명대렬로 하여금 엄밀한 조직과 규률을 가질수 없게 하며 정책이 철저히 관철될수 없게 하며 당조직과 당이 령도하는 대중사이에 간극이 생기게 한다. 이것은 극히 나쁜 경향이다.

《자유주의를 반대하자》(1937년 9월 7일)

자유주의자는 맑스주의의 원칙을 추상적인 교조로 본다. 그들은 맑스주의를 찬성하기는 하지만 실천하려 하지 않거나 완전히 실천하려 하지는 않으며 맑스주의로써 자신의 자유주의를 대체하려 하지 않는다. 이러한 사람들은 맑스주의도 가지고있으며 자유주의도 가지고있다. 즉 말은 맑스주의이나 행동은 자유주의이며 남에게는 맑스주의이나 자신에게는 자유주의이다. 그들은 두가지를 다 가지고있으면서 각기 딴 용처에 사용한다. 이것은 일부 사람들의 사상방법이다.

《자유주의를 반대하자》(1937년 9월 7일)

인민의 국가는 인민을 보호하는것이다. 인민의 국가가 있어야만 인민은 비로소 전국적범위와 전체적규모에서 민주주의적방법으로 자기를 교양개조함으로써 내외반동들의 영향에서 벗어나며(이 영향은 지금도 매우 큰것이며 앞으로 장기간 존재할것인바 그렇게 빨리 숙청되지 않을것이다.) 낡은 사회로부터 내려온 자기의 나쁜 관습과 나쁜 사상을 개조하고 반동들이 유인하는 그릇된 길에 들어서지 않으며 또한 계속 전진하여 사회주의사회와 공산주의사회에로 나아갈 가능성을 가지게 된다.

《인민민주주의독재에 대하여》(1949년 6월 30일)

좋은 일을 좀 하기는 어렵지 않다. 어려운것은 한평생 나쁜 일을 하지 않고 좋은 일만 하며 시종일관 광범한 대중에게 유익하고 청년들에게 유익하며 혁명에 유익한 일만 하면서 몇10년을 하루같이 간고분투하는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정말 어렵고도 어려운 일이다!

《오옥장동지의 탄신 60주년에 제하여 한 축사》(1940년 1월 15일)

25. 단 결

나라의 통일, 인민의 단결, 국내 제 민족의 단결—이것은 우리 위업의 필승을 위한 기본적담보이다.

《인민내부의 모순을 정확히 처리할 문제에 관하여》(1957년 2월 27일)

오직 공산당의 단결에 의하여서만 전체 계급과 전체 민족의 단결을 이룩할수 있으며 오직 전체 계급과 전체 민족의 단결에 의하여서만 적을 타승하고 민족, 민주주의 혁명과업을 완수할수 있다.

《천백만 대중을 항일민족통일전선에로 인입하기 위하여 투쟁하자》(1937년 5월 7일)

우리는 민주주의중앙집권제의 조직원칙과 규률원칙에 립각하여 우리 당의 모든 력

량을 굳게 결속시켜야 한다. 어떤 동지나를 막론하고 오직 그가 당의 강령, 규약 및 결정에 복종하려고만 한다면 우리는 그와 단결하여야 한다.

《련합정부에 대하여》(1945년 4월 24일)

1942년에 우리는 인민내부의 모순을 해결하는 이 민주주의적방법을 《단결—비판—단결》이라는 공식으로 구체화하였다. 더 상세히 말한다면 이것은 단결의 념원으로부터 출발하여 비판 또는 투쟁을 거쳐 모순을 해결하고 새로운 기초우에서 새로운 단결에 도달하는것이다. 우리의 경험에 의하면 이것은 인민내부의 모순을 해결하는 정확한 방법이다.

《인민내부의 모순을 정확히 처리할 문제에 관하여》(1957년 2월 27일)

이 군대는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나 아주 잘 단결되여있다. 내부적으로는 군관과

병사간, 상급과 하급간, 군사사업과 정치사업과 후방근무사업간에 일치단결되여있으며 외부적으로는 군대와 인민간, 군대와 정권기관간, 아군과 우군간에 일치단결되여있다. 단결을 방해하는 모든 현상들은 반드시 극복하여야 한다.

《련합정부에 대하여》(1945년 4월 24일)

26. 규 률

인민내부에서 민주주의는 중앙집권에 대하여 말하는것이고 자유는 규률에 대하여 말하는것이다. 이것들은 한 통일체의 모순되고있는 두 측면으로서 서로 모순되면서 또 통일되여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면적으로 어느 한 측면만 강조하고 다른 한 측면을 부정하여서는 안된다. 인민내부에는 자유가 없어도 안되고 규률이 없어도 안되며 민주주의가 없어도 안되고 중앙집권이 없어도 안된다. 이러한 민주주의와 중앙집권의 통일, 자유와 규률의 통일이 곧 우리의 민주주의중앙집권제이다. 이 제도하에서 인민은 광범한 민주주의와 자유를 향유하고있으나 동시에 또 사회주의적규률로 자기자신을 단속하지 않으면 안된다.

《인민내부의 모순을 정확히 처리할 문제에 관하여》(1957년 2월 27일)

당의 규률을 다시금 천명할 필요가 있다. (1) 개인은 조직에 복종한다. (2) 소수는 다수에 복종한다. (3) 하급은 상급에 복종한다. (4) 전당은 중앙에 복종한다. 이러한 규률을 파괴하는자는 당의 통일을 파괴하는자이다.

《민족전쟁에 있어서의 중국공산당의 지위》(1938년 10월)

소수가 다수에 복종하는것은 당규률의 하나이다. 소수사람들은 자기들의 의견이 부결되면 다수사람에 의하여 채택된 결정을 지지하여야 한다. 필요할 때에는 다음번 회의에서 다시 제기하여 토의할수는 있되 행동상에서는 그 어떤 반대도 있어서는 안된다.

《당내의 그릇된 사상을 시정할데 관하여》(1929년 12월)

3대규률은 다음과 같다.

(1) 일체 행동은 지휘에 복종할것, (2) 군중의 바늘 하나, 실 한오리도 가지지 말것, (3) 일체 로획물은 조직에 바칠것.

8항주의는 다음과 같다.

(1) 말은 친절하게 할것, (2) 매매는 공평하게 할것, (3) 빌어온 물건은 돌려줄것, (4) 파손한 물건은 배상할것, (5) 사람을 때리거나 욕하지 말것, (6) 농작물을 해치지 말것, (7) 녀성을 희롱하지 말것, (8) 포로를 학대하지 말것.

《3대규률 8항주의의 재반포에 관한 중국인민해방군 총사령부의 훈령》(1947년 10월 10일)

규률성을 높이며 견결히 명령을 집행하고 정책을 집행하며 3대규률 8항주의를 집행하며 군민일치, 군정일치, 관병일치, 전군일치를 강화하며 규률을 파괴하는 그 어떤 현상도 허용하여서는 안된다.

《중국인민해방군선언》(1947년 10월)

27. 비판과 자기비판

공산당은 비판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 하면 우리는 맑스주의자이며 진리가 우리편에 있고 로농기본대중이 우리편에 있기 때문이다.

《중국공산당 전국선전사업회의에서 한 연설》(1957년 3월 12일)

철저한 유물론자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우리는 우리와 함께 분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용감히 책임을 지고 곤난을 극복하며 좌절도, 남들의 시비나 조소도 두려워하지 말며 우리 공산당원에 대하여 비판하고 전의하는것을 두려워하지 말기를 희망한다.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위한 투쟁에서 우리는《이 몸이 릉지처참을 당하더라도 저 황제를 말에서 끌어내리리라》는 이러한 두려움모르는 정신을 가져야 한다.

《중국공산당 전국선전사업회의에서 한 연설》(1957년 3월 12일)

우리에게는 비판과 자기비판이란 이 맑스-레닌주의적무기가 있다. 우리는 나쁜 작풍을 버리고 좋은 작풍을 유지할수 있다.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제7기제2차전원회의에서 한 보고》(1949년 3월 5일)

참다운 자기비판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역시 우리와 기타 정당이 구별되는 뚜렷한 표식의 하나이다. 우리가 과거에도 말하였지만 방은 소제하지 않으면 먼지가 가득 쌓이게 되므로 자주 소제하여야 하며 얼굴은 씻지 않으면 때가 가득 끼게 되므로 자주 씻어야 한다. 우리 동지들의 사상과 우리 당의 사업에도 먼지가 앉을수 있으므로 역시 털어내고 씻어내야 한다.《흘러가는 물은 썩지 않고 늘 여닫는 문지도리는 좀먹지 않는다.》는 말은 그것들이 끊임없는 운동중에

서 미생물 또는 기타 생물의 침식에 저항해낸다는 말이다. 일상적으로 사업을 검토하며 그 검토과정에서 민주주의적작풍을 일반화하며 비판과 자기비판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또 《아는것은 다 말하고 말은 끝까지 한다.》, 《말한 사람은 죄가 없고 듣는 사람이 삼가해야 한다.》, 《있으면 고치고 없으면 더 노력한다.》는 중국인민의 이러한 유익한 격언들을 실행하는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가지 정치적먼지와 정치적미생물이 우리 동지들의 사상과 우리 당의 조직체를 침식하지 못하도록 저항하는 유일하게 효과적인 방법이다.

《련합정부에 대하여》(1945년 4월 24일)

당내에 각이한 사상의 대립과 투쟁이 늘 일어난다. 이것은 당내에서의 사회의 계급적모순과 신구사물의 모순의 반영이다. 만일 당내에 모순이 없고 또 모순을 해결하는 사상투쟁이 없다면 당의 생명도 정지된다.

《모순론》(1937년 8월)

우리는 적극적인 사상투쟁을 주장한다. 왜냐 하면 그것은 당내와 혁명단체내의 단결을 보장하여 그의 전투성을 강화하는 무기이기때문이다. 매개 공산당원과 혁명자는 이 무기를 들어야 한다.

그러나 자유주의는 사상투쟁을 거부하고 무원칙한 화목을 주장한다. 그 결과 부패하고 저속한 작풍이 생겨 당 및 혁명단체의 일부 조직과 일부 사람들을 정치적으로 타락시키게 된다.

《자유주의를 반대하자》(1937년 9월 7일)

우리가 주관주의, 종파주의, 당팔고를 반대함에 있어서 주의하지 않으면 안될 두가지 원칙이 있다. 첫째는, 《과거를 징계하여 금후를 삼가한다.》는것이며 둘째는, 《병을 다스려 사람을 구한다.》는것이다. 과거의 잘못에 대하여서는 사정없이 폭로하여야 하며 과학적태도로 과거의 나쁜 점을 분석비판하여 금후의 사업을 좀더 신중히 하며 좀더 잘하게 하여야 한다. 이것이 바로 《과

거를 징계하여 금후를 삼가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우리가 과오를 폭로하고 결함을 비판하는 목적은 마치 의사가 병을 다스리는 것과 같이 오로지 사람을 구하려는데 있는 것이지 사람을 죽이려는데 있는것은 아니다. 어떤 사람이 맹장염에 걸렸을 때 의사가 그 맹장을 잘라버리면 그 사람은 구원된다. 과오를 범한 사람이라도 오직 그가 병을 속이고 치료하기 싫어하며 과오를 고집하여 구해낼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지 않고 성실하게 진정으로 치료를 받으려 하며 시정하려고만 한다면 우리는 환영하여야 하며 병을 고쳐 좋은 동지로 되게 하여야 한다. 이 사업은 결코 속시원하게 한바탕 해치우는것으로 효과를 볼수 있는 일이 아니다. 사상적병이나 정치적병에 대하여서는 결코 조포한 태도를 취해서는 안되며 《병을 다스려 사람을 구하는》 태도를 취하여야 한다. 이것만이 정확하고 효과적인 방법이다.

《당의 작풍을 바로잡자》(1942년 2월 1일)

당내비판문제에 관하여 또하나 언급할 것은 일부 동지들이 비판을 하는데 있어서 큰 면에 류의하지 않고 작은 면에만 류의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들은 정치적오유와 조직적오유를 지적하는것이 비판의 주요한 임무라는것을 모르고있다. 개인의 결함에 대하여서는 그것이 정치적오유나 조직적오유와 련관되여있지 않다면 동지들이 어찌할바를 모르게 너무 많이 지적할 필요가 없다. 뿐만아니라 이러한 비판이 발전해나간다면 당내의 주의력이 완전히 소소한 결함면에만 쏠리게 될것이고 사람들은 모두 소심한 군자로 되여버려 당의 정치적과업을 망각하게 될것이다. 이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다.

《당내의 그릇된 사상을 시정할데 관하여》(1929년 12월)

당내비판에 있어서는 주관, 독단과 비판의 저속화를 방지하여야 하며 발언하는데 근거가 있어야 하며 비판하는데 정치적면에 주의를 돌려야 한다.

《당내의 그릇된 사상을 시정할데 관하여》(1929년 12월)

당내비판은 당조직을 공고화하며 당의 전투력을 강화하는 무기이다. 그러나 홍군 당조직내에 있어서 일부 비판은 이렇지 못하고 개인에 대한 공격으로 되고있다. 그것은 결국 개인을 망칠뿐만아니라 당조직까지 망치게 된다. 이것은 소부르죠아적개인주의의 표현이다. 그 시정방법은 계급투쟁의 승리를 위하여 당의 전투력을 강화하는데 비판의 목적이 있다는것, 그리고 비판을 개인에 대한 공격수단으로 리용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을 당원들에게 명백히 리해시키는것이다.

《당내의 그릇된 사상을 시정할데 관하여》(1929년 12월)

우리는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사람이기때문에 우리에게 결함이 있을 때 남들이 비판지적하는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어떠한 사람이나 우리의 결함을 지적할수 있다. 그 사람의 말이 옳기만 하면 우리는 시정한다. 그 사람이 말한것이 인민에게 유익하다면 우리는 그대로 한다.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자》(1944년 9월 8일)

중국의 가장 광범한 인민의 최대리익을 자기의 출발점으로 하는 중국공산당원들은 자기의 사업이 전적으로 정의의 사업이라는 것을 확신하고있으며 자기 개인의 모든것을 서슴없이 희생하며 우리의 위업을 위하여서는 언제나 자기의 생명을 바칠 각오를 하고 있다. 그런데 어찌 인민의 요구에 부합되지 않는 사상, 관점, 의견, 방법을 버리기 아까와하겠는가? 그래 우리의 깨끗한 얼굴을 더럽히며 우리의 건전한 몸을 침식하는 정치적먼지나 정치적미생물들을 환영할수 있겠는가? 무수한 혁명선렬들은 인민의 리익을 위하여 자기들의 생명을 바쳤다. 살아있는 우리들은 그들을 회상하기만 하여도 마음이 괴로와지는데 우리에게 또 무슨 희생 못할 개인리익이 있으며 버리지 못할 오유가 있겠는가?

《련합정부에 대하여》(1945년 4월 24일)

우리는 성과를 올렸다고 자만자족하여

서는 절대 안된다. 때와 먼지를 없애기 위하여 매일 세수를 하고 소제를 하듯이 우리는 자만심을 억제하고 시시로 자기의 결함을 비판하여야 한다.

《조직하라》(1943년 11월 29일)

비판은 제때에 하여야 하며 사후에 비판하기를 좋아해서는 안된다.

《농업협동화문제에 관하여》(1955년 7월 31일)

오유와 좌절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어 우리를 더 총명해지게 하였으며 따라서 우리의 사업이 더 잘되게 하였다. 어떤 정당 또는 어떤 개인이든지 오유를 완전히 면하기는 어렵지만 우리는 되도록 적게 범하여야 한다. 오유를 범하였다면 시정하여야 하며 빨리 시정할수록, 철저히 시정할수록 더욱 좋다.

《인민민주주의독재에 대하여》(1949년 6월 30일)

28. 공산당원

공산당원은 솔직하며 충직하며 적극적이며 혁명의 리익을 제일생명으로 삼고 개인의 리익을 혁명의 리익에 복종시켜야 하며 언제 어디서나 정확한 원칙을 견지하고 모든 부정확한 사상, 행위와 꾸준히 투쟁함으로써 당의 집단생활을 공고히 하고 당과 대중과의 련계를 공고히 하여야 하며 개인에 대한 관심보다 당과 대중에 대한 관심이 더 크고 자신에 대한 관심보다 남에 대한 관심이 더 커야 한다. 그래야만 공산당원이라 할수 있다.

《자유주의를 반대하자》(1937년 9월 7일)

공산당원의 모든 언론과 행동은 가장 광범한 인민대중의 최대리익에 부합되며 가

장 광범한 인민대중의 지지를 받는것을 최고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것을 매개 동지들이 알게 하여야 한다.

《련합정부에 대하여》(1945년 4월 24일)

공산당원은 언제 어디서나 개인의 리익을 첫자리에 내세우지 말아야 하며 개인의 리익을 민족과 인민대중의 리익에 복종시켜야 한다. 따라서 사리사욕, 소극태공, 탐오와 부패, 공명주의 등등은 가장 비루한것이고 오직 공명정대하며 적극적으로 노력하며 자기희생적으로 사업하며 간고분투하는 정신만이 존경할만한것이다.

《민족전쟁에 있어서의 중국공산당의 지위》(1938년 10월)

진리는 어떠한것이나 다 인민의 리익에 부합되는것이기때문에 공산당원은 언제나 진리를 견지할 각오를 하고있어야 한다. 오유는 어떠한것이나 다 인민의 리익에 부합되지 않는것이기때문에 공산당원은 언제나 오유를 시정할 각오를 하고있어야 한다.

《련합정부에 대하여》(1945년 4월 24일)

공산당원은 어떠한 일에 대하여서든지 어째서 그런가를 따져보아야 하며 자기의 머리로써 면밀하게 사고하여 그것이 실제에 맞는가, 정말 사리에 맞는가 어떤가를 생각하여보아야 하며 맹목적으로 추종하거나 노예주의를 창도하여서는 절대 안된다.

《당의 작풍을 바로잡자》(1942년 2월 1일)

전반을 돌보도록 제창하여야 한다. 매개 당원, 매개의 국부적사업, 매개의 언론이나 행동은 전당적리익을 그 출발점으로 삼아야 하며 이 원칙을 위반하여서는 절대 안된다.

《당의 작풍을 바로잡자》(1942년 2월 1일)

공산당원은 실사구시의 모범으로 되여야 하며 또 원대하고 탁월한 식견을 가진 모

법으로 되여야 한다. 왜냐 하면 실사구시하여야만 확정된 과업을 완수할수 있고 원대하고 탁월한 식견을 가지고있어야만 전진방향을 잃지 않을수 있기때문이다.

《민족전쟁에 있어서의 중국공산당의 지위》(1938년 10월)

공산당원들은 앞을 가장 멀리 내다보며 희생적정신이 가장 강하며 가장 견정하며 또 가장 허심히 실정을 포착하며 대중의 다수에 의거하며 대중의 지지를 받게 되여야 한다.

《항일시기에 있어서의 중국공산당의 과업》(1937년 5월 3일)

공산당원은 또한 학습에서 모범이 되여야 한다. 그들은 언제나 민중의 교원인 동시에 또한 언제나 민중의 학생이다.

《민족전쟁에 있어서의 중국공산당의 지위》(1938년 10월)

공산당원은 민중운동에서 민중의 상관으로 될것이 아니라 민중의 벗으로 되여야 하

며 관료주의적정객으로 될것이 아니라 남을 꾸준히 가르쳐주는 교원으로 되여야 한다.

《민족전쟁에 있어서의 중국공산당의 지위》(1938년 10월)

공산당원은 결코 군중의 다수로부터 리탈되여 다수사람의 형편을 돌보지 않고 소수의 선진대렬만 거느리고 단독으로 돌진하여서는 안되며 반드시 선진분자와 광범한 대중간의 밀접한 련계를 맺는데 주의를 돌려야 한다. 이것이 바로 다수를 돌보는 관점이다.

《민족전쟁에 있어서의 중국공산당의 지위》(1938년 10월)

우리 공산당원은 종자와 같고 인민은 토지와 같다. 우리는 어느 곳에 가나 그 고장 인민들과 한덩어리가 되여 인민속에 뿌리를 박고 꽃을 피워야 한다.

《중경담판에 관하여》(1945년 10월 17일)

우리 공산당원들은 어떠한 문제에 있어서나 반드시 대중과 결합되여야 한다. 만일

우리 당원이 한평생 밖에 나가지 않고 방안에만 들어앉아 비바람을 겪지 않고 세상과 외면한다면 이러한 당원이 중국인민에게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아무 소용도 없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당원이 필요하지 않다. 우리 공산당원은 비바람을 겪어야 하며 세상을 보아야 한다. 이 비바람이란 바로 군중투쟁의 큰 비바람이며 이 세상이란 바로 군중투쟁의 큰 세상이다.

《조직하라》(1943년 11월 29일)

공산당원의 선봉적역할과 모범적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공산당원은 팔로군과 신사군내에서 영용하게 싸우는 모범으로, 명령집행의 모범으로, 규률준수의 모범으로, 정치사업의 모범으로, 내부의 단결과 통일의 모범으로 되여야 한다.

《민족전쟁에 있어서의 중국공산당의 지위》(1938년 10월)

공산당원은 제만 제라고 하면서 기세가 등등하여 남을 깔보거나 자기는 무엇이나 다 훌륭하고 다른 사람은 무엇이나 다 나쁘다고 생각하여서는 절대 안되며 좁은 방안에 들어앉아서 큰소리만 치며 세상에 자기밖에 없는체하여서는 절대 안된다.

《섬서-감숙-녕하변구참의회에서 한 연설》(1941년 11월 21일)

공산당원은 당외인사들의 의견을 귀담아들어야 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른 사람의 말이 옳으면 우리는 그것을 환영하여야 하며 또 남의 장점을 따라배워야 한다. 다른 사람의 말이 옳지 않다 하여도 그 사람이 할 말을 다 하게 한후에 천천히 해설해주어야 한다.

《섬서-감숙-녕하변구참의회에서 한 연설》(1941년 11월 21일)

공산당원은 사업에서 과오를 범한 사람들에 대하여 전혀 만회할수 없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배척하는 태도를 취할것이 아니라 그들이 속히 시정하여 새 출발을 하도록 권

고하는 태도를 취하여야 한다.

《민족전쟁에 있어서의 중국공산
당의 지위》(1938년 10월)

공산당원은 락후한 사람들에 대하여 그들을 경시하거나 멸시할것이 아니라 그들과 가까이하며 그들과 단결하며 그들을 설복하며 그들을 전진하도록 고무하는 태도를 취하여야 한다.

《민족전쟁에 있어서의 중국공산
당의 지위》(1938년 10월)

29. 간 부

우리의 당과 국가를 변색하지 않도록 담보하기 위하여 우리에게는 옳바른 로선과 정책이 있어야 할뿐아니라 프로레타리아혁명위업을 계승할 천백만 후계자들을 배양육성하여야 한다.

프로레타리아혁명위업의 후계자를 양성하는 문제는 근본적으로 말해서 늙은 세대의 프로레타리아혁명가들이 개척한 맑스-레닌주의혁명위업을 이어받을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문제이며, 앞으로 우리 당과 국가의 지도부가 계속 프로레타리아혁명가의 수중에 장악될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문제이며, 우리의 후대들이 정확한 맑스-레닌주의길을 따라 계속 전진할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문제이다. 다시말하면 중국에서의 흐루쑈브수정주의의 재연을 성과적으

로 방지할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문제이다. 요컨대 이것은 우리 당 및 국가의 운명과 생사존망에 관련되는 극히 중대한 문제이다. 이것은 프로레타리아혁명위업의 백년대계이며 천년대계이며 만년대계이다. 제국주의예언자들은 쏘련에서 일어난 변화에 비추어 《평화적진화》의 희망을 중국당의 제3대나 제4대에 걸고있다. 우리는 제국주의의 이러한 예언을 철저히 파탄시켜야 한다. 우리는 우로부터 아래에 이르기까지, 보편적으로, 일상적으로 혁명위업의 후계자배양육성에 부단한 주의를 돌려야 한다.

어떤 조건이 구비되여야 프로레타리아혁명위업의 후계자로 될수 있는가?

그들은 진정한 맑스-레닌주의자여야 하며 흐루쑈브와 같이 맑스-레닌주의의 간판을 내건 수정주의자여서는 안된다.

그들은 중국과 세계의 절대다수사람들을 위하여 성심성의로 복무하는 혁명자여야 하며 흐루쑈브와 같이 국내적으로 한줌도 못되는 부르죠아특권계층의 리익을 위해 복

무하며 국제적으로 제국주의와 반동들의 리익을 위해 복무하는자여서는 안된다.

그들은 절대다수사람들과 단결하여 함께 사업할줄 아는 프로레타리아정치가여야 한다. 자기와 의견이 같은 사람들과 단결할뿐만아니라 자기와 의견이 다른 사람들과도 단결할줄 알아야 하며 자기를 반대하였으며 또 실천에 의하여 그것이 오유임이 증명된 사람들과도 단결할줄 알아야 한다. 그러나 흐루쑈브와 같은 개인야심가와 음모가에 대하여서는 특히 경각성을 높여 그러한 나쁜자들이 당과 국가의 각급지도부를 빼앗지 못하도록 방지해야 한다.

그들은 당의 민주주의중앙집권제의 모범적집행자여야 하며 《대중속에서 나와 대중속으로 들어가는》 령도방법을 배워야 하며 대중의 의견을 귀담아듣는 민주주의적작풍을 양성해야 한다. 흐루쑈브처럼 당의 민주주의중앙집권제를 파괴하고 전횡하며 동지에 대하여 불의의 습격을 들이대며 제멋대로 독단하며 개인독재를 실행해서는 안

된다.

그들은 겸손하고 신중하며 교만과 조급성을 삼가며 자기비판의 정신이 강하고 자기사업에서의 결함과 과오를 용감히 시정해야 한다. 절대로 흐루쑈브처럼 과오를 감추며 공로는 몽땅 자기에게 돌리고 과오는 몽땅 남에게 밀어서는 안된다.

프로레타리아혁명위업의 후계자는 대중적투쟁속에서 산생하며 혁명적대풍랑의 시련속에서 성장한다. 장기간의 대중적투쟁에서 간부를 고찰하고 식별하며 후계자를 선발하고 양성해야 한다.

《흐루쑈브의 가짜공산주의와 그 세계사적교훈에 관하여》에서 (1964년 7월 14일)

우리 당의 조직은 전국적으로 발전되여야 하며 의식적으로 수천수만의 간부를 양성해내야 하며 수백명의 가장 훌륭한 대중의 지도자들을 가지고있어야 한다. 이러한 간부와 지도자들은 맑스-레닌주의를 알며 정치적으로 멀리 내다보며 사업능력이 강하며 희생적정신이 강하며 독자적으로 문제를 해결할수 있으며 곤난앞에서 동요하지 않으며 민족과 계급과 당을 위하여 충직하게 사업하는 사람들이여야 한다. 당은 이러한 사람들에 의거하여 당원 및 대중과 련계를 맺으며 대중에 대한 이러한 사람들의 강력한 지도에 의거하여 적을 타도하는 목적을 달성한다. 이러한 사람들은 사리사욕이 없으며 개인영웅주의와 공명주의가 없으며 타태성과 소극성이 없으며 자고자대하는 종파주의가 없어야 한다. 그들은 공명정대한 민족의 영웅들이며 계급의 영웅들이여야 한다. 이것이 바로 공산당원, 당간부, 당지도자들이 갖추어야 할 품성이며 작풍이다.

《천백만 대중을 항일민족통일전선에로 인입하기 위하여 투쟁하자》(1937년 5월 7일)

정치로선이 확정된후에는 간부가 결정적인 요인으로 된다. 그러므로 많은 새 간부를 계획적으로 양성하는것은 우리의 전투적

과업이다.

《민족전쟁에 있어서의 중국공산당의 지위》(1938년 10월)

공산당의 간부정책은 당의 로선을 견결히 집행하는가, 당규률에 복종하는가, 대중과의 련계가 밀접한가, 독자적사업능력이 있는가, 사업을 적극적으로 하는가, 사리사욕을 버렸는가 어떤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이것이 바로 《오직 현명여부를 보아 사람을 쓰는》 로선이다.

《민족전쟁에 있어서의 중국공산당의 지위》(1938년 10월)

간부들이 집단적생산로동에 참가하는 제도를 반드시 견지하여야 한다. 우리 당과 국가의 간부는 인민의 머리우에 올라앉은 나으리가 아니라 보통근로자이다. 간부들은 집단적생산로동에 참가함으로써 근로인민과 가장 광범하고 일상적이고 밀접한 련계를 맺게 된다. 이것은 사회주의제도하에서 근본적인 의의를 가지는 큰일로서 관료주의를 퇴치하

며 수정주의와 교조주의를 미연에 방지하는데 도움으로 된다.

《흐루쑈브의 가짜공산주의와 그 세계사적교훈에 관하여》에서(1964년 7월 14일)

간부를 식별할줄 알아야 한다. 간부의 한 시기 한가지 일만 볼것이 아니라 간부의 전반 경력과 전반 사업을 보아야 한다. 이것은 간부를 식별하는 주요한 방법이다.

《민족전쟁에 있어서의 중국공산당의 지위》(1938년 10월)

간부를 쓸줄 알아야 한다. 지도자의 책임은 주로 구상을 하며 간부를 쓰는 이 두가지에 귀착된다. 일체 계획, 결정, 명령, 지시 등등은 모두가 《구상을 한다》는데 속하는것이다. 이 모든 구상을 실행하려면 간부들을 단합하며 그것을 실행하도록 간부들을 추동하여야 한다. 이것은 《간부를 쓴다》는데 속하는것이다.

《민족전쟁에 있어서의 중국공산당의 지위》(1938년 10월)

간부를 애호할줄 알아야 한다. 애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그들을 지도하는것이다. 즉 그들로 하여금 마음놓고 사업하게 하며 대담하게 책임지게 하는 동시에 또 제때에 그들에게 지시를 줌으로써 당의 정치로선하에서 자기의 창발성을 발휘할수 있게 하는것이다. 둘째로, 그들을 제고하는것이다. 즉 그들에게 학습할 기회를 주고 그들을 교양함으로써 리론수준 및 사업능력을 한걸음 더 제고하는것이다. 세째로, 그들의 사업을 검열하며 그들을 도와서 경험을 총화하여 성과를 확대하고 오유를 시정하도록 하는것이다. 사업을 맡기기만 하고 검열하지 않다가 엄중한 오유를 범하였을 때에야 주의를 돌리는것은 간부를 애호하는 방법이 아니다. 네째로, 오유를 범한 간부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설복의 방법을 써서 그들이 오유를 시정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엄중한 오유를 범하고도 지도를 받지 않는 사람들에 한하여서만 투쟁의 방법을 취하여야 한다. 여기에는 인내성이 필

요하다. 경솔하게 《기회주의》라는 큰 감투를 씌우거나 또 경솔하게 《투쟁을 전개하는》 방법을 취하는것은 옳지 않다. 다섯째로, 그들의 곤난을 돌보아주는것이다. 병이 있거나 생활, 가정 등 면에서 곤난이 있는 간부들에 대하여서는 가능한 한도내에서 성의껏 잘 돌보아주어야 한다. 이러한것이 간부를 애호하는 방법이다.

《민족전쟁에 있어서의 중국공산당의 지위》(1938년 10월)

진정으로 일치단결되고 대중과 련결된 령도핵심은 대중적투쟁과정에서 점차적으로 형성되여야 하며 대중적투쟁과 떨어져서는 형성될수 없는것이다. 많은 경우에 한 위대한 투쟁과정에 있어서는 그 시초단계와 중간단계와 최후단계에 령도핵심구성이 완전히 동일하여서는 안되며 또 완전히 동일할수도 없다. 투쟁과정에서 나오는 열성자들을 부단히 등용함으로써 원래의 핵심중 손색이 있는자나 타락한자들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령도방법에 관한 몇가지 문제》
(1943년 6월 1일)

우리 당에 만일 광범한 새 간부와 로간부들의 일치한 협력이 없다면 우리의 위업은 중단될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로간부들은 최대의 열정으로 새 간부를 환영하여야 하며 새 간부들에게 관심을 돌려야 한다. 물론 새 간부들에게는 결함이 있다. 그들은 혁명에 참가한지 오래지 않아서 경험이 부족하며 그들중의 일부 사람들에게는 또 불가피적으로 낡은 사회의 좋지 못한 사상의 교리, 즉 소부르죠아적개인주의사상의 잔재가 있다. 그러나 이런 결함들은 교양과정에서와 혁명의 시련속에서 점차적으로 없애버릴수 있는것이다. 그들의 장점은 바로 쓰딸린이 말한바와 같이 새 사물에 민감하며 따라서 드높은 열정과 적극성을 가지고있는것이다. 바로 이 점이 일부 로간부들에게는 부족하다. 새 간부와 로간부는 서로 존중하

고 서로 배우며 서로 장점을 따다가 부족점을 보충함으로써 일치단결하여 공동의 위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종파주의적경향을 방지하여야 한다.

《당의 작풍을 바로잡자》(1942년 2월 1일)

당원간부를 관심하여야 할뿐만아니라 비당원간부도 관심하여야 한다. 당외에는 많은 인재가 있는바 공산당은 그들을 도외시해서는 안된다. 오만한 습성을 버리고 비당원간부와 함께 사업을 잘하며 그들을 성심성의로 도와주며 뜨거운 동지적태도로 대하며 그들의 적극성을 항일과 건국위업에로 인도하는것은 매개 공산당원의 책임이다.

《민족전쟁에 있어서의 중국공산당의 지위》(1938년 10월)

30. 청 년

세계는 동무들의것이며 또한 우리의것이다. 그러나 결국은 동무들의것이다. 젊은이들은 생기발랄하며 한창 자라는 때여서 아침 8～9시경의 태양과도 같다. 우리는 동무들에게 기대를 두고있다.

…………

세계는 동무들의것이다. 중국의 미래는 동무들의것이다.

모스크바에서 우리 나라 류학생과 실습생들을 만났을 때 한 담화 (1957년 11월 17일)

우리 나라는 아직도 매우 빈궁한 나라이며 또한 단시일내에 이러한 상태를 근본적으로 개변할수 없으므로 오직 청년들과 전체 인민들이 수십년동안 단결하여 분투함으로써만 자기의 두손으로 부강한 나라를

창조할수 있다는것을 전체 청년들이 다 알도록 하여야 한다. 사회주의제도의 수립은 우리에게 리상의 경지에 도달하는 길을 개척하여주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부지런한 로동에 의하여서만 실현되는것이다.

《인민내부의 모순을 정확히 처리할 문제에 관하여》(1957년 2월 27일)

적지 않은 청년들은 정치적경험과 사회생활의 경험이 부족한 탓으로 옛중국과 새 중국을 잘 대비할줄 모르며 우리 나라 인민들이 제국주의와 국민당반동파들의 억압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그 얼마나 천신만고를 겪어 싸워왔으며 아름다운 사회주의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그 얼마나 오래고 어려운 로동을 하여야 하는가를 깊이 리해하기 어렵다. 그렇기때문에 군중속에서 절실한 산 정치교양을 일상적으로 진행하여야 하며 또한 발생된 곤난에 대하여 일상적으로 그들에게 사실대로 해설하여주며 그들과 함께 곤난에

대한 해결책을 연구하여야 한다.

《인민내부의 모순을 정확히 처리할 문제에 관하여》(1957년 2월 27일)

청년은 사회의 모든 력량중에서 가장 적극적이고 가장 생기있는 력량이다. 그들은 학습열이 가장 높고 보수사상이 가장 적다. 사회주의시대에는 더욱 그러하다. 각지의 당조직들은 청년단조직을 협조하여 청년들의 력량을 어떻게 특별히 발휘시킬것인가를 잘 연구하며 그들을 일반적으로 취급하여 그들의 특성을 말살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바란다. 물론 청년들은 로인들과 장년들을 따라배워야 하며 될수 있는대로 로인들과 장년들의 동의밑에서 여러가지 유익한 활동들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중산현 신평향 제9농업생산합작사의 청년돌격대》에 대한 평어 (1955년)

한 청년이 혁명적인가 아닌가를 알려면 무엇을 기준으로 할것인가? 무엇으로써 그를 식별할것인가? 기준은 오직 하나이다. 그것은 즉 광범한 로농대중과 결합하려 하느냐 않느냐 또 그것을 실행하느냐 않느냐 하는것이다. 로동자, 농민과 결합하려 하며 또 그것을 실행하면 혁명적이고 그렇지 않다면 혁명적이 아니거나 반혁명적이다. 오늘 그가 자기를 로농대중과 결합시킨다면 오늘에 있어서는 혁명적인것이다. 그러나 만약 래일에 가서 결합하지 않거나 반대로 인민을 억압한다면 그는 혁명적이 아니거나 반혁명적인것이다.

《청년운동의 방향》(1939년 5월 4일)

지식인이 대중의 혁명투쟁에 뛰여들기전에는 또 그들이 대중의 리익을 위하여 복무하고 대중과 결합하려는 결심을 내리기전에는 흔히 주관주의와 개인주의적경향을 가지고있으며 그들의 사상은 흔히 공허하며 그들의 행동은 흔히 동요하는것이다. 그러므로 중국의 광범한 혁명적지식인들이 비록 선봉적 및 교량적 역할을 놀기는 하지만 모

든 지식인들이 다 혁명을 끝까지 할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중 일부분은 혁명이 긴요한 시각에 이르게 되면 혁명대렬을 떠나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게 되며 그중 소수사람들은 혁명의 적으로 변하게 된다. 지식인의 이러한 결함은 오직 장기간의 군중적투쟁가운데서만 극복될수 있다.

《중국혁명과 중국공산당》(1939년 12월)

청년단은 계속 당의 중심사업에 배합하는외에 또 청년들의 특징에 알맞는 독자적인 활동도 하여야 한다. 새 중국은 청년들에게 관심을 돌려야 하며 젊은 세대들의 성장에 배려를 돌려야 한다. 청년들은 학습해야 하며 사업해야 한다. 그러나 청년시기는 발육하는 시기이다. 그렇기때문에 청년들의 사업, 학습과 오락, 체육, 휴식의 두면을 다 충분히 돌보아주어야 한다.

청년단 제2차전국대표대회주석단 성원들을 접견하였을 때 한 지시 (1953년 6월 30일)

31. 녀 성

중국에서 남자들은 보통 세가지 계통적인 권력(정권, 족권, 신권을 가리킴—편집자)의 지배를 받고있다. ……녀성들은 우에서 말한 세가지 권력의 지배를 받고있는외에도 남자의 지배(부권)를 더 받고있다. 이 네가지 권력—정권, 족권, 신권, 부권은 봉건적, 가부장제적 사상과 제도의 전부를 대표하고있으며 중국인민, 특히는 농민들을 얽어매고있는 네개의 굵은 바줄로 되여있다. 농민들이 농촌에서 지주의 정권을 어떻게 전복하였는가 하는것은 우에서 말한바와 같다. 지주의 정권은 모든 권력의 기간이다. 지주의 정권이 뒤집혀지면 족권, 신권, 부권도 이에 따라 모두 동요하게 된다. …… 부권이란것은 본래부터 빈농들에게 있어서는 비교적 약하였다. 경제면에 있어서 빈농

녀성들은 부유한 계급의 녀성들보다 로동에 더 많이 참가하지 않으면 안되기때문에 가사에 대한 그들의 발언권, 나아가서는 결정권이 비교적 컸다. 근년에 와서 농촌경리가 더욱 령락되여 남자가 녀자를 지배하는 기본적조건이 파란되고 말았다. 최근에 농민운동이 일어나자 많은 지방에서 녀성들이 농촌녀성련합회를 조직하고 머리를 쳐들 기회를 가지게 되였으므로 부권도 날로 동요되여가고있다.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봉건적, 가부장제적 사상과 제도는 농민의 권력이 커짐에 따라 동요되고있다.

《호남성농민운동시찰보고》(1927년 3월)

녀성들은 단결하여 생산활동과 정치활동에 참가함으로써 경제적지위와 정치적지위를 개선하자.

잡지《신중국부녀》를 위하여 쓴 제사 (1949년 7월 20일)

청년, 녀성, 아동들의 리익을 수호하며 실학청년들을 구제하며 또 청년과 녀성들이 조직되여 항일전쟁과 사회의 진보에 유익한 제반 사업에 평등한 권리를 가지고 참가하도록 하며 혼인자유와 남녀평등을 실시하며 청년과 아동들이 유익한 학습을 할수 있게 하여야 한다. ……

《련합정부에 대하여》(1945년 4월 24일)

로력을 조직적으로 조절하며 녀성들을 생산에 참가시키는것은 농업생산면에서의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과업이다.

《우리의 경제정책》(1934년 1월 23일)

위대한 사회주의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광범한 녀성대중을 생산활동에로 동원하는것은 극히 큰 의의를 가진다. 생산에서 남녀를 물론하고 동일한 로동에 대하여 동일한 보수를 주는 원칙을 실시해야 한다. 진정한 남녀평등은 오직 전반 사회의 사회주

의적개조과정에서만 실현될수 있다.

《녀성들이 로력전선에로》에 대한 평어 (1955년)

협동화이후 수많은 합작사들에서 로력부족을 느끼고있다. 이전에 들일에 나가지 않던 광범한 녀성대중들을 로력전선에로 동원할 필요가 있다. ……중국에서 녀성들은 거대한 인적자원이다. 이 자원은 위대한 사회주의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에로 동원되여야 한다.

《녀성들을 생산에로 동원함으로써 로력부족을 해결하였다》에 대한 평어 (1955년)

동일한 로동에 대하여 동일한 보수를 주는 원칙하에서 모든 녀성로력을 다 로력전선에 진출시켜야 한다. 이 요구는 가급적으로 짧은 시일내에 실현되여야 한다.

《농업협동화운동에 있어서의 녀성사업에 관한 형태현민주부녀련합회의 전망계획》에 대한 평어 (1955년)

32. 문화와 예술

오늘의 세계에서 일체 문화 또는 문학예술은 모두 일정한 계급에 속하며 일정한 정치로선에 속한다. 예술을 위한 예술, 초계급적예술, 정치와 병행하거나 정치로부터 독립한 예술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프로레타리아문학예술은 프로레타리아혁명위업전체의 일부분이며 레닌이 말한바와 같이 혁명이라는 기계전체의 《톱이바퀴와 나사못》이다.

《연안문예좌담회에서 한 연설》 (1942년 5월)

혁명적문화는 인민대중에게 있어서 혁명의 강력한 무기로 된다. 혁명적문화는 혁명이 일어나기전에 있어서는 혁명을 위한 사상적준비로 되며 혁명과정에 있어서는 전반

혁명전선에서의 필요하고도 중요한 전선의 하나로 된다.

《신민주주의론》(1940년 1월)

우리의 문학예술은 모두가 인민대중을, 무엇보다도 먼저 로동자, 농민, 병사들을 위한것이며 로동자, 농민, 병사들을 위하여 창작되고 로동자, 농민, 병사들에게 리용되는것이다.

《연안문예좌담회에서 한 연설》
(1942년 5월)

우리의 문학예술일군들은 반드시 이 과업을 완수해야 하며 자기의 립각점을 반드시 옮겨놓아야 한다. 반드시 로동자, 농민, 병사 대중속에 깊이 들어가며 실제투쟁속에 깊이 들어가는 과정에서, 맑스주의와 사회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자기의 립각점을 로동자, 농민, 병사측으로, 프로레타리아트측으로 점차 옮겨놓아야 한다. 오직 이렇게 해야만 우리에게 진정으로 로동자, 농민, 병사를 위한 문학예술, 진정으로 프로레타리아

적인 문학예술이 있게 된다.

《연안문예좌담회에서 한 연설》
(1942년 5월)

문학예술을 혁명이라는 기계전체의 훌륭한 한 구성부분으로 되게 하며 인민을 단합하고 교양하며 적을 타격하고 소멸하는 강력한 무기로 되게 하며 한마음 한뜻으로 적과 싸우도록 인민들을 돕게 하여야 한다.

《연안문예좌담회에서 한 연설》
(1942년 5월)

문예비평에는 정치적표준과 예술적표준의 두가지 표준이 있다. ……

정치적표준도 있고 예술적표준도 있는데 이 량자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정치가 결코 예술인것은 아니며 일반적세계관이 결코 예술창작이나 예술비평의 방법인것도 아니다. 우리는 추상적인 절대불변의 정치적표준을 부인할뿐만아니라 추상적인 절대불변의 예술적표준도 부인한다. 모든 계급사회내의 각 계급에게는 다 각이한 정치적표준

과 각이한 예술적표준이 있다. 그러나 어떠한 계급사회의 어떠한 계급이든지 다 정치적표준을 제1위에 놓고 예술적표준을 제2위에 놓는다. ……우리가 요구하는것은 정치와 예술의 통일, 내용과 형식의 통일, 혁명적인 정치적내용과 가능한 한도로 완미한 예술적형식과의 통일이다. 예술성이 결여한 예술작품은 정치적으로 아무리 진보적인것이라 하여도 무력한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치적견해가 그릇된 예술작품도 반대하거니와 정확한 정치적견해만 있고 예술적힘이 없는 소위 《표어나 구호식》의 경향도 반대한다. 우리는 문학예술문제에서 두 전선의 투쟁을 전개하여야 한다.

《연안문예좌담회에서 한 연설》
(1942년 5월)

백화제방, 백가쟁명의 방침은 예술의 발전과 과학의 진보를 촉진하는 방침이며 우리 나라 사회주의문화의 번영을 촉진하는 방침이다. 예술령역에 있어서 각이한 형식과

풍격은 자유로이 발전할수 있으며 과학령역에 있어서 각이한 학파는 자유로이 론쟁할수 있다. 행정적힘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한가지 풍격, 한가지 학파만을 내세우고 다른 풍격, 다른 학파를 금지하는것은 예술과 과학의 발전에 해로운것이라고 우리는 인정한다. 예술과 과학에서의 시비문제는 예술계와 과학계의 자유토론을 통하여, 예술과 과학의 실천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하며 간단한 방법으로 해결하여서는 안된다.

《인민내부의 모순을 정확히 처리할 문제에 관하여》(1957년 2월 27일)

문화가 없는 군대는 우매한 군대이며 우매한 군대는 적을 타승할수 없다.

《문화사업에 있어서의 통일전선》
(1944년 10월 30일)

33. 학 습

락후한 농업국인 중국을 선진적인 공업화한 중국으로 전환시킴에 있어서 우리앞에 놓인 사업은 매우 어려우며 우리의 경험은 매우 부족하다. 그러므로 잘 배우지 않으면 안된다.

《중국공산당 제8차전국대표대회에서 한 개회사》(1956년 9월 15일)

정세는 부단히 변화되고있는만큼 자기의 사상을 새로운 정세에 적응시키기 위하여서는 학습하여야 한다. 맑스주의를 보다 많이 알고있는 사람이나 프로레타리아적립장이 비교적 확고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역시 더 학습하여야 하며 새로운 사물을 접수하고 새로운 문제를 연구하여야 한다.

《중국공산당 전국선전사업회의에서 한 연설》(1957년 3월 12일)

우리는 모르던것을 배워낼수 있다. 우리는 낡은 세계를 파괴할줄 알뿐만아니라 새세계를 건설할줄도 알게 될것이다.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제7기제2차전원회의에서 한 보고》(1949년 3월 5일)

학습에는 두가지 태도가 있다. 하나는 우리 나라의 실정을 고려하지 않고 적용되는것이나 적용되지 않는것이나 몽땅 옮겨오는 교조주의적태도이다. 이런 태도는 좋지 못하다. 다른 하나의 태도는 학습할 때 머리를 써서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는것을 배우는것, 즉 우리에게 유익한 경험을 도입하는것이다. 우리에게 필요한것은 이와 같은 태도이다.

《인민내부의 모순을 정확히 처리할 문제에 관하여》(1957년 2월 27일)

맑스, 엥겔스, 레닌, 쓰딸린의 리론은 《세계의 어디에나 다 적용되는》 리론이다. 이들의 리론을 교조로 간주할것이 아니라

행동의 지침으로 삼아야 한다. 맑스-레닌주의의 문구만을 배울것이 아니라 그것을 혁명적과학으로서 배워야 한다. 맑스, 엥겔스, 레닌, 쓰딸린이 광범한 현실생활 및 혁명의 경험을 연구하여 얻어낸 일반적법칙에 관한 결론들을 리해하여야 할뿐만아니라 그들이 문제를 관찰하고 문제를 해결한 립장과 방법을 배워야 한다.

《민족전쟁에 있어서의 중국공산당의 지위》(1938년 10월)

옳은 리론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다락에 얹어두고 공론만 하며 실행하지 않는다면 그런 리론은 아무리 좋아도 의의가 없는것이다.

《실천론》(1937년 7월)

맑스주의의 리론은 정통하여야 하며 적용하여야 한다. 정통하는 목적은 오로지 적용하는데 있다. 만일 맑스-레닌주의의 관점을 적용하여 한두가지의 실제문제를 설명한다면 그것은 찬양을 받게 될것이며 약간의

성과가 있다고 할수 있는것이다. 설명된 문제가 많을수록, 보편적일수록, 깊을수록 그 성과는 더욱 큰것이다.

《당의 작풍을 바로잡자》(1942년 2월 1일)

맑스-레닌주의의 리론과 중국혁명의 실제를 어떻게 결부시키겠는가? 통속적인 말로 한다면 《목표를 겨누고 활을 쏘아야》 한다. 《목표》란 과녁이며 활을 쏠 때는 과녁을 겨누어야 한다. 맑스-레닌주의와 중국혁명의 관계는 화살과 과녁의 관계이다. 그러나 어떤 동지들은 《목표없이 활을 쏘며》 함부로 맹탕 쏜다. 이러한 사람들은 혁명을 망치기 쉽다.

《당의 작풍을 바로잡자》(1942년 2월 1일)

사업경험을 가지고있는 사람은 리론을 학습하여야 하며 진지하게 독서하여야 한다. 그렇게 하여야만 경험에다 조리성과 종합성을 부여하여 그것을 리론에로 끌어올릴

수 있으며 또 그렇게 하여야만 국부적인 경험을 보편적진리로 잘못 인정하지 않게 되며 경험주의의 과오를 범하지 않게 된다.

《당의 작풍을 바로잡자》(1942년 2월 1일)

책을 읽는것도 학습이지만 적용하는것도 학습이며 또한 더욱 중요한 학습이다. 전쟁과정에서 전쟁을 배우는것—이것이 우리의 주요한 방볍이다. 학교에 들어갈 기회가 없는 사람도 전쟁을 배울수 있다. 즉 전쟁과정에서 배울수 있다. 혁명전쟁은 민중의 일로서 흔히 먼저 배워가지고 하는것이 아니라 하면서 배운다. 하는것이 곧 배우는것이다.

《중국혁명전쟁의 전략문제》(1936년 12월)

《백성》으로부터 군인으로 되는 그사이에는 일정한 거리가 있지만 그 거리는 만리장성이 아니며 속히 없앨수 있는것이다. 혁명을 하며 전쟁을 하는것이 이러한 거리

를 없애는 방볍이다. 학습하는것과 적용하는것이 쉽지 않다는것은 철저히 학습하며 능숙히 적용하기가 쉽지 않다는 말이다. 백성이 속히 군인으로 될수 있다는것은 즉 이 길에 들어서기가 어렵지 않다는 말이다. 이 량자를 한데 종합하면 여기에는 《마음만 먹으면 세상에 어려운 일이 없다.》는 중국의 속담이 적절하다. 이 길에 들어서기가 어렵지 않은만큼 마음만 먹고 학습을 잘하기만 하면 거기에 정통할수도 있는것이다.

《중국혁명전쟁의 전략문제》(1936년 12월)

우리는 반드시 모든 능수들(어떠한 사람임을 물론하고)로부터 경제사업을 배워야 한다. 그들을 선생으로 모시고 공손히 그리고 성실하게 배워야 한다. 모르는것은 모른다고 하고 아는척하지 말아야 한다.

《인민민주주의독재에 대하여》(1949년 6월 30일)

지식문제는 과학문제로서 조금이라도

허위나 자만이 있어서는 안된다. 결정적으로 요구되는것은 바로 그와 반대되는것, 즉 성실하고도 겸손한 태도이다.

《실천론》(1937년 7월)

학습에서의 적은 자기만족이다. 무엇이나 좀 실속있게 배우려면 우선 자만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자신에 대하여서는 《배움에 싫증을 내지 않고》 남에게 대하여서는 《가르침에 게으르지 않는》 이러한 태도를 취하여야 한다.

《민족전쟁에 있어서의 중국공산당의 지위》(1938년 10월)

일부 사람들은 맑스주의서적을 좀 읽고서는 유식한체하지만 결코 깊이 리해하지도 못하고 머리속에 뿌리를 박지도 못하고 적용할줄 모르며 계급적감정은 낡은 그대로 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매우 교만하여 책을 몇줄 읽고서는 대단한것 같아서 코대를 잔뜩 세우지만 일단 풍랑에 부딪치면 로동자나 대다수의 근로농민들과는 립장이 아주 다

르다. 전자는 동요하고 후자는 견정하며 전자는 애매하고 후자는 명확하다.

《중국공산당 전국선전사업회의에서 한 연설》(1957년 3월 12일)

맑스주의를 배우려면 서적에서도 배워야 하지만 주로는 계급투쟁, 사업실천 및 로농대중과의 접촉을 통하여 배워야 진정으로 배워낼수 있다. 만일 우리의 지식인들이 맑스주의서적들을 읽고 또 로농대중과의 접촉을 통하여, 자기의 사업실천을 통하여 그것을 리해하게 되면 우리는 공통한 언어를 가지게 될것이다. 애국주의면에서의 공통한 언어, 사회주의제도면에서의 공통한 언어를 가지게 될뿐만아니라 공산주의적세계관면에서의 공통한 언어도 가지게 될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우리의 사업이 틀림없이 훨씬 더 잘되여나갈것이다.

《중국공산당 전국선전사업회의에서 한 연설》(1957년 3월 12일)

毛 主 席 语 录

*

外文出版社出版（北京）

1972年版

编号：（朝）1050—620

00077

1—K—734Pc

大众5